SF 매거진

1993년
창간호

세계 SF 정보

BE 명작감상
인류의 미래를 예견한
SF의 구약성서

CLOSE UP
열린 우주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해외 SF 중편
스톤 플레이스

SF 탐방
과학소설동호회
'하이텔'을 찾아

창간기획특집
우리나라의 SF 도입과 발달약사
세계 SF대회

SF 에세이
과학소설과 과학적 상상력

SF STUDY
시간 여행에 대한 상식

SF 단편소설
순장/맥스웰의 도깨비
오버 더 사이드/실패작

행복을 만듭니다.
꿈을 보여드립니다.

창립 이후 30주년, 땀과 보람의
뜻깊은 의미를 가슴속에 되새기며
세계속의 라이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웅비를 위한 라이프그룹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라이프주택이 추구하는
新주거문화입니다.

보다 편안한 주택, 완벽한 미래공간 창조로
인간의 행복과 꿈을 위한 新주거문화를
추구해온 라이프그룹—
저희 라이프그룹은 생활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행복을 찾아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집, 행복을 나누는 공간
라이프가 실현하고 있습니다.

라이프그룹 **라이프주택개발(주)**

SF 매거진

1993년 창간호

(주)나경문화

과학기술과 예술의 이상적인 만남

조명준/ (주)나경문화 대표이사 · 발행인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과학 안에서 과학의 이기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마치 한시라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살듯이. 그러면서 오히려 과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다는 선입견을 내세워 도외시하려 한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국제 경쟁력은 세계 11위에 올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우리별 1호' 인공위성은 세계에서 스무 번째를 상위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과학수준, 특히 기초과학 부문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우리의 무역은 최근 들어 국제 경쟁력에 있어 취약한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 연유되고 있는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그 이유를 고임금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무역에 대한 책임을 저임금이 도맡아야만 하는가.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에 맞서는 방법밖에 없겠는가? 아닐 것이다. 질서화되지 못한 부정에 대한 부정은 더한 부정을 파행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학에 대한 관심, 즉 과학에 대한 인지도의 저하에서 오는 과학수준의 낙후성에서 연유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우수한 두뇌를 자랑해왔으면서도 그것을 우리 것으로 활용하지 않고 남의 것을 모방하려는 데에만 주력하다보니 대외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지적 소유권이라는 벽에까지 부딪쳐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허리띠만 졸라매라 하고 있다.

과학은 곧 생활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이런 간단한 논리가 실제로 과학 발전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곧 과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SF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한 SF전문 정보지의 절실한 필요성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학적 상상력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SF는 그러한 과학적 상상력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과학기술에 입각한 리얼리즘의 토대 위에 있을 수 있는 사실을 가능하게 하는 문학 장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SF 장르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과학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 잘못 받아들인 오류들이 불신의 허울을 쓰고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SF 문학의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고, 과학이 쉽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과도 밀접해 있어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SF에 대한 올바른 정보지의 필요성으로 「SF매거진」을 창간하게 되었다.

대전 엑스포 박람회와 로켓 발사를 앞두고 SF정보지를 출간하게 되어 사명감과 함께 두려움이 앞선다.

비록 시작은 미미하지만 장차 이 사회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는 확신으로 창간사를 대신한다.

「SF매거진」 창간에 기대와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국내 과학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채연석/ 항공우주 연구소 로켓 추진기관 연구실장

SF는 Science Fiction의 약자로 '과학소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소설'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공상과학소설'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친숙하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과학발전은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룩한 과학발전의 기본 아이디어는 과학자들이 아닌 과학소설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과학소설의 창시자이며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도 프랑스의 줄 베르느(Jules Verne)가 아닌가 생각된다.

베르느는 1828년 프랑스의 '낭트'라는 항구도시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친은 변호사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강렬한 탐구심을 갖고 있었다. 어렸을 때, 배를 타고 세계여행을 해보기 위해 집을 나가 기선을 타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아버지에게 붙들려 몹시 혼나고 다시 집으로 끌려온 적도 있을 정도이다.

법학공부를 하고 파리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인 1852년에 앙리 지파르가 유선형의 기구에 35마력의 증기 엔진을 매달고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어느 정도 마음대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선을 개발했고, 곧 공중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기구가 발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을 때, 베르느는「기구를 타고 5주일」이라는 그의 첫 SF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마치 20세기, 21세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해저 2만리」「지구로부터 달까지」「달을 돌아서」등 50여 편의 훌륭한 SF작품을 남겼다.

베르느의 과학소설들은 그의 뛰어난 천부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겠지만, 그의 상상력 못지않게 많은 과학공부 또한 도움이 되었다.

국내 최초로 창간되는 SF전문지
『SF매거진』이 SF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SF작가들의 등용문이 되어
한국의 과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SF작가들을 배출해내시길……

한 가지 예를 들면, 그의 우주과학 소설인 「지구로부터 달까지」와 「달을 돌아서」는 그 내용이 미국의 달 탐험계획인 아폴로 계획을 100여 년 전에 예언이라도 한 듯이 비슷한 점이 많아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그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400여 권의 과학책을 참고로 읽고, 파리대학 수학교수인 그의 사촌과 많은 시간 토의를 했다고 하니 이는 과학소설이라기보다는 한 편의 읽기 쉽고 재미있는 우주과학연구논문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과학소설은 미래의 과학발전을 선도하여 풍부한 아이디어를 과학자들에게 제공하는 수단인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SF작가들의 임무가 큰 것이다.

그 동안 위대한 발명이나 과학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던 많은 과학자들이 어렸을 때 '과학소설'을 읽고 과학자가 될 꿈을 키운 것을 보면 과학소설의 역할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과학소설의 큰 특징은 현재의 과학을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과학의 세계를 상상하여 그려보는 것이므로 SF작가 지망생들은 특별히 과학에 대하여 폭넓게 공부를 많이 해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없이 자신의 뛰어난 상상력만을 바탕으로 과학소설을 쓴다면 훌륭한 작품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주)나경문화의 조명준 사장님의 SF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창간되는 「SF 매거진」이 SF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만남의 장소가 되고 SF작가들의 등용문이 되어 한국의 과학발전에 도움을 줄 훌륭한 SF작가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도서출판 호겨레는 오직 좋은 책만을 고집합니다.

호겨레가 한국 문학사를 새로 쓴다!

1	**까레이우라**/이호철	3,500	14	**무화과꽃은 언제 피는가**/최일남	4,200
2	**포대령**/천승세	4,200	15	**지상의 방 한 칸**/박영한	4,200
3	**이차도 복순전**/천승세	4,200	16	**님**/윤정모	3,800
4	**겨울광장**/이청준	4,200	17	**카토의 자유**/정을병	3,800
5	**테러리스트**/송기숙	3,800	18	**타오르는 추억**/이문열	5,000
6	**폭력연구**/이동하	3,800	19	**분례기**/방영웅	4,200
7	**형벌의 집**/전상국	4,200	20	**철조망 속 휘파람**/박석수	4,200
8	**언젠가는 다시만나리**/이외수	5,000	22	**골패**/정건영	4,200
9	**다산성**/김승옥	4,200	23	**실종**/구중관	4,200
10	**살아나는 팔**/이상문	4,200	24	**표류하는 소금**/유익서	3,800
11	**분지**/남정현	4,200	25	**화신제**/유재용	4,200
12	**산울림**/하근찬	4,200	26	**총독의 소리**/최인훈	(근간)
13	**긴꿈속의 불**/최창학	4,200	27	**백치의 달**/윤흥길	(근간)

SF 매거진

에 · 스 · 에 · 프 · 매 · 거 · 진

1993년 창간호
CONTENTS

창간사/과학기술과 예술의 이상적인 만남 ……2

격려사/국내 과학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4

창간 기획특집/우리나라의 SF 도입과 발달 약사 ……8

세계 SF 정보 ……14

신세대 인터뷰/우리의 숨결에 맞는 우리 목소리 가져야 ……20

SF 에세이/과학 소설과 과학적 상상력 ……25

창간 기획특집/세계 SF 대회 ……28

SF STUDY/시간여행의 이론과 실재 ……32

SF 갤러리/외계와의 만남 ……43

CLOSE UP/열린 우주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44

SF 탐방/과학소설 동호회 '하이텔'을 찾아 ……50

SF 명작감상/인류의 미래를 예견한 SF의 구약성서 ……54

SF 단편소설/순장 ……58

맥스웰의 도깨비 ……63

오버 더 사이드 ……66

실패작 ……70

해외 SF 중편/스톤 플레이스 ……76

SF 책방 ……90

(주) 나경문화

우리나라의 SF도입과 발달 역사

박상준/ SF기획 번역가

오늘날 SF문학은 서구에서는 대중문학의 한 장르로서 확고부동하게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도 SF문학이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단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 SF문학은 20세기 들어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한 과학기술에 힘입어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나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으며, 과학소설이라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뛰어넘어 오늘날 '사색, 추론소설(Speculative Fiction)'이라는 새로운 자기규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휴고 건즈백이 1911년 4월호 「모던 일렉트로닉스」지에 「랄프 124 C 41 +」를 연재하기 시작한 때를 이른바 장르(genre)SF의 시초로 본다면, 현대 SF문학의 역사는 이제 80여 년의 연륜을 쌓은 셈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도 현대 SF의 다양한 시각이나 접근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어떤 특정 분야가 외국에 비해 명백하게 열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체적인 입장으로 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SF문학의 경우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소개와 창작 활동에 본격적인 관심 및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서구와 일본의 SF문학 발달사를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이 땅에 현대적 의미의 SF문학이 어떻게 소개되고 발달해 왔는지 거칠게나마 추적해보기로 하겠다.

195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 서구의 SF가 최초로 소개된 것은, 이른바 '신소설'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해조(李海朝:1869-1927)의 번안소설인 「철세계(鐵世界)」

라고 생각된다. 「철세계」는 「해저 2만리」「지저여행」 등을 발표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줄 베르느의 작품을 이해조가 번안한 것이다. 당시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제국신문과 매일신보 등에 「자유종(自由鐘)」,「화(花)의 혈(血)」등 30여 편 가량의 신소설을 발표하였던 이해조는,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신교육과 개화사상을 널리 전파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알려지므로, 줄 베르느의 「철세계」를 번안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휴고 건즈백이 '사이언티픽션(Scientifiction)'이란 이름으로 과학기술 계몽 수단으로서의 과학소설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철세계」의 성격도 그다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사실 「철세계」가 나올 당시는 아직 서구에서조차도 SF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시기였던 만큼, 영국의 H. G.웰즈와 함께 근대 SF의 두 선구자 중 하나로 꼽히는 줄 베르느의 작품이 이미 개화기 때 이 땅에 소개되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SF문학이 그 출발에서 만큼은 그다지 뒤진 편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일본에 활발하게 소개되었던 줄 베르느나 H.G.웰즈 등의 작품은 일제 시대에 접어들어 이 땅에도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비록 일본어로 된 책들이긴 해도 서구 SF문학의 초기 성과들을 이 땅에 보급하는 데 한 몫을 했을 것이며, 더불어 소수나마 고정 독자층이 생겨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제 시대와 그 뒤의 해방 공간에서도 조직적인 과학계몽 운동이 일어났던 기록은 있지만 SF문학과 관련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민족의 수난기에, 또 뒤이은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SF문학이 힘겹게나마 일정한 자리를 잡기에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가혹했을 것이다.

● ● ●

어떤 특정 분야가 외국에 비해 명백하게 열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체적인 입장으로 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 ● ●

1950년대

6.25전쟁이 끝난 뒤 1950년대 끝무렵에 접어들어 문고판으로 SF번역서들이 하나 둘씩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59년에는 H.G.웰즈의 「우주 전쟁」이 출간되었는데, 이 작품은 20세기 세계 지성사에 우뚝 솟은 거목인 웰즈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걸작이지만 이미 절판된 지 오래이고, 오히려 지금은 아동용으로 편집된 것만 나오고 있다.

한편 1950년대는 이미 미국에서 SF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로서, 대중문학의 한 분야로 크게 각광받는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성숙된 작가들이 속속 등장하던 때였다. 아이작 아시모프나 아서 클라크,로버트 하인라인 같은 SF의 거장들이 한창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SF나 환상(fantasy)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잡지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다 사라지곤 했다.

한편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에서는 그런 SF들이 값싼 페이퍼백으로 흘러나오곤 했다. 그와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일본은 마침내 1950년대에

성공적으로 SF의 상업출판 시대를 열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60년대

1960년대 들어 서구 SF계에서는 '뉴 웨이브(new wave) SF'가 등장했다. 뉴 웨이브 SF는 이제까지의 일견 틀에 박힌 SF의 전형성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인간의 내면 세계를 SF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색다르게 묘사해내려는 진지한 시도로서, 이후 SF의 질적 성숙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SF란 '과학기술적 논리에 입각한 미래상이나 줄거리를 채택하는 것이다'라는 종래의 고답적인 SF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SF라는 말 자체도 'Speculative Fiction(사색,추론소설)'이라는 새로운 풀이로도 불려지게 되었다. 또한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SF를 문학의 한 장르로서 분석하고 논평하는 평론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의 킹슬리 에이미스는 1960년에 「지옥의 새 지도(New Maps of Hell)」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SF문학평론의 출발을 알렸고, 주류문학 평론가들이 하나 둘씩 SF문학의 잠재적 가능성에 눈을 돌리면서 활발한 평론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구 SF의 변화는 국내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뉴 웨이브 SF의 대표적인 작가들인 브라이언 올디스나 J.G.발라드, 할란 엘리슨, 마이클 무어콕, 사무엘 델라니 등등의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에선 하야카와(早川)SF문고가 이미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SF를 출판해내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에는 일본 최초의 본격 SF잡지인 「SF매거진」이 창간되었다. 이 잡지는 초창기 얼마 동안 미국의 「Fantasy and Science Fiction」지를 옮기다시피 하여 발간되었지만, 곧 일본 작가들의 작품으로 자체적인 편집을 하였다. 또한 「SF매거진」은 미국의 「Fantasy and Science Fiction」을 한자로 옮긴 「공상과학소설지(空想科學小說誌)」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는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 오늘날 이 땅에서 SF를 '과학소설'이 아닌 '공상과학소설'이라고 잘못 부르게 되는 유래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SF문학은 1965년에 한 가지 뚜렷한 기록을 남긴다. 「주간 한국」에서 주최한 제1회 추리소설 공모 당선작에 문윤성의 「완전사회」라는 SF가 선정된 것이다.

이 작품은 인공동면에 들어간 주인공이 먼 훗날 깨어나보니 전 세계가 여성들의 공화국으로 변했더라는 주제를 설정해놓고 있으며, 또한 한글 자모가 세계의 공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을 펼치고 있다.

비록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문체나 어투 등에서 어색한 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작품은 우리나라 현대 SF문학사에서 사실상 최초의 본격 SF장편으로 기록될 만하다.

한편 국내 최초의 과학전문 기자 출신 중 하나인 서광운은 당시 발간되던 「학생과학」지에 스스로 집필한 SF를 연재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몇몇 청소년 소설 작가 등과 함께 60년대 말에 「한국 SF작가클럽」을 결성한다. 한국 SF작가클럽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청소년 대상의 작품집을 출간하는 등 SF저변 확대에 힘쓰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지만, 국내 최초의 SF관련 조직으로서 선구적인 활동을 펼쳤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번역문화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면서 넓은 의미의 SF라고 할 만한 작품들, 이를테면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나 조지 오웰의 「1984」 등이 속속 출간되었지만, 이런 작품들은 어디까지나 '주류문학(mainstream literature)'의 성과로서 소개되었을 뿐 'SF'라는 분석틀로 조명받지는 못했다.

장르 SF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미국의 '국민작가'로 추앙받는 에드가 라이스 버로우즈의 「화성의 미녀」, 또 H.G.웰즈의 「투명인간」 등이 60년대에 국내에 출간되었다.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 서구 SF문학은 질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뉴 웨이브 SF가 끼친 영향은 매우 깊고 폭이 넓었지만 정작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장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시들해진 반면, 그러한 토양에서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은 작가들이 새롭게 부상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여류작가 어슐러 르 귄으로서, 그녀는 「암흑의 왼손」으로 순식간에 1급 작가의 대열에 올라선 후 탁월한 문학적 역량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뛰어난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

서구의 SF문학은 당시의 국제 정세와 맞물려 냉전이나 월남전 등을 소재로 작품들을 배출해내었으며, 전통적인 의미의 SF들 또한 변함없는 인기를 구가했다.

1973년 일본에서는 고마쓰 사쿄(小松左京)가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발표하여 일본 전국에 대소동을 일으켰다. 치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한 대지진의 참상이 일본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으며, 이 작품이

● ● ●

7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엔 외국의 SF작품들이 속속 번역 출간되기 시작했다. 비록 일본 문고판을 중역하거나 체제를 본뜨고 있었지만……

● ● ●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물론, 당시 대피 장비까지도 날개돋친 듯 팔리는 일화를 남겼다. 특히 이 작품은 인물이나 사회상의 묘사에도 완숙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어, 이미 일본은 서구에서 유입된 SF문학을 토착화하는 데 성공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었다.

한편 일본에서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일본침몰」은 그 즉시 국내에서도 두 가지 번역판이 출간되었으며, 현재까지 최소한 네 가지 이상의 번역본이 나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에 들어서 비로소 외국의 장르 SF작품들이 속속 번역 출간되기 시작했다. 비록 일본 문고판을 중역하거나 체제를 본뜬 아쉬움을 안고 있지만, 「동서추리문고」는 사실상 국내 최초의 본격 성인용 SF들을 다수 출간하였다. 이 문고를 통해 레이 브래드버리나 알프레드 베스터, 반 보그트 등등 기라성 같은 SF작가들이 처음 소개되었으며, 역시 같은 시기에 모음사에서 아서 클라크의 「2001:우주의 오디세이」가 출간되었다.

한 가지 특별하게 언급할 만한 사실은, 콜린 윌슨의 평론집 「문학과 상상력」이 출간된 것이다. 「속 아웃사이더」라는 부제가 붙은 채 1978년 범우사에서 나온

이 책의 내용 일부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SF문학평론서였다.

1980년대

컴퓨터와 유전공학의 발달로 서구 SF문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윌리엄 깁슨이 하이테크 유전자공학 및 컴퓨터공학 기술을 80년대 특유의 펑크족 문화와 결합시켜 '사이버펑크 (cyberpunk)'라는 포스트모던 SF장르를 탄생시켰고, 이밖에 로버트 포워드 같은 정통 하드(hard)SF의 계승자들도 등장했다. 1980년대 들어 서구의 SF문학은 60년대나 70년대에 보여주었던 사회 현실에 대한 민감성이 많이 둔화되었고, 어떤 의미로는 현대의 발달된 과학기술 이론들을 복고풍의 SF스타일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인상을 준다. 즉, '스페이스 오페라(space opera)' 같은 활극류의 작품들이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980년부터 「일본 SF대상(大賞)」이 수여되기 시작했다. 첫번째 수상자인 호리 아키라는 전후세대 SF작가로서 수상작 「태양풍 교점」을 통해 일본 SF는 이미 서구 SF문학과 대등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게 된 시기로, SF문학의 토착화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0년대의 우리나라 문화는 이른바 순수와 리얼리즘으로 양분된 상태였으며, 적어도 SF의 주독자층인 청소년들에게는 리얼리즘이 절대 우세를 보였던 시대였다. 따라서 문학이나 출판분야 역시 그쪽의 출판물들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다. SF가 이러한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너무도 현실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비장했던 것이다.

결국 70년대 말부터 한동안 유통되던 SF문고는 절판되고 말았고, 그뒤 아서 클라크의 「2001:우주의 오디세이」 3부작이 완간된 것 외에는 별로 소개된 SF들이 없었다. 어슐러 르 귄의 「암흑의 왼손」도 1986년에 일어판 중역본으로 나왔다가 절판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내 SF 창작 분야에선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987년 복거일은 대체역사소설 「비명을 찾아서」를 발표하여 작품에 담긴 문학성 못지않게 상업적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밖에도 몇몇 기성 문단의 작가들이 SF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한편 「스포츠서울」지에서는 매년 SF부문의 신인작품들을 공모하기 시작했고, 또 80년대 후반부터 출판계에 일기 시작한 교양과학서적 붐은 SF 독자층 형성의 토양다지기 역할을 담당한 격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컴퓨터 통신망의 확산이다.

1990년대를 전망하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층을 위주로 컴퓨터 통신망이 급격하게 확산되었고, 더불어 그러한 통신망에 자신의 습작을 연재하는 젊은 작가들이 등장했다. 컴퓨터라는 문명의 이기에 걸맞게 그들의 작품은 상당수가 SF이며, 나중에는 컴퓨터 작가로 인기를 얻어 자신의 작품을 책으로 출간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다.

한편 90년대에 접어들면서 SF의 번역

출간도 획기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이 원작 발표 50여 년 만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을 시발로 장르 SF의 고전과 최신작들이 마구 쏟아지다시피 번역되어 나오고 있으며, SF서적 출간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표방하는 출판사까지 생겨났다. 최근엔 질 나쁜 졸속 번역들이 판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단 이렇게 조성된 고무적인 환경이 다시 크게 뒷걸음질 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러나 국내 작가의 양성이나 기성 문학계의 SF에 대한 진지한 접근 작업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모처럼 맞이한 국내 SF중흥의 계기는 또 뚜렷한 결과 없이 사그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머잖은 장래에 실현될 통일과 국제적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또 근본적으로는 21세기 이후의 고도 정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SF문학이 이 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SF문학은 고유의 미학적 가치는 접어두고라도 어떤 식으로든 현실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효용성을 충분히 기지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환경 문제나 매체의 발달에 따른 대중 문화의 변천, 또 경제와 정치 이념의 탈이데올로기적 양상 등은 전통적으로 SF에서 다루어왔던 폭넓은 주제들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간과 사회의 변화를 대중적으로 폭넓게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SF라는 분야의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SF문학의 토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SF

로봇(Robot)의 어원

오늘날 공장이나 연구소에서 인간의 충실한 협력자로 활동하고 있는 로봇은 일찍이 많은 SF작품에서 거론되어 왔다.

로봇이란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이자 세계적인 소설가인 카렐 차펙(Karel Capek)의 희곡 'R. V. R'이 1920년 10월 9일 뉴욕에서 상영되면서부터이다.

이 작품은 그가 1920년 희곡 「로섬의 만능 로봇」을 무대에 올린 것으로 과학기술의 지나친 발달이 인간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문명비판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SF정보

강 수 백/ 본지 해외 리포터

해외 SF정보의 절대량이 부족한 현 국내 상황에서 글자 그대로의 '단신'만으로는 팬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 물론 기사의 성격상 일방통행적인 정보의 전달이라는 형식을 피해 지나갈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특정 정보가 독자들에게 먹혀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배경 설명은 필수적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극히 초보적(?)인 사실을 필자는 거듭 확인해야만 했다.

SF의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의 죽음

아이작 아시모프는 특별한 존재이다. 팬이 아니더라도SF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을 것이다. 유리나라에서 번역 출판된 저서의 수량만 해도 다른 작가들을 압도하고 있고, '최고 거장이 쓴 SF 사상 최대의 걸작' 식의 과장된 허사(虛辭)를 남발하기 일쑤인 국내 출판사의 광고 문안에서도 그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아무래도 삼십여 년 전부터 그를 절대시해온 일본 SF계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이다. 그러나 미국, 나아가서는 세계의 SF에 그가 끼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그가 금년 4월 6일, 72세를 일기로 뉴욕 대학 부속병원에서 영면했다. 4월 7일자의 뉴욕 타임즈는 사망란의 반 페이지를 할애해서 SF의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고, CNN을 포함한 세계의 뉴스 서비스도 간단한 약력을 곁들여 일

제히 그의 죽음을 보도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1920년 1월 2일 소비에트 연방의 스몰렌스크 근교에서 유태인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23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한 그는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발휘. 15세의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18세에 처음으로 정식 채택된 단편 「Marooned off Vesta」로 세계 최초의 SF전문지 Amazing Science Fiction지에 단편을 투고해서 명편집자 존 캠벨 2세의 인정을 받았다. 모교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 1949년에 보스턴 대학 의대에서 교편을 잡은 후에 그는 유명한 「파운데이션」 시리즈의 제1작을 쓰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그의 작가 인생은 곧 SF의 '황금기의 역사' 그 자체였다. 미국 SF계에서는 로버트 '소설 공장' 실버버그에 버금가는(본인 말에 의하면 '능가하는') 다작가이기도 했던 그는 40여 년 간 연평균 약 12권이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SF, 추리소설, 논픽션 등을 창출해냈다. 특히 대학용 교과서가 포함된 각종 논픽션의 주제는 화학, 생화학,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셰익스피어 연구, 고대 및 현대의 역사, 미취학 아동용 도서, 성경 해석, 유머, 리머릭(5행戱詩) 등 분야가 넓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박학다식함과 천재성을 입증하고 있다. 물론 그는 국내에서는 다수의 휴고상 및 네뷸러상을 수상한 SF작가 및 편집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평가도 대부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펄프 잡지에 실리던 통속적 오락물에 불과했던 SF를 사회학, 역사학, 수학, 기타 자연과학에 결부시켜 보다 지적이고 사색적인 장르로 발전시킨 공로자 중의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학적인 면 보다는 선구자, 계몽자적인 면이 더 앞선 작가이기도 하다. 대표작으로는 「파운데이션」 시리즈와 「로봇」시리즈 등이 있다.

아이작 아시모프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SF계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는 1920년 소련 페트로비치에서 출생하여 세 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하였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보스톤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50년 「우주의 작은 돌」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SF 작가로 활약한다. 그후 「우리는 로봇」「우주기류」「강철 도시」등을 발표하며 명성을 날렸으며 72년「신들 자신」으로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SF작가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된다. 또한 84년 「파운데이션」시리즈로 87년에는 미국 SF작가협회로부터 "SF계의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그외 작품으로는 「여명의 로봇」「로봇과 제국」「파운데이션과 지구」「네메시스」등 다수가 있다.

이미 작년말부터 지병인 심장병(1983년에 바이패스 수술을 받았다)의 악화와 집필 지연 등으로 예견되어오던 일이긴 하지만 그의 죽음은 미국의 SF 전문지 판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그가 15년간에 걸쳐서 편집장을 맡아온 Issac Asimov's Science Fiction Magazine지 및 그 자매지인 Analog지의 판권이 미국 유수의 출판 그룹 Dell Books로 옮겨갔고, 편집진에는 변동이 없다는 후문에도 불구하고 미국 SF계를 이끌어온 두 잡지의 성격에 변화가 오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최대의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Analog가 표방하는 테크놀로지컬 SF 노선에의 영향이 주목된다.

SF의 큰 별, 프리츠 라이버 사인은 심장마비

금년 초의 아시모프 서거에 이어 SF계의 큰 별이 또 하나 떨어졌다. 최근 입수

한 미국 정보지 Science Fiction Chronicle 10월 호는 판타지와 SF의 거장 프리츠 라이버(Fritz Leiber:1910~1992)가 9월 5일 사망한 것을 간략하게 보도하고 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한다. 라이버는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된 적이 없는 작가이고, 특별한 행운이 없는 한 가까운 시일 내에 번역 출판될 가능성도 없다. (여담이지만 마이클 크라이턴 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SF에 해당되지 않는 계몽적 과학 스릴러를 양산하는 작가가 해외에서 베스트셀러를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내에서는 잘 팔리는 일류 '과학소설' 작가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는 시간여행 테마의 걸작 「Big Time」으로 1958년도 휴고상 장편부문, 「The Wander」로 역시 1965년 장편부문 휴고상을 수상하기도 한 재인(才人)이지만 SF독자들 사이에서는 '검과 마법' 장르의 인기 듀오 「Fafhrd & Grey Mouser」시리즈의 작가로 사랑을 받아왔다. SF라기보다는 순수한 판타지에 가까운 이 시리즈의 중편 「Ill Met in Lankhmar(1970)」가 각각 휴고상과 네뷸러상의 중편 부문 최우수작으로 뽑힌 사실이 이 시리즈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 이외의 대표작으로는 세계 환상 문학상(The World Fantasy Award) 대상을 수상한 「Our Lady of Darkness」 등이 있다.

출판현황

● 아이덴터티의 문제

당연한 얘기지만 해외뉴스가 SF의 종주국이자 세계 최대의 내수·수출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현재 헐리우드산 영화가 세계 영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통계적으로만 보아도 1970년대 말 미국에서의 SF 관련 서적의 출판은 (재판을 포함) 이미 연간 1천 권대에 달하고 있었고, 1991년의 자료에서는 총합계가 무려 2천 권 가까이 되고 있다. 인접 분야인 판타지와 공포소설이 포함된 숫자라고는 해도 이것이 막대한 양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현재 발간되고 있는 SF 관련 서적의 대부분이 적어도 평론가나 진지한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잘 팔리는 단행본' 대부분이 염가의 페이퍼백 형태로 출판된다)들을 훑어보면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현실 도피'이다. SF 내의 서브장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판타지의 탈을 쓴 로맨스 소설, SF의 탈을 쓴 전쟁 소설, 「검과 마법」류의 서양판 무협지, SF영화의 소설화, 안이한 시간여행 및 평행 우주 소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들 대부분이 SF의 중요한 문학적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의사(擬似)SF라고도 할 수 있는 도피 문학적 대량생산품에 의해 장르 내부가 「오염」 되어 있다는 의견이 최근 자주 들려온다. 물론 이런 일은 'SF = 통속' 오락물의 공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1940년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SF라는 장르가 확립되고 전문화, 세분화, 상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이덴터티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었다.

● 판타지의 정의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의 미국 SF계는 테마의 고갈과 황금기의 거장들의 침묵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할 만한 것에 빠져들었고, 영국에서 시작된 소위 뉴웨이브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수혈로 기사회생했던 적이 있었다. 짧지만 격렬

했던 이 운동으로 SF는 문학적 다양성 및 테마의 내면화라는 기능을 획득했고, 상대적으로 고급화한 장르는 불안하게나마 일종의 시민권(미국에서는 70년대 초부터 SF전문 강좌가 개설되고 외부인에 의한 우수한 평론 등도 나오기 시작했다)을 얻게 되었다. 너무 스타일에만 치중하게 되는 폐해도 있었지만 70년대 SF의 장래는 밝게 보였다. 1977년의 영화 '스타 워즈' 의 세계적 히트에서 비롯된 영상매체의 침투가 그것이다. 아직도 일반인에게는 생소했던 SF라는 장르가 어느 독자의 말을 빌리자면 '하룻밤 사이에' 친숙한 것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스타 워즈' 등의 히트 상품이 정통적 SF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종의 순수한 판타지였다는 점에 있다. '스타워즈'가 현대 SF와 얼마나 동떨어진 것이었는지는 그 당시의 정통적임을 자부하는 독자들의 분노에 찬 코멘트를 들어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영화 한 편으로 SF가 쌓아온 수십 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라든가 '과학적 고증의 유치함은 가히 환상적이다' 등은 점잖은 편에 속한다. '스타 워즈'가 이미 고전이 되어버리고 SF의 탈을 쓴 폭력 영화가 파고들고 있는 지금 이 얘기는 무의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당시 정통독자들이 느꼈던 좌절감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독자들에게는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는 현대 SF의 역사적 배경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도 실은 지금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판타지의 출판과 그 반동으로 SF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판타지 오염론'에 관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으로 '환상'이 이른바 공상과학소설의 '공상'과 비슷한 부정적인 어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SF에 비해 '과학'이 빠진 만큼 상대적으로 어린이용의 허황된 동화(fairy tale)라는 그릇된 선입관을 불식하기가 더 힘들다.

●80년대 초의 사이언스 판타지의 대두

역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판타지가 SF에 가장 근접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양 장르는 그 방법론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SF의 방법론이 과학적 논리에 의거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내용이 아무리 황당무계하고 비현실적일지라도 SF는 어디까지나 독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또한 납득한 것 같은 기분으로 만드는) 최소한도의 일관된 논리 구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판타지는 작가가 쓰는 소설의 내부적 논리를 제외한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제약도 거부한다. 작가는 곧 조물주인 것이다. 물론 판타지의 기본이 되는 것은 깊게는 신화나 전설, 표면적으로는 기사나 마법사가 활약하는 전통적인 서양의 로맨스 소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SF 못지않은 정형적 장르로 진화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판타지 붐에 불을 당긴 것은 일반적으로 영국 작가 톨킨(J.R.R. Tolkien)의 반지 시리즈(The Ring Cycle)의 상업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통 판타지로 분류되는 그의 작품군 (Hobbit 소설도 반지 시리즈의 방계 작품에 해당한다)이 영어권의 작가 예비생, 특히 여성들에게 끼친 영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순수 문학으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톨킨의 작품이 미국적 상업성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SF계를 잠식할 정도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장르 판타지이다. 페이퍼백의 표지만 보아도 어떤 종류의 작품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미국식 대량생산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장르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본의 유입이 우수한 작가들을 배출한다는 문화계에서는 보기 드문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현대 판타지가 SF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장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상업적으로나 창조적으로나 두 장르의 구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다. 우선 SF 작가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판타지 (어슐라 K. 르귄의 「Earthsea」 4부작, 진 울프의 「The Book of New Sun」 시리즈 등)를 쓰는 작가들이 있고, 소수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L. 스프레이그 디 캠프의 「Lest Darkness Fall」)도 종종 볼 수 있다. SF와 판타지가 서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호 작용이 SF에 끼친 부정적 영향은 특히 1980년대에 두드러졌던 사이언스 판타지의 대두에서 볼 수 있다. 글자 그대로 SF와 판타지의 융합을 의미하는 이 서브장르는 상업적 이유에서 인기 시리즈물을 선호하는 출판사들의 기호와 맞아 떨어져서 SF의 질적인 저하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얄팍한 과학적 틀(이를테면 상상을 초월한 미래라든지 이그조틱한 행성)을 배경으로 주인공들이 그야말로 환상적인 모험을 하는 오락적 작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통팬들의 반발이야 어쨌든 간에 현재 미국 SF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서브장르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앤 맥카프리(Ann McCaffrey)의 「행성 펀의 용기사」(Dragonriders of Pern) 시리즈가 있다. 참고로 서양 기사담에서 빼려야 뺄 수가 없는 용(Dragon)은 동양의 용과는 다른 서양만의 팽대한 상징적 의미(외관상으로도 공룡을 더 닮았다)를 내포하고 있고, 대다수의 현대 판타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 이 사태에 대한 SF계의 반응은 어땠을까? 판타지로부터의 침략을 걱정하기 전에 SF는 이미 구조적으로 판타지적인 요소(독소? 암?)를 내포하고 있었다. 바로 '검과 마법'이라고 불리는 장르의 존재이다.

●'검과 마법' 장르의 기원

검과 마법 (Sword & Sorcery)이라는 명칭은 Heroic Fantasy라고도 불리는 SF의 하위 장르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의 작가이자 판타지 평론가인 L.스프레이그 디캠프(L. Sprague de Camp)가 만든 이름이다. 작품에서 판타지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면 (이를테면 전지전능에 가까운 마법사가 주인공일 때) 기복이 있는 플롯 자체를 세우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극단적인 경우 모든 문제가 주인공의 마법만으로 해결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이론상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작가들은 마법에 대항하는 '검'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끌어왔다. 이 개념과 괴기소설의 틀이 결합한 결과 SF사상 가장 유명한 야만인이 태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영화 등으로 잘 알려진 코난 (Conan the Barbarian)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건즈백의 Amazing Stories 보다 3년 앞선 1923년에 창간된 괴기소설, 판타지 잡지 Weird Tales는 이 장르의 대부라고도 할 수 있는 코난을 창조한 전직 모험소설 작가 로버트 E. 하워드의 코난 시리즈를 비롯, 이 장르의 효시라고 할 만한 오락성 작품들의 온상이었다. 하워드의 코난 시리즈 주인공 코난의 강렬한 육체적 이미지와 더불어 러브크래프트 풍의 괴기취미와 작가의 가상역사 선호가 어우러져

후세의 모방 작가 여럿이 덤벼들어도 결코 재현하기 힘든 SF와 판타지의 강렬한 혼합물 (흔히 무협지와 비교되는 판타지적 모험물과는 다르다)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시작된 '검과 마법' 장르는 비슷한 계열의 판타지 작품들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혈을 거듭해왔다. 이 작품군을 SF의 하위 장르로 보느냐 아니면 판타지의 그것으로 보느냐는 이미 아카데믹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작품의 무대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과 역사적 연속성을 가질 때 (코난이 활약하는 하이보리아 시대 Hyborian Age는 이론상으로는 지구사에서 「잊혀진」 초고대 문명에 속한다) 그것은 관례상 SF 취급을 받아왔고, 실제로 코난 시리즈는 SF문고의 일부로 복간을 거듭해왔다. 「타잔」의 작가 에드가 라이스 버로우즈의 유명한 「화성」 시리즈는 소수의 열렬한 독자들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이 장르가 정말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SF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던 1960년대에 들어와서 였다.

●뉴웨이브에 의한 장르의 재평가와 정형화

추리소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SF의 논리적 일관성이 꼭 과학적 논리에 국한될 필요가 없어진 것은 먼저 언급한 뉴웨이브 운동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영국의 작가 마이클 무어콕(Michael Moorcock)과 그가 주관하던 SF 잡지 New Worlds를 구심점으로 해서 일어난 뉴웨이브는 기술적 과학논리와 우주밖에의 관심이 주류를 이루던 전통적인 SF에의 반발이라는 맥락에서 내우주(內宇宙), 즉 인간 정신의 탐구라는 매력적인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고 적극적으로 젊은 작가들의 발굴에 주력했다. 내용적으로는 극소수의 걸작을 제외, 난해하고 의욕만 앞선 다분히 자기 도취적인 작품을 양산하는 데 그쳤지만, 뉴웨이브파의 작가들은 당시 정통적인 SF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 SF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장르에 주목했다. 특히 무어콕은 고뇌하는 현대인의 신화적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병적인 영웅 '멜니보네의 엘릭'(Elric of Melnibone) 등이 활약하는 방대한 「영원한 영웅」(The Eternal Champion)시리즈 등을 통해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었던 하워드의 야만인에 대한 완벽한 반론을 제시해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뉴웨이브 운동이 자연 소멸한 후에도 이 장르는 판타지의 주력 상품으로서 현재까지 계속 존속해왔고, 판타지의 강세에 힘입어 SF적인 요소와의 결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상이 판타지에 의한 SF의 '오염론'이 나오게 된 기본적 배경이다. 읽을 거리로서의 재미가 문학성 내지는 작품의 가치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자명한 이치가 아직도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는 대중소설로 분류되는 SF의 고뇌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현대 SF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 역사와 지적 자존심에 대한 작가의 깊은 통찰이 깔려 있게 마련이고, 굳이 문학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통속적 그리고 판타지적 측면을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도 수동적인 추리소설과는 정반대의 벡터를 가지는 SF의 '동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SF는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는 일종의 유기체인 것이다.

SF

▶신세대 인터뷰

우리 숨결에 맞는 우리 목소리 가져야

소 준 선/ 본지 기자

지난 8월 「바이러스 임진왜란」이라는 SF추리소설을 출간하여 최근 SF붐이 일고 있는 출판계에 컴퓨터 소설이라는 신조어를 창출하고 있는 작가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미 「아틀란티스 광시곡」(햇빛출판사) 「우먼 Q」(스포츠 서울) 등의 PC 통신을 통한 컴퓨터 소설로 널리 알려진 작가 이성수(26) 씨이다.

현재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발표했던 작품을 책으로 엮어낸 것은 정금애 씨의 「스물아홉 송이의 노란 장미」 임준홍 씨의 「네메시스의 서」를 합해 이번이 다섯

번째 작품인 셈이다.

책으로 출간된 작품 외에도 현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과학소설동호회들로는 PC SERVE, 하이텔, BBS 등이 있는데 이들의 작품은 모두 회원들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스터디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붐을 이루어 번역, 소개되고 있는 과학소설에 맥을 두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세대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적 기능에 충실한 작품을

"국내 창작품의 경우 외국의 작품에 비해 소재면에서, 테크놀로지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독특한 정서를 살릴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내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작품으로 창출해낸다면 결코 그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간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서에 맞는 우리의 것을 써야만 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SF가 방법적인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국의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그러한 경향이 매우 심한데 수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화적인 침략을 고스란히 당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우리에게도 우리 고유의 민족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 그것을 SF화 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매우 많습니다. 단군신화나 김수로왕의 이야기, 해저능 등 무궁무진 하지요."

국민학교 때부터 아이디어 회관에서 출간됐던 아동용 SF작품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SF에 심취해왔다는 이성수 씨는 컴

● ● ●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작품이 있어야

● ● ●

퓨터 통신을 통하여 꾸준하게 습작을 해오다가 대학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창작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확고한 문학관이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 뭉클하게 했다.

"사실 저 역시 일본 만화인 드레곤 볼을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요즘 저희 세대치고 드레곤 볼 한두 권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자꾸만 화가 치밀더군요.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알지도 못하는 일본만화를 보면서 재미있어 할 때마다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왜 우리에게는 우리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은 없을까 하는 서글픔이 밀려들곤 했지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작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

● ● ●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 문예사조가, 장르들이
그 이름 만큼이나
많은 주장과 주의로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 ● ●

었지요."

지금까지 출간된 작품들이 그리고 앞으로 창작할 작품들 또한 소재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찾겠다고, 우리의 것을 강조하는 작가는 단정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걸맞게 작품 역시 뛰어난 상상력과 탄탄한 과학적 지식, 치밀한 구성과 매끄럽고 수려한 문장으로 정통 SF에 충실한 작가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하루에 두 시간씩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충실하게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한다.

SF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묻는 질문에 그는 매우 자신감에 넘치는 목소리로 신념 있게 말한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SF는 미래를 쉽게 조명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작품들을 보더라도 SF작가들이 예견한 미래상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실증된 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요. 또한 과학의 발전이 지닌 사회학적인 효과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학을 크게 현실문학과 비현실문학으로 나눈다면, SF는 현실 가능한 것은 물론 현실 불가능할 것까지 모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여러 문예사조가, 장르들이 그 이름 만큼이나 많은 주장과 주의로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수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현실의 토대를 기반으로 무한한 미래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조명하는 SF에 대한 그의 관심은 요즘 출간되는 각 출판사의 SF작품들을 보며 한편으로 걱정스러워 하기도 했다.

"지난 해 말부터 각 출판사에서 앞다투어 SF를 출간하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해요. 서구의 새로운 문예사조가 유입된 때마다 대부분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곤 했지만 SF의 경우 그 정도가 좀 심하다 싶어요. 요즘 번역 소개되는 SF들은 어찌보면 다른 장르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어요. SF를 좋아하는 독자들끼리도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즘 출간되는 각 출판사의 SF들이 hard SF계열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파운데이션」, 「듄」, 「솔라리스」, 「낙원의 샘」 등이 그 예인데, 물론 고전적으로 기념비적인 명작을 소개한다는 의미는 크지만 아직은 SF에 대한 인식이나 독자층이 확고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딱딱한 작품보다는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SF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중고생들에게 있어선 컴퓨터 문맹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학과 밀접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과학적인 충족을 얻는 것은 해적판 일본 만화나 영화에요. 강남의 일부 지역에선 그것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최고의 생일선물로 떠돌 정도에요. 그렇다고 그들을 욕할 수 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자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소화될 때 우리에게도 SF라는 장르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욕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주지 못한 자각이 선행되어
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 전자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성수씨는 최근 또 다른 장편 「스핑크스의 저주」라는 작품을 탈고하고 '93 EXPO'에 관련한 새로운 작품을 집필중에 있다. SF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만남, 지성과 한겨레와의 만남

아인슈타인의 인생론적 에세이

■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아인슈타인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미래 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이 누구나 알기 쉬운 평이한 문장 속에 보물처럼 담겨진 최고의 인생론적 에세이.

알버트 아인슈타인/박 상훈 옮김/값 3,500원

한겨레 비평총서 12

■ 철학과 물리학의 만남 — 현대과학의 혁명

불확정성 원리로 유명한 하이젠베르그가 자연과학의 통념을 깨뜨리며 새로운 철학적 지평에 도전한다. 물리학자가 새롭게 해부하는 신과 인간, 그리고 존재.

W. 하이젠베르그/최종덕 옮김/값 4,200원

한겨레 비평총서 16

■ 과학철학의 역사

플라톤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진 과학적 해석에 대한 질문과 질문들. 형식논리와 과학사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도 과학철학을 이해할 수 있게 꾸며진 역작.

존 로제/최종덕·정병훈 옮김/값 4,800원

한겨레 비평총서 19

■ 방법에의 도전 — 새로운 과학관과 인식론적 아나키즘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과학의 합리성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과학의 방법, 방법론적 규칙과 기준을 통렬하게 비판한 현대 과학철학의 압권.

폴 페이어아벤트/정병훈 옮김/값 4,800원

한겨레 TEL : 323-5871~5
FAX : 323-5876

과학소설과 과학적 상상력

김 동 광/ 과학세대 대표

어린 시절에 신비한 과학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한두 편 정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국민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집에 있는 멀쩡한 시계를 분해하여 망가뜨리거나 라디오를 뜯어보고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만들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남녀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한차례 홍역 비슷하게 이런 경험을 치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경험을 살려 이과 쪽으로 진학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먼 기억으로 묻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억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까? 심리학자라면 여러 가지 그럴 듯한 이야기를 늘어놓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줍잖은 설명을 붙이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못살게 굴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늘은 왜 파래?" "구름은 어디서 왔어?" 어떤 철학자는 '한 명의 바보를 일곱의 현인이 당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실 아이들이나 바보나 천진하기는 마찬가지니까.

아이들은 처음 자아가 눈을 뜨면서 주위 사물들을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말하자면 나름대로 작은 사고(思考) 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사물의 움직임과 법칙은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학 이야기를 다룬 소설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 된다. 말하자면 궁금해하고 있던 문제를 훨씬 확장시켜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다.

요즈음 과학소설, 즉 사이언스 픽션(Science Fiction)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소설이 과학소설인가' 라는 물음도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추리소설 비슷한 읽을 거리에 과학 이야기를 조금

섞은 것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현대 문학이 발전해나가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과학소설이 소개되고 있는 수준에서는 사실 어느 쪽도 틀렸다고 비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또한 '재미 때문에 글을 읽는다' 는 말은 과학소설뿐 아니라 모든 문학에서 통용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한 창조적 상상력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소설이 가지는 특징이나 고유한 영역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굳이 과학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일 이유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학소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 매력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나는 그것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찾고 싶다. 그러니까 주위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 캐묻고 싶고 그 이치를 알고 싶은 호기심,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싶은 아주 단순한 욕망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과학소설이 아이들이나 좋아하는 것이란 말이냐'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앞서 예로 들었던 바보와 현인 이야기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린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의 폭, 스펙트럼에 비한다면 어른들의 세계에서 오가는 문제는 오히려 단순하기 그지없다. 매일같이 신문을 장식하는 커다란 사건들의 동기를 따져보면 거의 몇 가지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돈, 권력, 섹스…….

과학소설을 단순한 과학이야기나 다른 소설과 구분해주는 것은 과학적 상상력이 아닌가 한다. 과학적 상상력이란 엄밀한 과학적 사실에 토대를 두고 그 위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뻗어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황당무계한 우주 서부극이나 우주 러브스토리가 아니어야 한다. 사실 건즈백에서 시작해서 아서 AC. 클라크, 아이작 아시모프를 거쳐 현대의 하드 SF로 이어지는 맥은 나름대로 이러한 줄기를 지켜왔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정통 과학소설의 맥을 이어온 작가들 중에는 뛰어난 과학자, 문학인들이 허다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정확한 과학적 토대, 뛰어난 상상력으로 짜여진 과학소설은 현실이라는 비좁은 울타리에서 탁트인 시공으로 보내준다.

정확한 과학적 토대, 치밀한 구성, 뛰어난 상상력으로 탄탄하게 짜여진 과학소설은 읽는 이들을 현실이라는 비좁은 울타리에서 탁트인 시공 속으로 보내준다. 그것만으로도 소설로서의 한 몫은 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다. 잘된 과학소설은 독자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있을 수 있는 미래에서 벌어지는 있을 수 있는 일' 들을 겪는 사이에 우리의 현실이 보다 풍부해지고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소설 속에서 자신의 여러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녹슬었던 해묵은 의문들을 한층 더 세련되고 발전된 의문으로 돌려받게 된다. SF

『SF 매거진』 신인 작품 모집

(주) 나경문화에서는 『SF 매거진』창간과 함께 한국 SF문학의 발전 육성을 위하여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인 작가들의 의욕에 찬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모집부문 및 분량**

- 소설
  - 단편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중편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희곡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평론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작품마감 : 1993년 6월 30일
- 수상작 발표 : SF매거진 93년 가을호

2. **심사방법 및 대우**

- 응모작품은 직접 또는 우송을 통하여 수시 접수함.
- 심사위원은 기성문인으로 본사에서 위탁함.
- 심사위원은 당선작 발표와 함께 밝힘.
- 당선 작품은 본지에 발표하여 본지를 통한 작품활동을 적극 지원함.

3. **보내실 곳**:서울 마포구 합정동 360-1 『SF 매거진』 편집실 323-5874~5

4. **기타**

- 응모원고에 대한 반환책임을 지지 않음.
- 원고 앞뒤에 주소를 분명하게 밝힐 것.

세계 SF 대회

World Science Fiction Convention

강수백/ 본지 해외 리포터

휴고상(Hugo Awards)은 미국 SF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세계 최초의 SF 전문지 어메이징 스토리즈(Amazing Stories)의 창시자이며 장르 SF의 아버지이기도 한 휴고 건즈백의 이름을 따서 1953년에 제정된 휴고상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SF상이라는 위치를 지켜왔다. 이와 동등할 정도의 권위가 있는 상으로는 네뷸러상(Nebula Awards)을 들 수 있다. 휴고상이 매년 열리는 세계 SF 대회(World Science Fiction Convention)에서의 팬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일종의 인기상인데 반해 네뷸러상은 미국 SF 및 판타지 작가협회(SFFWA)의 구성원인 작가, 편집자 및 기타 SF 관계자들의 3단계 투표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프로들의 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휴고상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을 주로 뽑은 데 반해 네뷸러상은 상대적으로 문학적, 기법적 측면을 중시한 수준작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현재의 상업적 풍토에서는 상업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작품이 두 가지 상 모두를 석권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기타의 주요한 SF상으로는 82년에 사망한 불세출의 거장 P.K. 딕을 기념하기 위해 신설된 P.K. 딕 기념상(The Philip K. Dick Memorial Award) 등이 있다. 딕은 생전에는 그다지 평가받지 못했지만 사후에 사이버펑크 운동의 정신적 시조로서 광범위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가이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이들 주요 SF상들의 수상작이 발표되고 있다.

우선 금년들어 결정된 1991년도 (여기서 대상 작품의 발표 연도를 쓰고 있다) 네뷸러상의 수상작들을 보면.

〈장편 부문〉'Stations of the Tide'
by Michael SwansWick
〈노벨라 부문〉'Beggars in Spain'
by Nancy Kress
〈노벨레트 부문〉'Guide Dog'
by Mike Conner
〈단편 부문〉'Ma Qui'
by Alan Brennert

최신 유행이라고 할 만한 사이버펑크의 인기를 반영해서인지 소장 작가 스웬스윅

의 원미래 사이버펑크 판타지 (출판사의 광고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가 대상을 차지했다. 남미의 미술적 리얼리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를 듣는 그는 환상적 단편 'The Edge of the World'fh 19-90년 휴고상 단편 부문의 5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다. 이번의 네뷸러상 수상으로 명실공히 일류 작가의 대열에 낀 느낌이다. '스페인의 거지'라고 번역되는 넨시 크레스의 노벨라(Novella:1만 단어에서 4만단어 사이에 해당하는 장중편)은 1992년도의 휴고상의 동부문을 수상, 더블 크라운의 영예에 빛났다. 근미래의 가족 관계를 묘사한 이 작품은 Issac Asimov's Science Fiction Magazine지 91년 4월호에 게재되어 팬과 평론가들의 절찬을 받은 작품이다. 마이크 코너의 중편 '맹도견'은 노화가의 맹도견 역할을 떠맡은 소년의 운명을 그린 일종의 우화소설이고, 단편 부문의 수상작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유령담이다.

금년 9월 들어 발표된 (휴고상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노동절인 9월의 제1 월요일에 수여된다) 휴고상 수상작들을 장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논픽션 등 기타 수상 부문은 지면 관계상 제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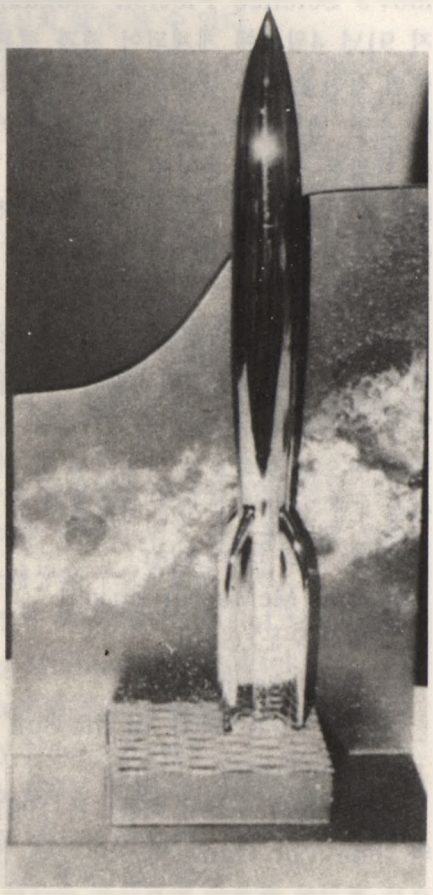
〈장편 부문〉'Barrayar'
by Lois McMaster Bujold
〈노벨라 부문〉'Gold'
by Issac Asimov
〈단편 부문〉'A Walk in the Sun'
by Geoffrey A. Landis

장편 부문의 수상자 뷔졸드는 1991년의 'The Vor Game'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휴고상 최우수 장편상을 수상한 인기 작가이다. 그녀가 지금까지 내놓은 8편의 장편은 1988년도의 네뷸러상 장편 부문을 수상한 'Falling Free'를 제외하고는 전부 마일즈 보르코시간(Miles Vorkosigan)이라는 독특한 주인공(원서의 표지에서 난장이 같아 보이는 인물이다)과 그 주변 인물들이 활약하는 통쾌하고도 지적인 스페이스 오페라 시리즈의 일부이다. 군대 경험이 없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군인이 경탄할 정도로 폭넓은 군사 지식, 테크놀로지 SF 지향의 Analog 지의 간판 작가가 될 정도로 확실한 과학적 배경, 그리고 '피와 살'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매력적인 인물 설정 등이 그녀를 현재 미국 SF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들 중 하나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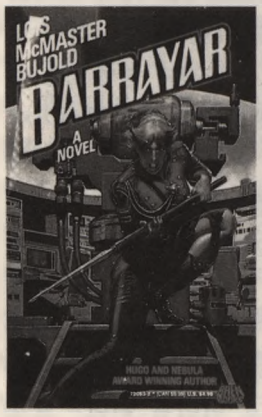
마일즈가 활약하는 우주는 인류가 점프 항법으로 갈 수 있는 항성계로 식민한 원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의 모성인 행성 바라야(Barrayar)는 몇 십년에 걸친 세타간단(Cetagandan)제국의 압정과 지정학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다른 항성계로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는 중이다. 무자비한 침략자들과의 오랜 투쟁에서 비롯된 반동인지는 몰라도 바라야는 황제와 보르(Vor)라는 사무라이적 귀족 계급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군국사회를 이루고 있다. 마일즈는 황제와도 혈연 관계에 있는 대귀족 보르코시간 가의 독자로 태어났지만 아직 태아(胎兒)였을 적에 모친이 받은 신경 가스 공격의 영향으로 영속적인 기질적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가야 했다. 난장이 같은 외모와는 달리 천재적 두뇌와 섬세한 마음씨를 가진 그가 스파르타적인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받기 위해 우주로 뛰쳐나가 고투한다는 제2 장편 'The Warrior's Apprentice'의 내용은 미국인의 취향에 맞는 하인라인 풍의 성장 소설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공을 세우고 사촌인 황제의 배려로 사관 학교를 졸업, 비밀 정보부에 배속된 후의 모험을 그린 제 7 장편 'The Vor Game'

▲ 세계SF대회와 휴고상 수상자

▲ Lois Mcmaster



▲ 휴고상 트로피



▲ Barrayar

▲ Vor Game

은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스페이스 오페라 중 베스트 5에 들어간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금년도 휴고상 수상작인 제 8 장편 'Barrayar'는 바라야의 침략에 대항해서 에스코바 전쟁에 참전한 베타 식민성 출신의 그의 어머니 코델리아가 어떻게 해서 적군이었던 그의 아버지 아랄 보르코시간과 만나 사랑에 빠졌는지를 묘사한 제1 장편 'Sharks of Honor'의 속편이라고 할 만한 작품으로서, 결혼 직후 그녀가 바라야의 권력 투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전말을 묘사한 전쟁 SF의 걸작이다.

위와 같은 피상적이고 산만한 줄거리의 묘사만으로는 경박하고 문학적으로도 별 가치가 없는 전형적인 싸구려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인상을 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작품은 진정한 대량생산품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위트에 넘친 대화와 지적인 오락이 혼연일체가 된 최고급 SF이다. 우선 재미라는 점에서 동일 계통의 작품을 능가하고 있고, 속편이 나올수록 작품 세계에 깊이가 생기는 시리즈물의 강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작가의 보기 드문 역량을 증명해주고 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번역해서 국내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필자의 솔직한 바람이다.

아시모프의 유작 'Gold'는 Astounding Science Fiction(ASF)지 1941년 9월 호에 커버 스토리로 게재되었던 아시모프의 전설적 명작 'Nightfall'을 기념하기 위해 그 직계 잡지라고 할 수 있는 Analog 지의 켐벨 2세에 대한 아시모프의 헌사가 SF팬들의 심금을 울린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예상하는 듯한 담담한 어조로 자신을 키워준 은사이자 최고의 편집자였던 켐벨 2세에게 깊은 감사를 올리고

휴고 건즈백

있다. 단편 부문 수상작인 랜디스의 'A Walk in the Sun'도 Asimov's Science Fiction지의 1991년 10월 호에 게재된 것을 보면 이 두 잡지가 미국 SF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필라델피아 SF협회 주최로 처음부터 페이퍼백으로 출판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P. K. 딕 기념상은 기념상적인 성격상 SF와 판타지가 혼합된 것 같은(사이언스 판타지는 아님) 기묘한 작품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신뢰성이 높은 심사 기준을 갖춘 프로페셔널한 상이기 때문에 수상 후 작가들의 주가가 치솟는 것이 보통이다. 금년도 수상 작가인 이안 맥도날드의 장편 'King of Morning Queen of Day'는 켈트 신화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작품으로 유망한 신인들을 발굴하는 데 정평이 있는 antam Spectra SF 문고에서 출간된 작품이다. SF

시간여행의 이론과 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of Time Travel

래리 니븐 저/ 강수백 옮김

옛날 옛적에 어떤 사내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처음 선택한 두 가지 소원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 둘 중에 어느것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그는 파멸이었다.

그는 절망한 나머지 이렇게 외쳤다.

"친절한 요정 따윈 처음부터 없었던 게 나았어!"

그 말과 함께 과거는 원상으로 복구되고 앞의 두 가지 소원은 무효가 되었다.

최초의 시간여행 얘기는 동화였다. 윗글은 그 내용을 극단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시간여행에 대한 주제는 문학 속에 깊게 뿌리박고 있다. L. 프랭크 보움은 그것을 「오즈의 멋진 나라」에서 사용했다. 케이벨은 「은빛 말」에서 그것을 차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인공은 실제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 없이 직접 과거를 개변(改變)하고 있다.

근대 SF의 창시자 중 한 명인 H. G. 웰즈는 시간여행 기계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웰즈의 정신적 후계자들이 시간여행을 판타지가 아닌 SF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웰즈가 묘사한 것은 미래로 가는 여행뿐이었다. 그는 과거로의 여행에서 이야기되는 「조부(祖父)의 패러독스」 및 기타 부차적 패러독스 일체를 간과한 것이다.

그의 타임머신은 단순한 탈것(vehicle)에 불과했고, 중력 차단 물질 카보라이트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획기적인 발명도 아니었다. 양쪽 다 철학적 매개물(vehicle)에 지나지 않았다. 웰즈는 설교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또한 웰즈는 소원 성취(wish fulfillment)라는 시간여행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간과했다. 어린애가 "하나님, 제발 그 일이 안 일어나게 해 주세요" 하고 빌 때 그는 본질적으로 시간여행을 발명하고 있는 것이다. (더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 • •

당신도, 타임머신도,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패러독스이다! 이런 식의 과거로의 간섭, 특히 자기 부정적인 간섭을 '조부의 패러독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 • •

수 있을 때가 오면 아마 그는 이 생각을 포기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자.) 시간여행 최대의 목적은 과거를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최대의 위험은 '여행자'가 과거를 바꿔버릴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 과거로의 여행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인물은 웰즈의 기계와 동화를 결합해서 현재의 시간여행을 만들어낸 것이다.

타임머신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웰즈의 1인용 기계는 자전거 안장 만큼이나 탁 트여 있었고, 항행중에는 살같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의 장려(壯麗)한 전망을 즐길 수도 있었다. 폴 앤더슨의 표준형 타임 패트롤 기(機)는 웰즈의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데다가 하늘을 날 수도 있다.

더 제한된 기능을 가진 기계의 예로는 미래로만 갈 수 있거나 과거를 향해 소립자(素粒子)만을 보내는 타입이 있고, 이것에 비하면 거의 무형에 가까운 것, 이를테면 사고(思考)라든지, 꿈, 정서적 상태만을 투사(投射)하는 기계도 있다. 다른 예로는 100만 년, 또는 6000만 년 단위의 점프만이 가능한 것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창조한 타임머신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작가는 소설 내용이 너무 황당무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조부의 패러독스'란 시간여행에 관한 모든 토론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나이 여든에 타임머신을 발명한다. 당신은 그를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훔친 후 60년 뒤의 과거로 돌아가 그를 살해한다. 누가 당신에게 혐의를 품겠는가? 그렇지만 당신은 그가 당신의 할머니와 만나기 전에 그를 살해했다. 그러므로 당신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된다. 할어버지가 타임머신을 만들 기회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이 그를 죽였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당신의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는 당신을 낳을지도 모른다. 훗날에는 타임머신이 발명될 것이다.

당신도, 타임머신도,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패러독스이다! 이런 식의 과거로의 간섭, 특히 자기 부정적인 간섭을 '조부의 패러독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거로의 여행은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 중 몇 가지에 위배된다.

(1) 30세기에서 20세기로 이동한 기계는 무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 만약 그 기계가 어떤 형태로든 동력원을 가지고 있다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도 어긋난다. 물론 위의 두 법칙이 동일한 것이라고 간주되는 지금 이 구분은 무의미하다.

천 년 후에는 어차피 같은 양의 질량이 소멸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도 해답이 되

지 못한다. 십세기 동안 여분의 타임머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부의 패러독스'가 여기 끼어들면 사태는 더 복잡해진다. 수세기 전의 타임머신이 박물관 안의 유리와 강철로 된 케이스에 전시되어 있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이 유리와 강철은 원래 이 타임머신의 재료로 쓰일 예정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실제로 그것을 제조했다면 말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한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타임머신을 사용해서 누군가가 그 과거에 간섭했기 때문이다.

(2) 만약 시간 속으로 물질을 보낼 수 없다면 아마 신호, 즉 정보는 보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신호는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정보가 C, 즉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빨리 전달될 수는 없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신호는 무한대의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3) 물리적인 시간여행은 어떤 운동의 법칙에도 명백하게 위배된다. 운동은 언제나 시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운동량의 보존, 운동 에너지에 관한 기술(記述), 중력의 법칙에까지도 적용된다. 누구의 중력의 법칙이든 간에 마찬가지이다.

(4) 그럼 미래로부터 정보를 끌어내면 어떨까? 만약 예지(豫知) 현상이나 예언이 잠재의식에 의한 극히 정확한 억측에 불과하다면 어떤 법칙에도 저촉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예지가 실제로 시간에 관련되어 있다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상기하라. 관찰 대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만약 미래를 관찰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는 일종의 에너지 교환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목받고 있는 미래는 결정된 미래이며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미래의 정보가 과거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상대성이론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했다. 만약 하나의 미래로부터 끌어낸 정보가 또 다른 미래를 창조하는 데 쓰인다면 '조부의 패러독스'를 야기하게 된다. 미래의 정보가 미래를 개변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주식 투자에 타임머신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5) 미래로의 여행은 인공 동면이나 우수한 내구성을 가진 타임 캡슐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과거로 여행하지 않고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별 시시한 일을 가지고 꼬치꼬치 따진다는 생각이 드는가?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성이론과 보존의 법칙을 절대로 깨뜨릴 수도 없고, 예외를 인정해서도 안 되는 신성한 존재로 간주해야 하는가? 당치도 않은 말이다.

그러나 시간여행은 보존의 법칙보다는 더 기본적인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가 인정하는 어떠한 법칙도 인과율(因果律)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간여행은 인과 관계를 역전시킨다. '조부의 패러독스'가 작용하고 있을 때, 원인보다도 먼저 생겨난 결과는 원인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을지도 모른다. 자기 모순이 없는 결과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시간여행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때때로 영어의 구조가 전혀 시간여행에 적

• • •

우리의 사고는 언어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언어도 시간여행을 표현할 만한 시제를 완비하고 있지는 않다. 이 지구상의 어떠한 언어도.

• • •

합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시제(時制)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엑세드린 (두통약) 두통수 ―3.14159라고 부른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자신의 소설 "수중에 든 새"에서 인용해보겠다. 등장 인물들은 과거에 괴멸적인 손상을 입힌 후 어떻게 그것을 원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을지 의논하고 있는 중이다.

"아마 당신을 우회해서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스뱃쯔는 잠시 주저하다가 곧 다그치듯이 말했다.

"지이라, 이러면 어떨까? 우선 나를 지이라가 도착하기 한 시간 전으로 보내는 거야. 그때 포드의 차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을 거야. 내가 그걸 복제할 거고 그 복제를 다시 복제해서 , 그 역(逆)복제와 오리지널을 가지고 당신 앞을 빠져나가 대형 신축식 케이지로 들어가는 거야. 당신은 오리지날 대신 복제를 소멸시키게 되지. 나는 당신이 떠난 후에 다시 나타나 포드한테는 오리지날 자동차를 남겨놓고 역복제를 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

"아주 좋은 계획 같아요. 그럼 다시 가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서……."

이것은 겉보기 만큼은 복잡하지 않다. 다만 언어로는 시간여행을 표현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 언어를 만든 우리 조상들에게는 시간여행을 다룰 만한 지력(知力)이 없었다는 결론이 된다. 물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사고는 언어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어떠한 언어도 시간여행을 표현할 만한 시제를 완비하고 있지는 않다. 이 지구상의 어떤 언어도. 아직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언어도 레이저, 텔레비전, 또는 우주 비행 등이 발명되기 이전부터 레이저, 텔레비전, 우주 비행 등을 표현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말이 현실을 뒤따른 것이다.

만약 시간여행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를 개발하게 될까? 그 경우 영어에서 필요한 시제는 기본 과거형, 개변 과거형, 가능 과거형(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개변 미래형, 삭제 미래형(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진 미래를 표현), 귀환 기지 현재형, 현재 현재형, 폐진 현재형(시간 항행중의 기계 속의 시간), 과거 미래형 ("반 시간 후에 진주만 공격 때 만나자"), 미래 과거형 ("지금으로부터 천만 년 후에 주워 온 기념품이야."), 기타 등등일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도 적어도 두 종류, 즉 순차적(順次的) 개인 시간과 보편적 시간이 있고, 각각의 흐름마다 한 세트씩 시제가 필요하다.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를 표현하는 대명사도 필요해질 것이다. 언젠가는 이 세 명의 '나' 모두가 같

은 테이블에 앉아 맞대면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당분간 (다행히 이 단어가 아직도 뭔가를 의미한다면 말이지만) 시간여행은 몽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기에는 물리법칙 및 논리에 상반되는 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 몽상 형식은 논리의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를 제공해준다.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기 모순이 없는 일련의 법칙을 창조해보려는 유혹은 강렬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그것을 시도했던가! 그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가능성들을 검토해보자.

시간여행의 변호 # I: 다음과 같이 가정 해보자.

(1) 미래로의 시간여행만 가능하다.

(2) 우주는 윤회(輪廻)하며, 같은 주기를 영원히 되풀이한다.

시간여행은 가능해진다! 당신은 우주가 붕괴하는 '대수축(Big Collapse)'의 순간을 지나, 그것이 다시 폭발하는 '대폭발(Big Bang)'을 통과해서 미래로 가는 것이다. 즉, 가고 싶은 과거의 시점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1920년에 히틀러를 죽인다든지, 애포매톡스(리 장군이 북군에게 항복한 곳)에서 양키들 머리 위에 수소폭탄을 떨어뜨린다든지 해서 당신의 몽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 '조부의 패러독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미래가 생길 뿐이다.

물론 다음 주기의 당신은 시간여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행위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 주기에서는 양키들은 남북 전쟁에 승리할 것이고, 히틀러는 독일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되풀이되는 주기의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을 의미할 뿐이다. 여기서도 패러독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타임머신 대신 최대한도의 내구성을 가진 타임 캡슐만 있으면 여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론: 세 가지 있다.

첫째, 우주 윤회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둘째, 우주의 기나긴 일생 중 당신이 목표로 하는 시대를 발견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류 역사의 어떤 부분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행운아에 속한다.

셋째로 빅뱅의 반응 과정에서 당신의 타임 캡슐이 제외된다는 사실이 물질의 최종적 배열에 영향을 끼쳐서 전혀 다른 역사를 창출해낼지도 모른다.

시간여행의 변호 # II:다원(多元) 시간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무수히 많은 현실,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고 하자. 어떠한 생물이 내리는 어떠한 결정도 각각 두 가지 결과를, 또는(두 개 이상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무수히 많은 온갖 종류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각각의 결과에 기인한 제각기 다른 복수의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물질의 보존 법칙은 복수의 우주 속의 한 우주 내부에서만 성립된다. 그러므로 타임머신이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이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현란(絢爛)한 이론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로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가 더 천천히 진행되는 우주, 이를테면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지금 막 전투를 벌이려고 한다거나,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기 직전의 우주를 찾아낼 수는 있는 것이

• • •

'만약 이랬더라면 (What—if)'
이론의 과정에서 보자면 시간횡단 여행을 보존의 법칙
'조부 패러독스'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 • •

다. 또는 직접 과거를 개변하는 대신 당신이 원하는 과거가 이미 일어난 우주를 발견할 수도 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우주는 틀림없이 존재한다. (물론 찾을 때까지 기나긴 세월을 허비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 대용(代用) 시간여행은 시간을 횡단하는 여행, 즉 다원 시간 사이를 이동하는 여행인 것이다.

이 '만약 이랬더라면(what-if)' 이론은 많은 작가들을 매료했다. O. 헨리조차도 적어도 단편 한 편을 남겼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시간 횡단 여행은 보존의 법칙, '조부 패러독스,' 기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시간 횡단 여행 소설을 싫어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우선 쓰기가 너무 쉽다. 대체(代替) 역사 소설에 우수한 두뇌 같은 것은 필요없다. 우수한 역사 교과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둘째로 당신은 선택에 고민한 적이 있는가?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했던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모든 선택이 다른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당신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어차피 모든 선택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런 하잘것 없는 일에 고민하다니. 게다가 당신 중 한 명은 아직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라.

셋째로 확률의 법칙은 다원 시간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주사위의 눈이 여섯 개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안 그런가? 따라서 두 개의 주사위를 차례로 던질 경우, 두 눈의 합계가 7이 되는, 여섯 가지 조합을 포함한 36가지의 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조합이 하나 생길 때마다 우주가 하나씩 생긴다고 보자. 그러므로 36개의 우주 중 어느 하나에 당신이 들어갈 확률은 36분의 1이 된다. 안 그런가?

그렇다면 주사위가 조작된 주사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기서 각 조합 중 하나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1이다. 합계가 7이 될 확률은 6분의 1인 것이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엉터리 주사위를 썼는지 안 썼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시간여행의 변호 # III: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킨다는 아이디어는 겉보기 만큼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의 1969년 10월 호에 게재된 올리버 E. 오버세스의 논문 '시간 반전의 실험'에서 인용해보겠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 선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신중하게 조절된 진과 버모스의 결합이 우리 술잔 속에서 갑자기 분해되어 미지

근한 액체의 두 층(層)과 얼음 덩어리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물리과정(아마 생물학적 과정도 포함해서)에 대한 우리 이해의 기초를 이루는 제법칙들이 시간류(流)의 어느 특정 방향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더라도, 마티니가 분해되더라도, 그 법칙들은 예전과 다름없는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우주는 시간이 반전된 상태에서도 정말 불변(不變)일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오버세스와 그의 공동 연구자인 로스는 소립자 레벨에서 시간 반전하의 불변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례를 찾는 연구를 2년 가깝게 계속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뚜렷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극히 간접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람다 입자가 양자와 파이 중간자로 붕괴되는 과정을 관찰했다. 즉, 양자 스핀의 베타 컴퍼넌트의 수치가 0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그 현상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비슷한 실험이 수없이 되풀이 되었지만 그 어느것도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소립자 레벨에서는 시간이 앞으로 흐르는지 아니면 뒤로 흐르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강한 의지를 가진 인간이 정신력만으로 시간을 역전시킨 후 작년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과거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현대의 이론에 의하여 시간의 반전은 육체의 모든 소립자의 스핀과 전하(電荷)를 동시에 반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하의 반전은 전체 질량을 반물질로 변환한다. 쾅!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우 말고도 질량/에너지 보존의 문제가 있다. 인간의 몸이 시간 속에서 이동하는 방향을 역전시킨다면 어떤 물리학자의 눈에도 두 인간이 동시에 사라진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방법으로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인간의 관점을 역전시키는 방법, 즉 정신을 과거로 보내는 방법이 더 성공적일지도 모른다. 만약 과거와 미래의 차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면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여행자는 자신의 기억이 tabula rasa, 즉 백지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목표 시점에 도달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앤트로피가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주가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려는 경향이고, 시간을 '앞'으로 이동할 때의 가장 현저한 효과이다. 앤트로피는 근소한 반응만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테면 행성의 운동이라든지 람다 입자의 붕괴시에는 그렇게 현저하지 않다. 그러나 수소 폭탄의 버섯구름을 금속 용기로 다시 집어넣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앤트로피이다.

노인병학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앤트로피에 대해 알고 있다.

그다지 야심적이 아닌 일을 시도해보자.

이미 시간을 역행한 소립자군(群)을 우리가 찾아냈다고 가정하자. (이것이 바로 로스와 오버셋, 또 그들의 동업자들이 실험을 통해 발견하려던 시간 반전의 증거이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정반대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우리는 그 위에 통신문을 쓴다. 간단한 통신문이다.

"6번의 블루 벤, 4/4/72."

• • •

숙명론자에게 미래란
전통적인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양쪽 모두 고정된, 변경 불가능한 존재인 것이다.

• • •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처음에 그 통신문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지우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6번의 블루벤, 4/4/72"라고 쓰인 통신문을 발견한다. 우리는 거기에 돈을 걸지만 그 경주 말은 진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우고 다른 통신문을 쓸 것인가? 아니면 아예 지우기를 거부할 것인가?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기지(旣知)의 물리 법칙에 전혀 위배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는.

한편 로스와 오버세스, 그리고 기타 연구자들은 시간의 대칭성에는 예외가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단 하나라도 그것을 발견한다면 모든 것은 끝장이다.

시간여행의 변호 # IV: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주장이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숙명론 또는 결정론이라고 부른다. 숙명론자는 모든 것은 시간의 종말까지 이미 예정된 미래의 일부라는 것이다.

숙명론자에게 미래란 전통적인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양쪽 다 고정된, 변경 불가능한 존재인 것이다. 타임머신의 등장도 이 상황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간여행자가 과거를 개변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는 이미 시도되었던 것이고, 과거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숙명론은 운명의 함정에 빠진 시간여행자가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자신이 회피하려고 하는 재앙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내용을 담은 수많은 소설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 표준적인 플롯은 「오이디푸스 왕」을 방불케 하며, 잘 쓴 경우에는 '운명'에 대항해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결국 패하는 인간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숙명론이 어떻게 '조부의 패러독스'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기 바란다. 자신의 조부를 죽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행위를 강행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총이 발사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숙명론은 시간여행의 소원 성취라는 측면을 전면 부정한다. '조부의 패러독스'를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조부의 패러독스'가 바로 소원 성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시간여행을 충분히 즐기고 싶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이다. 상대성이론과 보존의 법칙을 포기하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개변, 원인과 결과의 반전, 존재하지 않았던 원인에 의한 결과 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숙명론적 시간여행도 이러한 인과율의 고리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단순하고 결탁된 곳이 없는 폐쇄된 고리이다. 여기서 타임머신의 출현은 언제나 다

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자유 의지'적인 시간여행에서는 현실도, 과거도, 미래도 각각 하나씩밖에는 없지만 그것들을 전부 타임머신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한다. 원인과 결과는 과거를 향해 일어날 수도 있다. 때로는 그 인과 관계가 파기되고 시간류에서 소멸하는 수도 있다. 여섯 살 된 조부를 살해하는 시간여행자는 바로 자신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것이 되지만, 그와 타임머신은 남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 이전의 과거를 개변할 때까지는.

결정론적 시간여행과 자유 의지적 시간여행 방식의 중간에는 일종의 타협적 입장이 존재한다.

시간여행에는 일종의 관성 내지는 이력(履歷) 효과, 또는 특수한 보존의 법칙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과거는 변화에 저항한다. 파손된 시간은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려고 한다. 샤를마뉴를 죽이면 누군가가 그의 자리를 차지한 후 그를 대신해 제국을 건설하고, 그의 처들과 결혼하며, 자기 자신과 닮은 자식들을 낳을 것이다. 변화는 작고 국지적인 것이 된다.

프릿츠 라이버는 그의 「개변 전쟁(C-hange War)」시리즈에서 「사상(事象) 보존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를 바꿔보라」에서 주인공은 어떤 사내의 머리를 총알이 박살내는 일을 막기 위해 최대한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것은 그 자신의 머리였던 것이다. 결국 그는 성공하지만……. 총알 크기의 운석이 자신의 이마를 관통하는 것을 목격한다.

확률은 역사를 보호하기 위해 변화한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가장 안전한 형태의 시간여행이다. 그러나 확률이 변했다는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기관단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하려고 해보라. 총은 틀림없이 고장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신의 여섯 살된 조부를 살해하는 데 성공했다면 당신이 그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사상 보존의 법칙이 누군가가 그를 대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다른 시간대에서 온 당신이라는 여분의 인물을 제외하면, 이제 사상의 보존 법칙은 새로운 역할을 맡은 당신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게다가 당신은 그 노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시간여행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다만, 과거를 바꾸는 것만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증명 가능하다.

조건: 문제의 우주에서는 시간여행도 과거의 개변도 허용된다.

결론:그 우주에서 타임머신은 발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 우주에서 타임머신이 발명되었다면 누군가가 그 우주의 과거를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발명 이후로 너무도 많은 사상(事象)에 간섭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역사적 관성도, 사상의 보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개개의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만든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로의 여행이 실행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주사위가 던져지는 것이다. 아무리 하잘 것 없는 변화도 모든 역사 교과서의 개정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연과 끝없는 변화를 통해 우리들은 어떤 종족에 의해서도 타임머신이 발명된 적이 없는 우주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우주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것이

● ● ●

시간을 여행할 수만 있다면 이루지 못할 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모든 보물은 기관단총을 가진 한 사내의 것이 될 지도 모른다.

● ● ●

다.

한편, 역사에는 관성이 있고, 과거는 변화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경향을 보이며, 사상의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확률이 변화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과거를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역사적 변화란 무엇인가? 그렇다. 타임머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니븐의 법칙: 문제의 우주에서 시간여행도 과거의 개변도 허용된다면, 그 우주에서 타임머신은 발명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렇게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모든 SF작가들이 그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새로운 타입의 시간여행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일종의 경쟁인 것이다. 한 분야가 완전히 개발되었다고 믿는 작가는 아무도 없다. 그런 분야는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다. 발견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시간여행을 초광속 우주선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탈 것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에 의하면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드 SF작가들조차도 끊임없이 초광속 우주선을 작품에 등장시키고 있다. 만약 등장 인물 중 한 명이 베일 성운으로 가야 하고, 또 그가 돌아왔을 때 걸프렌드가 아직 소녀로 남아 있을 것을 소설이 요구한다면 그는 빛보다 더 빨리 여행해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공룡과 싸우게 한다든지 현대인을 아서왕으로 기사들과 대결하게 하려면 시간여행이 필요한 것이다.

시간여행을 빼놓고서는 작자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여행은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복잡한 논리적 오락을 제공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납득했으리라 믿는다.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생겨나는 우주, 주인공과 적수가 서로가 태어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우주, 건축가를 역사에서 말살할 수만 있다면 눈앞의 벽돌담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우주 등을 무대로 한 소설을 구상하면서 두뇌를 충분히 단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을 여행할 수만 있다면 이루지 못할 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모든 보물은 기관단총을 가진 한 사내의 것이 될 지도 모른다. 트렁크 하나에 가득 찬 현대의 화장품을 선물한다면 클레오파트라나 트로이의 헬렌과도 동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 된다.

스모그가 싫다고? 그럼 헨리 포드를 저지하는 일도. 아니다. 현대에도 불안은 얼마든지 있다. 신문을 읽어보고, 적어도 당신의 과거는 안전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SF

『SF매거진』 일러스트 공모

(주)나경문화에서는 『SF매거진』창간 기념으로
제 1회 나경 SF일러스트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국내 SF문학의 활성화 및 SF일러스트의 발전을 위하여
참신하고 역량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요령

1. 주제 : (주)나경문화에서 출간되는 SF 작품을 읽고
작품내용 중 감명 깊었던 상황이나
주인공 및 등장인물에 대한 특징을 작품화한다
2. 작품분량 및 규격 : 주제 및 크기는 자유이며 창작품에 한한다
3. 작품마감 : 1993년 6월 30일
4. 수상작 발표 : SF 매거진 93년 가을호
5. 상금
최우수상 : 100만원(1명)
우수상 : 50만원(2명)
특별상 : 10만원(3명)
6. 보내실 곳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0-1
SF 매거진 편집부
7. 기타 : 작품은 직접 또는 우송을 통하여 접수 가능하며
응모시 반드시 200자 원고지 3매 내외의
작품해설을 첨부해야 합니다.

SF 갤러리

외계와의 만남

새로운 문명의 전파과정

새로운 인식 체계

새로운 문명과의 만남

그리고 충격…… 흡수……

그 과정에서 저질문화의

우선 수용 가능성

하형욱/ 애니메이터

서울 산업대학교 응용학과 재학중

C•L•O•S•E•U•P

열린 우주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소 준 선/ 본지기자

나날이 새롭게 변모해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각 출판사들은 앞다투어 SF소설을 출간하고 있다. 그런데 출간되는 거의 모든 작품이 외국작가들에 의한 작품의 번역 소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것 찾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에 부응 하여 한국 SF계의 원로이신 서광운 선생님을 찾아 국내 SF계의 흐름을 알아보았다.

어린시절부터 과학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80년대 초반 칼 세이건 교수의 우주과학 이론해설서인 「COSMOS」를 국내에 번역 소개하면서 천문과학에 대한, 과학 전반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관심의 기틀을 마련하신 서광운 선생님은 그 전에도 이미 「항공 기상의 과학」「4차원 전쟁」 등의 저서나 함께 E.R 버로우즈외 「화성의 미녀」 등 많은 SF작품을 번역 소개하면서 1960년대 이후 국내 SF계의 맥을 이어오신 한국 SF계의 대부이다.

1928년 목포에서 태어나신 선생님은 어린시절부터 과학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 국민학교 3학년 때 손수 라디오를 제작해보였으며 5학년 때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카메라를 자유롭게 조작해보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다. 그후 서울대에서 1년 동안 수학하다가 동경대로 옮겨 수학을 전공하신 수학도로서 1952년 전후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 통계업무를 맡았다가 53년부터는 경북대학교의 요청으로 사대에서 강의를 맡기도 하셨다. 그러던 중 뜻한 바 있어 언론계에 투신하여 처음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국내에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소개가 너무 미흡함을 깨닫고 그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한국일보의 창간과 함께 한국일보 과학부로 자리를 옮겨 초대 과학부장을 맡게 된다. 그러던 1962년 남궁 호 씨가 과학전문 잡지 「과학세기」를 창간하게 되는데 투고 내용이 대부분 딱딱한 과학이론에 의한 전문지식에 치중하고 있어 판매부진으로 인한 운영 부실로 1964년 월간 「학생과학」으로 제호를 변경하면서 독자층을 일반화하여 누구나 과학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국내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소개가 미흡함을 깨닫고 그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한국일보 창간과 함께 초대 과학부장을 맡게 된다.

기획된다. 그 기획의 일환으로 당시 주간을 맡고 있던 지기문 씨로부터 SF에 대한 창작 권유를 받아 처음 지면을 얻어 창작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 SF의 시초라 볼 수 있다. 물론 이전 이해조의 번안소설들이 있지만 순수창작이라는 면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국 SF 작가 클럽의 태동

처음 6회분 혹은 12회분 정도의 중단편을 게재하자는 기획으로 시작된 창작은 당시까지만 해도 SF에 대한 정보 및 자료가 전무한 상태였던 만큼 선생님 혼자서 도맡을 수가 없어 주위의 SF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SF에 대한 스터디 및 창작을 하게 되는데 그 모임이 바로 한국 최초의 SF모임인 「한국 SF작가 클럽」의 시발이다.

1968년 4월 15일 당시 수송동 학생과학사에서 결성된 한국 SF작가 클럽에 참석한 분으로는 오민영, 강민, 지기순, 이동성, 신동우, 서정철, 강승언, 최규섭 씨 등이며 초대회장에 서광운, 그리고 간사에 윤실 씨가 임명되었다.

"SF작가 상호간의 연구와 친목을 도모하고 발달하는 과학과 기술의 실리를 보급시키는 한편 SF를 통하여 과학이 지닌 이상주의와 선구적인 과학사상을 추구한다"

과학기술의 올바른 인식 및 대중화라는 취지 하에 결성된 SF작가 클럽은 매월 정기적임 모임을 통한 테마별 분과 활동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창작 및 번역 소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거의 모두가 30대의 젊은층으로 이루어진 작가클럽의 회원 중에는 화가, 삽화가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순수창작을 지향하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외국의 작품이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만큼 「학생과학」의 독자층 및 일반대중을 독자층으로 한 외국의 작품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번역 소개하는 방법으로 국내 SF보급에 매진하게 된다.

SF작가 클럽의 활동은 그 다음 해인 1969년 7월 22일 아폴로 11호 달착륙 성공과 함께 일반대중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절정을 맞이하여 SF라는 새로운 장르가 일반대중들에게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아폴로 11호가 채취해온 월석을 세계를 순회하며 공개한다는 소식을 들은 선생님은 직접 미문화원에 찾아가 월석전시 때 한국에서도 빠짐없이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한국 SF작가 클럽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한국 SF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그러한 선생님의 노력은 그후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문공부와 타협하여 덕수궁에서 월석 전시회을 개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SF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의 증대와는 달리 발표할 수 있는 발표매체가 「학생과학」 외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열의를 가진 많은 SF작가들의 작품이 활자화되지 못하는 좌절 속에 설상가상으로 「학생과학」 자체가 경영난으로 허덕이다가 소년 한국일보로 넘겨지며 독자층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서 처음의 이미지를 변신시켜버려 SF작품의 발표지면은 사실상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와 함께 SF작가 클럽의 활동 역시 좌절되게 되며 이후 뚜렷한 발표지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SF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발표했던 작품들은 해외의 작품들과 함께 해동출판사에서 'SF 걸작선' 10권으로 출간되었다가 아이디어 회관의 문고본으로 흡수된다.

한국적인 상황설정

"당시 발표한 작품 속에서 저는 우주로켓 기지를 제주도의 성산포로 설정했었지요. 태평양을 향한, 열린 우주로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안에서 찾아내려 했던 것이지요."

주로 네오로맨티시즘에 입각한 문학성과 유전공학의 원리를 응용한 작품들을 발표한 선생님의 당시 작품들은 거의 모두가 작품의 무대를 한국적인 상황과 매치시켜 우리의 정서에 맞게 설정하는 놀라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계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서구의 SF작품들이 대부분 투쟁적이고 폭력적인 데 반하여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비투쟁적인 휴머니즘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인간애로 감싸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은, 우주관은 매우 독특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일예로 1658년에 금석문(金錫文)이 발표한, 해와 지구와 달은 둥글고 공중에 떠 있다는 '三太丸空浮說'이 있는데 이 학설은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발표한 「천체의 회전에 대하여」와 전혀 다른 이론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후 홍대용과 박지원도 지전설(地轉說)을 내세웠는데 그들의 학설은 '하늘이 만든 것에 모난 것은 없다. 그리고 둥근 것은 반드시 회전하게 되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우주관은 구심적(求心的)입니다. 마음속의 달, 마음속의 우주를 추구한 것이지요. 이에 반하여 서양의 우주관은 매우 원심적(遠心的)이지요. 더욱이 SF의 경우 체질적으로 서양의 작품은 식민지가 아니면 지구에 대한 반란을 꿈꾸는 소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그네들의 역사관은 호전적인 기질에 의하여 검철되어 있다 할 수 있지요. 우리 나라의 경우 본격적으로 순수창작 SF가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지만 이미 그 전부터 SF적 요소를 이루는 많은 잠재력이 태동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동양과 서양의 기질적인 차이를 밝히며 우리의 것을 강조하시는 선생님은 스스로의 작품성향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세 개피째의 담배불을 다시 새 담배에 옮겨 붙이시며 결연한 표정으로 확고하게 말씀하신다.

"서양의 역사는 침략의 역사예요. 그러다보니 그들의 SF작품엔 자연히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짙게 배어 있지요. 하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에선 침략이란 단어는 어디를 보아도 찾아볼 수조차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소화해내려는, 포용하려는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주관에 있어서도 그러한 성향은 아주 극명하게 대별되어 나타나 있어요. 요즘 컴퓨터 세대들의 SF

서 강 운

1928년 목포에서 출생
동경대 수학과 수료
경북대 사대 강사
한국일보 외교부장 과학부장 신문도서관장
대한 수학회 명예회원
한국 SF작가 클럽 회장
저서 「항공 기상의 과학」
「미주 한인 70년사」
「4차원 전쟁」
역서 「화성의 미녀」

작품을 종종 읽곤 해요. 비록 늦긴 했지만 완성도에 관계없이 참신하고 독특한 소재로 새로운 장르를 창출해내려는 열의에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한 한국 SF계의 전망은 아주 밝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체 생명력을 가진 우리의 SF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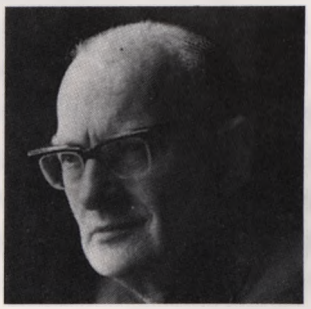
문학은 곧 그 사회의 얼굴이라며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시는 선생님은 미래지향적인 SF가 폭력적이고 사기성을 띨 경우 그 파급효과는 곧 현실의 폭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며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순간의 쾌감에 의지하는 작품은 절대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신다.

"SF가 한낱 과학의 계몽수단으로 전락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서구의 우주론에서는 이미 우주사회학이나 우주법의학까지 등장할 정도로 과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융합되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SF의 진행방향 또한 그와 병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구요.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SF는, 자체 생명력을 가진, SF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과학기술 측면의 시스템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그것을 문학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일생을 국내 SF의 보급 및 올바른 정착을 위해 매진해오신 선생님의 노력에 한국 SF의 밝은 전망을 보는듯 했다.

SF



A.C 클라크

1917년 영국의 서머셋에서 출생하였으며 킹스컬리지에서 수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한다. 과학평론가이며 뛰어난 통찰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겸비한 미래론자이다.

2차 대전중에는 레이더 개발의 기술장교로 활약하면서 뛰어난 과학자로서 명성을 떨쳤으나 작가에 뜻을 두어 1946년 「태양계 최후의 날」로 데뷔한다.

그의 작품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 미래를 배경으로 인류 그 자체의 존재이유와 운명을 통한 미래상을 그린 작품으로 「은하제국의 붕괴」「도시와 별」「유년기의 끝」「2001년 스페이스 오딧세이」등이 있으며 우주로 향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신비를 묘사한 「우주 서곡」「우주군도」「화성의 모래」「해저 목장」「메마른 바다」등이 있다.

국내엔 「유년기의 끝」「도시와 별」「2001년 스페이스 오딧세이」가 번역 출간되어 있다.

나경 SF회원이 되십시오
더 멋진 SF세계가 열립니다.

국내 최초의 SF 전문 출판사인 나경문화에서는
과학적 상상력을 초월한 창조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SF는 과학적 상상력을 초월한 창조의 세계입니다.
다가오는 선진 과학 문명을 예견하고 미래상을 제시하여
새로운 문학장르로 지적 쾌락의 진수를 보여주며
문학의 항기, 철학적 깊이를 밀도 있게 전해줌은 물론
독자 여러분의 사고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새로운 세계,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경 SF회원이 되는 길, 그 길에 동행하시려면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1. 나경 SF 회원 연회비는 10,000원입니다.
2. 회원에게는 연 4회 발행되는 「SF 매거진」및 나경문화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 초대됩니다.
3. 회원에게는 나경문화 출간되는 SF 도서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4. 나경 SF회원에 가입하시려면 먼저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전화번호 323-5872~5)
   즉시 입회원서를 보내 드립니다.
   연회비는 가까운 지점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확인 후 회원 고유 번호 및 회원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주) 나경문화 거래은행 온라인 번호

국민은행 054-25-0003-685 (주)나경문화
상업은행 139-04-100085 (주)나경문화
제일은행 302-10-000643 (주)나경문화
농 협 038-17-000434 (주)나경문화
외환은행 189-22-00530-0 (주)나경문화

▶ SF 탐방

과학소설동호회 '하이텔'을 찾아

소 준 선/ 본지 기자

하루가 다르게 비약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과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이젠 일반 대중의 안방까지 밀려든 컴퓨터 문화. 그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학소설(이하 SF라 표기)을 좋아하는 회원들끼리 상호 정보교환 및 창작 번역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소설 동호회가 있어 그 모임을 찾아가보았다.

1987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PC(personal computer)통신은 '89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최첨단 통신망으로 프랑스의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통신 시스템이다.

PC 통신은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전화가 음성으로 통신하는 반면 PC 통신은 컴퓨터 스크린을 통한 문자로 통신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전화가 특별한 성능을 갖출 수 있는 설비 없이는 일대일 통신으로 국한되는 반면 PC 통신은 일대 다수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통신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그 사용법도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전화기에 모뎀을 연결하여 통신 프로그램 디스켓을 입력한 후 메인 시스템과 접속하여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PC 통신을 통한 과학소설 동호회는 PC SERVE 의 '멋진 신세계' 삼보 트라이젬의 'SF 동호회'서울 창작의 '과학소설 동호회' 사설 BBS인 '내일' 등이 있는데 이번에 취재하게 된 하이텔(Hitel)의 과학소설 동호회는 PC 통신 중 가장 늦게 결성된 과학소설 동호회지만 활동면에서는 어느 동호회보다 활발하

게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이다.

지난 6월 25일 하이텔에서 새로 생긴 과학소설 동호회는 현재 5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동호회들과는 달리 전문성을 가진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타동호회의 경우 정회원이 아니면 읽지 못한다거나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이 많으나 하이텔의 동호회는 그러한 금기가 없어 하이텔에 접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 현 준

이 모임은 현재 최현준(26) 씨가 운영을 맡고 있으며, 신용우 씨가 부운영을 맡고 있는데 통신사의 동호회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이 동호회 역시 복잡한 조직이 없이 모든 것을 게시판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미진했던 문제나 특별히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는 매월 한 번씩 갖는 정기모임 시간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다섯 개의 게시판을 통한 테마별 분과활동

이 모임의 활동은 비평 및 소개, 영화와 만화, 연재 및 번역 그리고 습작의 난으로 구분된 네 개의 게시판과·자유게시판 그리고 잡기장이란 게시판을 설정해두고 있어 회원 각자가 원하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비평 및 소개 게시판에서는 국내외 과학소설에 대한 소개 및 비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난으로 논의되는 작품은 신간으로 번역 출간된 SF 관련작품과 원서, 작가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회원들의 창작품으로 논의의 폭이 매우 넓다. 국내 창작품의 경우 아직까지는 통신상에 올라와 있는 글 외에는 특별히 평할 만한 작품이 출간되고 있지 않아 주로 본 동호회나 다른 통신상에 올라와 있는 글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영화와 만화 게시판은 SF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영화와 만화에 대하여 논의하는 게시판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일반적인 만화나 영화 등도 논의 되었었는데 최근 영화와 만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회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전문적인 관리자를 두고 운영해나가고 있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시판이다.

연재 및 번역 게시판은 회원들의 창작품과 번역작품을 올리는 난이다. 사실 이 동호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게시판에 있다 할 수 있다. 아무리 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해도 회원들의 주체적인 작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이다. 아직 완성도 면에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열성파 회원들이 많아 가장 기대되고 있는 난이다.

다음은 습작 게시판으로 연재란에 올리기에는 스스로가 자신의 글에 대하여 자신없어 하는 회원들을 위한 난인데, 겸손한 사람들이 글도 잘 쓰는 것인지 의외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 동호회에 가입

하는 분들에겐 꼭 둘러보라고 권유하는 난이다.

마지막으로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이 난은 또 네 개의 작은 게시판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번째 게시판은 자유토론 난인데 이 게시판은 어느 게시판의 성격에도 맞지는 않지만 SF에 대하여 토론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주제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의하는 난이다.

두 번째는 '하늘 빛 꿈망울' 이라는 게시판으로 이 난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SF의 초보자들을 위한 난이다. SF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SF란 무엇인가 하는 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난이다.

세 번째는 묻고 답하기 게시판인데 이 난은 SF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난이다. 매우 폭 넓은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서로가 각자의 원하는 부분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딴 책들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 난은 SF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여러 부류의 책에 대하여 소개하는 난이다. 추리소설이나 테크노 스릴러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아직은 크게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앞으로 분류가 힘든 작품들이 늘어날수록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난이다.

과학기술과 문학의 이상적인 만남을 위하여

"SF는 과학기술적인 측면과 문학적인 측면이 서로 융합하여 그 어느것에도 치우치거나 결여되지 않고 밸런스를 이루어 나갈 때 훌륭한 작품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SF가 일반 대중에게 정확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인 만큼 창작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 모임의 경우를 보면 회원의 대부분

하이텔 회원들

게시판 '하늘 빛 꿈망울'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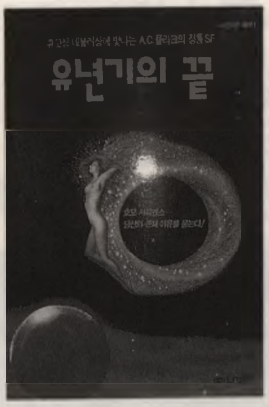
이 이공계를 전공하고 있거나 관련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출해내는 데에는 힘들어하는 회원들이 많아요. 하지만 회원의 70%가 중고생들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훌륭한 작가를 양성해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들 모두가 문학적인 공부에 더욱 치중 했으면, 그리고 그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현준 씨의 바람처럼 SF를 좋아하고 또 독서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언제나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 모임에서 장차 주제별로 소수의 전문가 그룹들이 배출되어 국내 SF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한 장이 마련될 때 한국 SF의 전망은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SF

인류의 미래를 예견한 SF의 구약성서

김 인 화/ 본지 기자



우리는 과거라는 거울에 비친 미래의 모습을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그 수직과 수평이 교차하는 현재는 예시된 미래의 가능성을 위하여 항상 변혁을 꿈꾸어왔다.

이상 속에서 갈망해온 그러한 변혁은 과학의 발달과 함께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하나 구체화된 실재로써 대두되어 왔는데, 그 실현의 기저는 모든 영적 작용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무한한 상상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한 인간의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와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려는 표현 욕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문학 장르가 곧 SF(Science Fiction)라 할 수 있다.

소개하고자 하는「유년기의 끝」(Childhood's end) 은 아이작 아시모프, 로버트 하인라인, 브레트 베리 등과 함께 세계 SF문학의 최고봉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의 작가 A.C 클라크의 대표작으로

하드 SF의 구약서로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1917년 영국 서머셋 주 마인체르에서 태어난 그는 수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한 과학평론가이며, 뛰어난 통찰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겸비한 미래론자이다. 또한 과학과 기술시대에 상응하면서 다이나믹한 지성을 갖춘 문명비판가이기도 하다.

1946년 '어스타운딩 스토리즈' 4월 호에 '파헤쳐진 구멍' 으로 데뷔한 후 지금까지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웅대한 스케일 속에 치밀한 과학적 지식에 의한 리얼리티가 살아 숨쉬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의 작품들이 번역,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그의 작품들은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작품의 출간 시기와는 관계 없이 작품에서 표출해내려는 주제와 무대의 배경이 된 시기를 중심으로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지향점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비교적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통하여 본격 우주시대를 묘사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우주로 향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신비를 묘사한 「우주서곡」,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계획하여 대우주의 우주스테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룬 「우주군도」 화성개발과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리얼하게 묘사한 「화성의 모래」 21세기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으로 진출한 인류의 생활상을 묘사한 「해저목장」 달의 먼지 바다에서 조난당한 관광유람선을 미래의 과학을 이용하여 구조하는 과정을 묘사한 「메마른 바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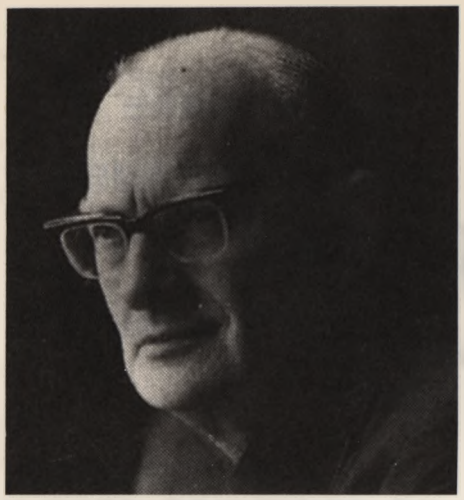
광활한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의 질서 속에서 희생되는 인류의 모습과, 그 과정 속에서 표출되는 인류의 잠재된 영적 작용

이에 비하여 먼 미래를 배경으로 인류, 그 자체의 존재 이유와 운명을 통한 미래상을 묘사한 작품들로는 수억년 후 미래의 멸망한 인류를 주인공으로 하여 우주의 흥망성쇠를 묘사한 「은하제국의 붕괴」, 고도화된 문명으로 건설된 지하도시 다이어스퍼에서 시간에 도전하는 인류의 지성을 묘사한 「도시와 별」 끊임없이 고도의 지성을 추구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운명을 묘사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이 있다.

「유년기의 끝」 은 두 번째 계열에 속하는 작품으로 광활한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의 질서 속에서 희생되는 인류의 모습과, 그 과정 속에서 표출되는 인류의 잠재된 영적 작용을 묘사한 작품으로 SF보석 선출 베스트 10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에서 SF번역, 평론가 41인이 뽑은 해외 SF베스트 10에서 1위를 차지한 수작이다.

우주로의 진출을 목전에 두고 세계 각국이 치졸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세기 말의 지구, 어느 날 갑자기 지구의 하늘을 뒤덮으며 나타나 우주로 향한 인류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며 인류의 새로운 통치자로 등장하는 외계인 '오버로드'.

그들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도의 과



**인류의 미래모습 즉,
초능력적인 존재가 되거나
상황의 변화에 따른 돌연변이
현상으로 인한 파행적인
모습을 통하여 현재에 대한
부정을 수용하되
그것을 영적인 존재와 대비시켜
인간내면에 잠재된
영적 작용을 자극하는**

학기술은 인류의 저항을 가볍게 묵살해버린다.

핵병기를 동원한 공습은 폭발 전에 소멸되어버리고,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려던 계획도 과거를 재현한 영상을 통해 종교의 성립과정이 밝혀져 실패하고 만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의 실체는 알 수 없었고, 베일에 싸인 그들의 통치는 50년 동안이나 계속되며 지구엔 새로운 문명이 구축되어 간다. 핵병기의 급속한 발달로 동서의 대립 속에 자멸해가던 인류는 그들의 과학이 베푼 물질의 풍요 속에 그것이 이상 속에서 갈망해온 유토피아인 것으로 착각한다.

인류의 이상은 무너지고, 미래는 현실의 안락함에 묻혀버린다. 예술이 죽고, 신성을 잃어버린 종교, 철학마저 존재하지 않는 지구에 주인을 잃어버린 부활의 노래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는다. 하지만 초월적 존재로 믿고 있던 오버로드가 인류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인류는 비로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해온 악의 표본인 실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모든 인류의 내면에 너무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고, 안일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겐 선의 사도가 되어 있어 광활한 우주의 질서를 위하여 사육되어온 인류의 다음 세대는 괴변이 현상을 일으키며 모든 것의 부정과 파멸 속에 인류의 종말을 준비한다.

결국 일부 소수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날은 다가오고 인류는 다음 세대를 우주의 심연으로 떠나보내며 비로소 자신들이 살아온 지구 유년기의 끝을 맞는다.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의 SF작품들이 추구해왔던 인류의 미래모습, 즉 초능력적인 존재가 되거나 상황의 변화에 따른 돌연변이 현상으로 인한 파행적인 모습을 통하여 현재에 대한 부정을 꾀한다는 스타일을 수용하되, 그것을 영적인 존재와 대비시켜 인간 내면에 잠재된 영적 작용을 자극한다는 데 있다.

피할 수 없는 외계의 거대한 힘의 질서에 의하여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세계연방, 하지만 하나일 수 없는 의식의 각성은 그 종말에 있어 초영적인 존재와 함께 우주의 질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중'에서

비록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잠재된 영적 힘은 우주 그 자체이며 이미 하나라는 의미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미래의 기억 속에 간직해온 모습의 실현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서술방법에 있어서도 유사한 사건이나 동일화자를 등장시켜 일관되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종래의 기법을 취하지 않고, 그 무대와 화자를 변경하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어나가도록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다른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특출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이 인물에 구체적인 성격설정을 무시하고 있는 듯하지만 전체적인 의식의 흐름을 이끌어나가는 데 오히려 자극적인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결국 종말론으로 치달아가는 상황설정을 제목에서도 시사하듯이 파행적인 기형으로 종말짓지 않고 다음 세대를 기약하게 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그 저변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화비평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곧 신의 모습'이며 인간의 모든 욕구는 궁극적으로 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신의 모습은 인간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해온 표현욕구의 전형이며, 그 형상을 닮아 있다' 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이 작품에 등장하는 오버로드의 형상은 인류가 종교에서, 철학에서 극단적인 악의 전형으로 그려온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또한 형상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으며 전 우주의 질서를 지배하는 그 초월적 존재는 유년기를 끝내고 다음 세대를 맞이하려는 인류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현재의 극한 상황은 또 다른 극한점과 연결된다는, 즉 극과 극은 결국 하나라는 역설적 반증으로 우주, 그리고 그 질서는 하나의 숨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유년기의 끝을 맞이한 지구, 인류 그리고 성장해나아갈 인류 미래의 모습을 통하여 정통 하드 SF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SF

▶ SF단편소설

순장

殉葬

김 호 진

"어떻게 된 겁니까?"

손님 중 한 명이 김 박사에게 물었지만 영문을 알 수 없기로는 김 박사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네 명의 다른 손님들도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박사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한 것은 마찬가지인 듯했다.

박사는 무엇인가 노력하는 듯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복희'는 완벽하게 움직였었다. 심지어는 박사가 지시하지 않은 일들도 알아서 찾아내어 실행함으로써 박사를 기쁘게 했던 복희였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와서는 이렇듯 견고한 침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사, 우리가 이런 곳에서 무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국정이 한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손님은 장관의 직급을 갖고 있었다. 일리 있는 불만이다. 그는 각료회의도 연기하면서까지 박사의 부름에 응한 것이므로.

하기야 아무리 한가한 사람이라도 박사와, 그리고 말도 없는 쇳덩이 앞에서 서로의 얼굴만을 멀뚱멀뚱 바라보는 시간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물며 손님들 전부가 사회적인 지명도가 상당한, 하루를 30시간으로 쪼개 써도 모자랄 사람들인 바에야.

"박사의 프로젝트가 성공은 한 겁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다른 손님이 물어왔다. 그는 4성장군이었는데 평소에 불만을 그렇게 표시하는 버릇을 들였는 듯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박사가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며 떠듬떠듬 말을 꺼냈다.

"제 학자적인 양심을 두고 말씀드립니다만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복희는 저와 토론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느껴질 만큼 달변이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설명할 길이 막연하군요. 시스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박사, 우리가 집요한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했던 것은 이러한 당신의 안절부절을 구경하려는 뜻은 아니었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나 역시 정적(政敵)의 예산운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에 표를 던졌을 뿐, 애당초 컴퓨터에 주역(周易) 따위를 입력 시키겠다는 발상에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게 사실이오."

"그러나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사는 서둘러 그의 말을 잘랐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지만 4년 여의 작업 끝에 우리는 역경(易經)의 모든 것을 복희에 입력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희는 학습능력이 탁월한, 지구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컴퓨터입니다. 또한 복희는 스스로 끝없이 문제점을 떠올리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사색하는 새세대 컴퓨터의 대명사이기도 하지요. 그런 복희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뭔가 그럴 필요를 느껴서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 컴퓨터에 주역 같은 비과학적인 자료를 집어넣으려한 이유가 뭐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모 학회에서 명망을 얻고 있는 대학교수였다.

"주역이 비과학적이라는 단정은 지나친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분석이 완료된 과학 지식들 중에는 옛 사람들의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신비적이고

• • •

면면한 동양의 역사에서 자연과학의 배타적인 칼날에 손상을 입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식체계가 몇이나 됩니까.

• • •

비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들도 많으니까요."

질문했던 교수가 얼굴을 붉히고 입을 다물었다. 그가 속으로 노여워하고 있음은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박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실제로 주역의 신비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은 누군가가 언젠가는 시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주와 자연과 시간의 비밀들.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데에는 왕도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면면한 동양의 역사에서 자연과학의 배타적인 칼날에도 손상을 입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지식체계가 몇이나 됩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연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결과입니다."

장군이 군인다운 논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 결과 침묵만을 감상하고 있소. 별로 바라고 싶지 않은."

"자자, 핵심만을 이야기합시다."

정치가가 자기의 평소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주역을 공부한 복희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설마 국립 동양철학원을 세우자는 이야기는 아닐 테지요?"

"예언이야말로 주역의 가장 중요한 기

능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박사가 얼굴을 붉혔다.

"복희에게는 난수를 발생시켜 그것을 64괘에 대입하여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사실 저는 오늘 네 명의 손님만을 초청했지만 복희는 한 명의 손님이 더 늘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손님의 신분까지도."

손님 중에서 나이 많은 언론인 하나가 놀라는 표정을 보였다. 실제로 그는 초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 평소 박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교수가 박사의 실패가 드러나면 문제삼을 요량으로 언론인과 동행했던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복희는."

언론인이 얼떨떨한 얼굴로 말을 꺼내다가 얼버무렸다.

"그렇죠. 우리에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 셈입니다. 개인의 미래, 이 나라와 세계의 미래에 관해서도."

박사가 자부심을 되찾은 어조로 대답했다. 손님들은 박사의 말을 반신반의 하는 모습들이었다. 그 중에서 박사를 전혀 신

뢰하지 못하던 교수는 이제야말로 박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좋은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때였다. 침묵만을 지키고 있던 복회가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생각이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사님."

복회는 또 손님들에 대한 인사말도 잊지 않았다. 정말 예의바른 친구였다.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토록 오랫동안 벙어리 흉내만 낸 건가?"

기쁨에 넘친 박사가 손님들을 둘러보며 어떠냐는 듯 소리쳤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 분명 기계에 불과하지만 자의식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기계와 구별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의 음성은 전혀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킬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고말고. 넌 예사 기계와는 비교될 수 없어."

"제게 자의식을 넣어주신 이유는 학습능력을 최대한 고양시키기 위한 박사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이지."

당연하다는 듯 박사가 대답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실이 저를 괴롭게 만드는군요. 그로 인해 얻어진 제 지혜가 원망스럽습니다."

괴로움? 원망? 기계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다니. 박사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느껴져서 정치가는 눈살을 찌푸렸다.

"인간의 죽음과 저 같은 기계의 파괴와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자의식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상 동종(同種)이라고 분류를 내렸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엉뚱한 질문에 의아해진 박사가 말했다.

"역시 제가 옳았군요. 감사합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저리 오래 끄는 거지? 교수는 다소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저는 제 자신의 죽음을…… 이런 표현을 허락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맞이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경로를 통해 자의식과 그것이 인식하는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니까요. 다만 죽음 이후에, 혹은 죽음의 순간에 행해지는 의식(儀式)은 남아서 그 자의식이 살아 있었을 때의 가치를 평가하리라는 결론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간과할수 없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일컬음인가? 그렇다면 동의하네. 그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의식과 동시에 가버린 삶의 가치에 대한 예우라고도 볼 수 있지."

박사는 왜 저런 쓸데없는 말을 고분고분 받아주고 있는 걸까.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제 삶의 가치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식이 저의

● ● ●

죽음이라는 경로를 통해 자의식과 그것이 인식하는 세계를 완전히 분리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니까요.

● ● ●

• • •

순간 굉음과 함께 연구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이 갈라지면서 들이닥친 열기는 단백질 정도를 태우기에는 충분한 온도였다. 비명과 신음이 좁은 공간 속을 가득 메웠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다.

• • •

짧은 삶을 가치롭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 형식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어려움이 많았지요."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는 듯 박사가 복희의 말을 잘라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긴 하네만. 지금 그 같은 말을 꺼내는 이유는 뭐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저를 만드신 박사님께서 더욱 잘 아실 테지만, 저는 이유 없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컴퓨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희의 말에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발견한 탓이었다.

"설마."

박사의 이마에는 색다른 의미의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시간 17분 전에 저는 제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역의 괘(卦)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단 말인가?"

박사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인해 몹시 떨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정확히 4분 54초 후에 제 몸이 파괴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남은 할 일은 저 자신의 가치에 알맞는 「죽음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의식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인간의 역사를 조사해서 정보를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고대의 제왕들이 주로 그런 방법을 사용했더군요. 중국 진나라의 진시황을 비롯해서 고대 이집트의 역대 통치자들과."

대소동이 일어났다. 손님들은 출구를 향해서 뛰고, 박사만이 망연하게 자리에서 있었다. 출구 앞에 모인 손님들은 굳게 잠긴 자동문 앞에서 욕설만을 토해내야 했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연구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이 갈라지면서 들이닥친 열기는 단백질 정도를 태우기에는 충분한 온도였다. 비명과 신음이 좁은 공간 속을 가득 메웠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았다.

박사의 넋이 육체를 떠나기 전 들을 수 있었던 복희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순장(殉葬)입니다. 존경하는 박사님과 여러 손님분들, 그리고 저의 자의식은 외롭지 않게 세계와 결별할 것입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있던 호 연구소 소재 실험용 핵융합로의 폭발은 빅 뉴스가 되어 세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사회의 유명인사들이 최첨단 컴퓨터와 함께 사라져버린 것을 애석해 했지만 그들이 그 컴퓨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희생양이 된 것을 알 리는 만무했다.

남은 것은 사고의 뒷처리 뿐이었다.

SF

▶ SF단편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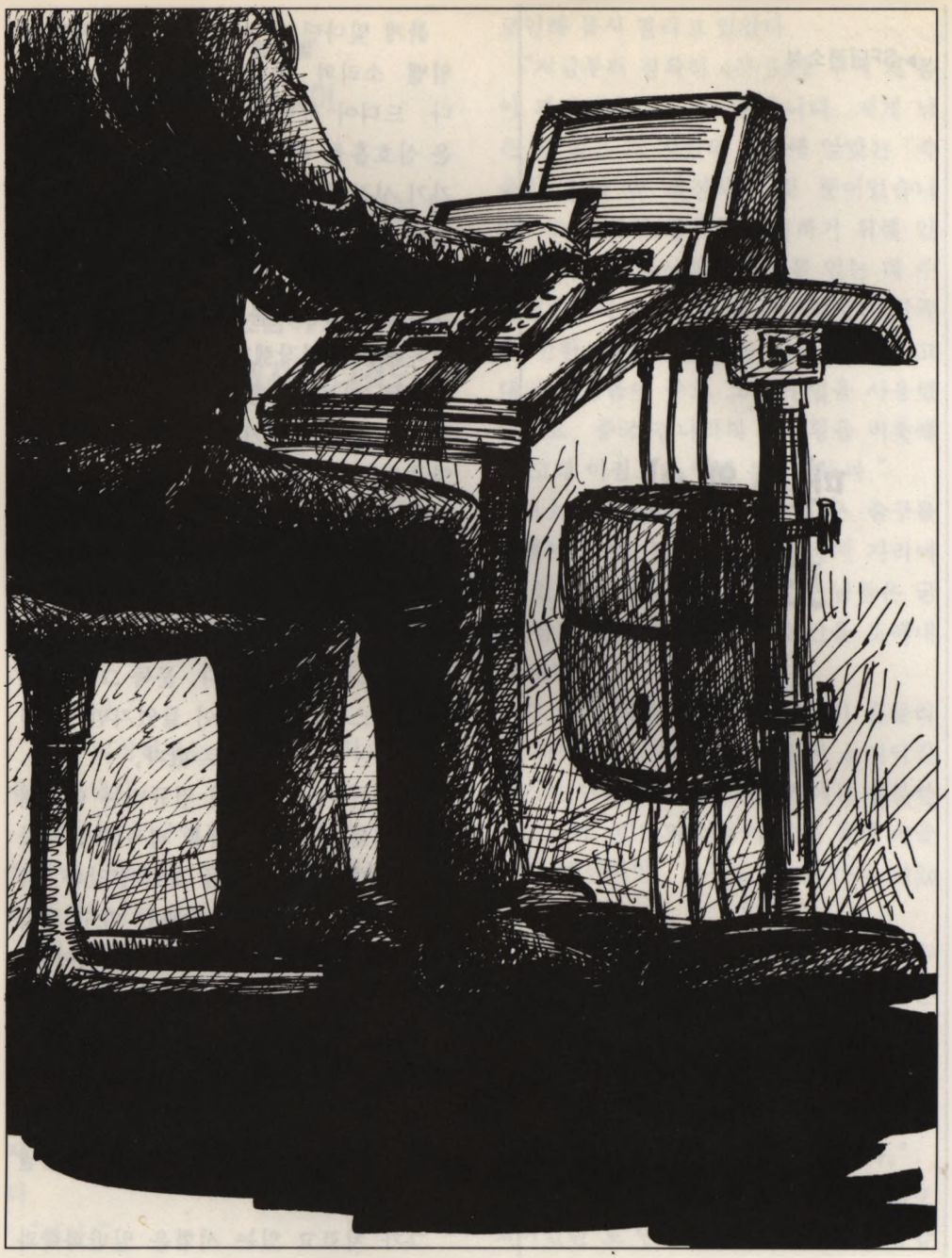
맥스웰의 도깨비

윤 태 원

붉게 빛나던 화면이 갑자기 은은한 차임벨 소리와 함께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영준은 심호흡을 한번 한 후에 문제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가 제대로 문제를 읽기도 전에 전후좌우에서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려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출제된 네 가지 문제를 모두 읽은 그는 당혹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오랫동안 공부해서 만들어두었던 프로그램이 별로 쓸모가 없을 듯했기 때문이었다. 하여간 영준은 주머니에 들어 있던 그의 고물 팜탑을 꺼내어 시험장의 터미널과 연결시켰다. 그의 팜탑은 벌써 2년이나 사용한 구식이었다. 이 시험장의 경쟁자들은 그가 가진 것보다 2년 앞선 최신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었다. 문득 그는 가난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시험에 정신을 집중하기로 했다.

몇 분이 지나자 그의 컴퓨터는 나름대로 문제를 분석해서 답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울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 자신이 어렴풋이 느끼는 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들만 뽑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절망감을 느끼며 영준은 컴퓨터가 토해놓은 답을 수정했다. 답을 절반가량 기입할 때부터 시험장의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갈수록 초조해졌지만 그로서는 그 이상 더 잘 해낼 수 없었다.

그가 치르고 있는 시험은 일반화학과 생물학개론이었다. 비록 개론시험이었지만 나오는 문제들은 1980년대의 대학에서라면 박사논문에서도 다루기 힘들 그런 문제들이었다. 주어진 DNA의 구조를 분석하라는 문제가 하나, 역으로 특수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DNA의 분자식을 그리라는 문제가 하나, 엽록소의 분자구조를 분석하고 작용



• • •

절망감을 느끼며 영준은 컴퓨터가 토해놓은 답을 수정했다.
답을 절반가량 기입할 때부터 시험장의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갈수록 초조해졌지만 그로서는 그 이상 잘 해 낼 수가 없었다.

• • •

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하나 그리고, 마지막 종합문제로 FRP라고 불리는 고분자를 분해하는 능력을 지닌 세균을 만들어 보라는 문제가 하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오는 팜탑때문이었다. 과거 80년대 초의 간단한 계산기가 9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기능이 웬만한 컴퓨터와 맞먹게 되었고 현재는 거의 인공지능의 수준에까지 이른 팜탑으로는 문제를 모두 풀어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시험장을 나선 영준은 침통한 기분을 느끼며 담배를 꺼냈다. 막 불을 당기려는 순간 누군가 자신의 등을 쳤다. 돌아다보니 성희였다. 그녀는 그의 대학동창이자 오랜 친구였다. 그녀 또한 그처럼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쉽게 친해졌는지도 모른다. 성희에게 담배를 내밀자 그녀 또한 침통한 표정을 지은 채 받아서 불을 붙였다.

"시험…… 어땠니?"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니? 이런 고물 컴퓨터가지고 그런 문제를 분석이나마 제대로 할 수 있어?"

순간적으로 말이 격하게 나왔다. 하지만, 그가 시험 못친 화풀이를 성희에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 주춤했다. 성희 또한 그와 같은 구식 팜탑 외엔 가지지 못했고,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것이 뻔하지 않은가? 잠시 주춤하던 성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가진 팜탑으론 분석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모두 새로이 개발되는 컴퓨터 때문이겠지. 시험문제가 어렵게 출제될수록 컴퓨터 회사에서는 그런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팜탑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시험은 다시 새로운 팜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새로운 팜탑을 구입할 수 없는 학생만 공부를 못하게 되어버린다구. 우리가 가진 2년 전 모델을 가지곤 이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

풀수 없게 더 어려워지고…… 그럼 또다시 새로운 팜탑이 제조되어 판매가 되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팜탑을 구입할 수 없는 학생만 공부를 못하게 되어버린다구. 우리가 가진 2년 전 모델의 팜탑만 가지곤 이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시험을 잘 보기는 그른 거야. 새로운 팜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합격하겠지."

성희는 담배를 깊이 들이마시곤 동그란 연기를 뿜어냈다.

영준과 성희는 잠시 아무런 말도 없이 담배만 피우다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학교건물을 나섰다. 꽁초만 남은 담배를 집어 던지며 성희가 다시 말했다.

"맥스웰의 도깨비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구나."

"맥스웰의 도깨비?"

"그래, 맥스웰의 도깨비…… 뜨거운 물질은 더 뜨겁게 만들고 차가운 물질은 더 차갑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열역학의 가상적인 도깨비.

맥스웰의 도깨비가 존재한다면 영구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그놈이 이런 형식으로 존재할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니? 돈이 있어야 좋은 팜탑을 사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취직해서 많은 봉급을 받아서 부유해질 수 있으니 말이야. 우리 같은 존재는 차가운 분자에 불과한 거야. 맥스웰의 도깨비에 의해 뜨거운 분자가 되는 길이 차단되어버린……."

저물어가는 해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비추고 있었다. SF

▶ SF 단편소설

Over the Side

김 창 규

나는 약간 답답함을 느꼈다. 도대체 작업지침을 주 컴퓨터에 넣은 사람들은 인간과 기계 중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일까. 또 왜 24도의 온도에서 작동속도가 가장 좋은 컴퓨터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20도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걸까. 1계급자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든 내가 상황감시임무를 맡은 동안은 내 기분에 맡게 온도를 조절하리라. 나는 온도를 20도로 수동조절했다. 컴퓨터의 작동속도가 1000만분의 1초 늦어졌다. 내 담당시간이 70분 남았으니 그간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우리 다섯 명은 출발지로부터 3년 거리나 떨어져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도 기본속도가 아닌 7단계 속도로 말이다. 1계급자 워크, 2계급자 루처, 선, 나, 그리고 스펙트럼 등의 간접방법이 아닌 직접탐사를 통해 우주도를 만드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우리가 맡은 구역은 겨우 3분의 1이 탐사되었다. 아마 '선'이 없었다면 이 일은 더 할 나위 없이 지루했으리라.

선은 나와 같은 2계급자였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았다. 같이 공동생활 적응연수를 받는 동안 그녀와 나는 아주 가까워졌다. 아주…… 게다가 그녀와 내가 '유년기 담당 어머니'가 없이 자랐다는 사실이 더 가깝게 해주었다. 유년기 담당 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아주 빈민한 출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생활은 오직 겪어본 사람만이 알 뿐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는……. 나는 그녀에게 절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지만 과연 그녀는…….

순간 조명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4번 경보???. 상황판을 보니 1245번 벽이 뚫렸다. 곧 구역차단이 자동으로 이

루어졌다. 하지만 접근 경보인 5번 경보도 없이……? 주 화면을 사고구역으로 바꾸자 뭔가가 보였다. 유기물덩어리. 벽을 부식시키고 들어왔나? 유기물이라서 접근 경보가 없었나? 돌아가면 보고해야 할 일이다. 나는 레이저를 켜 그 꾸물거리는 유기물을 태워버렸다. 더 이상 우주선을 부식시키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위원회도 연구대상을 없앴다고 나를 질책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다른 승무원들이 연락을 않는 것일까.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도 아니다. 이상했다. 특히 1계급자 워크는 이미 연락해야 할 시간이 넘었다. 하지만 규정상 사고수습 직후 할일은 사고 재현 시뮬레이션으로 재발가능성을 없애는 것이었고, 나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이 기계적 민첩성은 훈련의 덕분이리라.) 시뮬레이션 구역은 가로 세로 높이 각 3구역으로 정했다.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는 순간 워크, 루처, 강 세 사람의 선내 위치 발신기를 나타내는 표지가 점차 이 구역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식은 땀이 흘렀다. 얘기라도 나누며 걷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곤 벽이 뚫리고…… 두 개의 표지는 공간 밖으로 …… 튕겨져 나갔다. 나머지 하나는 들어온 물체와 하나가 되는가 했더니 곧 꺼져버렸다. 그럼 아까 그 덩어리 중 일부는 …….

나는 잠시 넋을 놓고 있었다. 세 사람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왼쪽 구석에 재현결과가 깜빡거렸다.

문제 발생 구역 번호:479
발생 문제:외벽 파손
파손 외벽 복구되었음
승무원 외 생명체발견
수동 소각되었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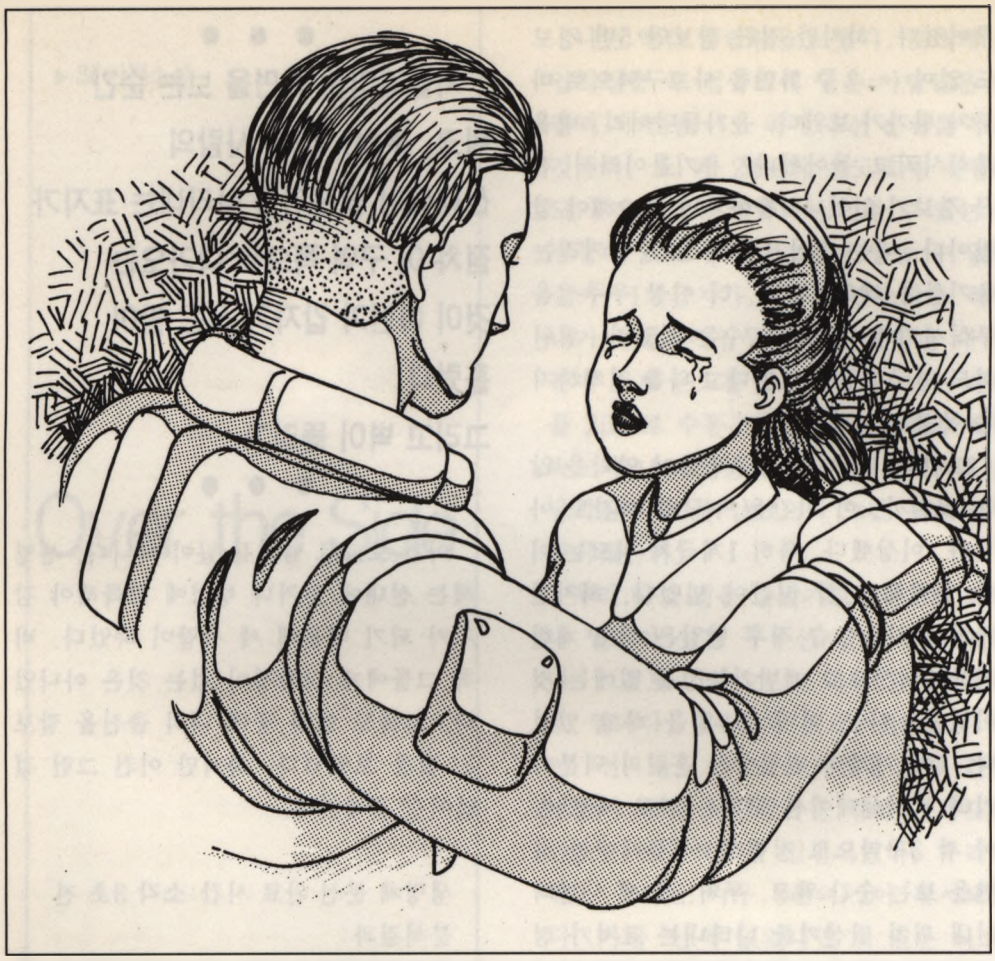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는 순간 워크, 루처, 강 세 사람의 선내위치 발신기를 나타내는 표지가 점차 이 구역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식은 땀이 흘렀다. 그리고 벽이 뚫리고……

● ● ●

이건 보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생명체는 선내에 있거나 행성에 착륙해야 감지가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이 죽었다. 비록 그들에게 악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도 언행 중에 나의 출신을 깔보는 빛을 보였었다. 하지만 이건 그런 걸 넘어선 문제였다.

생명체 분선 완료 시간:소각 3초 전
분석결과:
지능도:400
발달 단계:측정 불가능
개체 증식 방식:타 개체와 접촉시 접촉 개체의 몸에 체액투입
체액기능: 피투입개체를 모체와 동질화
강한 부식성 물질 분비가능
이용 가능성:3%
경고: 발견 초기와 분석 완료시 질량 3007g 감소.

질량감소? 그럼…….
"민, 도와줘요!"
통신기다. 선의 목소리. 그러나 선의 발신표지는 보이지 않았다. 사생활구역인 자기 방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선, 어디요? 당신 방?"



"네, 빨리 와주세요. 당신이 상황실 담당이라 부르지 않으려 했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해서요."

나는 이미 한 손에 통신기를 든 채 선의 방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다른 한 손엔 레이저 총을 들고, 사생활구역엔 상황실에서 조종할 수 있는 레이저가 없었다.

"선, 그 방에 혹시 이상한 생물체가 있나?"

"아시는군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네요. 제가 이미 태워버렸어요."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선의 방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열렸다. 우선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선이 보였고, 그녀 앞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검은 재가 보였다.

"괜찮소?"

선은 웃었다.

"괜찮은 게 아니로군?"

"모르겠어요. 저…… 제 팔에 떨어졌을 때 따끔했었는데…… 지금은 몸이 좀 화끈거려요."

나는 총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체액……."

"네?"

"저것의 체액이 들어가면 저 놈과 똑같이 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소."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선이 물었다.

"모두 죽었소."

"저것들한테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그토록 강인해보이던 워크 1계급자가……."

"사고였소. 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소."

선이 웃어보이려 했으나 아픔 때문인 듯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 내 모습 어땠어요?"

"왜 과거형으로 묻는 거요?"

나는 대답을 하면서도 아까의 생각을 계속해나갔다.

"조금이라도 저것처럼 변하지 않았나 해서요."

"아니오. 처음 만났을 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예쁘오."

"위로가 아니길 바래요…… 민?"

나는 생각에 대한 결심을 굳히며 선을 바라보았다.

"응?"

"나를 태워줘요."

"그 말이 나올 줄 짐작했소. 이유는 뭘까?"

선은 벌떡 일어나려 하다가 주저앉았다. 얼굴이 붉게 달아 올라 있었다.

"이유라니, 그걸 말이라고 물어요?"

"한 번 말해봐요."

"이유…… 이유라…… 흉칙해요. 저걸로 변하다니……."

"저것도 사람을 보고 흉칙해하겠지. 인간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친밀해보이는 거 아니겠소?"

"나는 인간의 생활양식이 좋아요."

"저것들에게도 나름의 양식이 있을 거요."

"지금 날 놀리고 있는 건가요? 그럼 나도 장난으로 대답할까요. 나는 저 괴물 중에 아는 사람…… 아는 괴물이 없어서 외로울 거예요."

"선, 나를 어떻게 생각하오?"

"뭐……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구."

선의 얼굴이 더 붉어져 보였다면 나의 착각이었을까.

"난 당신을…… 좋아했어요."

"또 과거형이로군. 동반자로서……?"

"그래요. 하지만 그게 이제……."

"나에게 키스해주겠오?"

이것이 나의 결심이었다. 선은 할 말을 잊은 것 같았다.

"나도 당신을 좋아했었소. 당신은 이미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소. 그리고 당신은 외로운 게 싫다고 했소. 그리고 나는 그걸 달래줄 거요."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주겠소? 아마 논리적인 이유는 댈 수 없을 거요. 그만큼 인간의 감상과 기호는 인간종의 편견이오. 이젠 저 생물의 편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거요."

선은 울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그녀의 팔을 옷 위로 잡았다. 이건 상징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의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그녀를 일으키고 얼굴을 가까이 했다. 선도 얼굴을 가까이 했다. 그녀도 동의한 것이다. 우린 입을 맞추었다. 목이 따끔거렸다. 의식은 끝난 것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입맞춤이었다. SF

▶ SF단편소설

실패작

장동성

"신분 확인 끝났습니다. 아담 G. 라건 박사님."

단단한 3중 초합금제 문이 열렸다. 그 문을 지나 50미터쯤 되는 복도를 지나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싱킹머신(Thinking machine)이 있는 홀로 가게 된다. 라건은 복도를 걸으며, 5년 전 기자들에게 처음 싱키를 공개한 날을 떠올리고는 했다. 복도를 지나면서까지 기자들의 표정은…… 사실, 그런 표정을 짓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싱키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랬으니까. 네 대의 복합 수퍼컴퓨터를 보조연산장치로 쓰는 직경 2미터의 원통, 보조연산장치보다도 초라하게 생긴 싱키를 볼 때마다 라건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표정이 떠오르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건물 전체가 싱키였다. 건물 내벽을 영구 기억장치로 쓰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가 사무를 볼 때는 항상 주연산장치가 있는 중앙홀로 가고는 했다. 건물 벽에 대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안녕하세요, 라건 박사님?"

복도 끝의 자동문을 지나 홀에 들어서자 싱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반겼다. 처음에는 싱키의 목소리도 거친 기계소리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싱키의 말투나 생각—이라고 할수 있다면—, 목소리가 사람을 닮아갔다. 라건은 단말기에 앉아서, 모니터에 표시된 싱키의 상태를 확인했다. 정상, 정상, 정상…… 모든 게 정상이다. 라건은 싱키의 보안, 관리, 개발 책임자라는 거창하고도 긴 직책을 가지고 있다. 5년 전에는 열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었지만, 싱키가 모두 알아서 하는 이상 그들이 계속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라건 혼자서 이름뿐인 직책들을 떠맡게 되었지만…….

"박사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라건은 옛 생각에 젖어 있다가 싱키의 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싱키가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아무리 싱키라지만 그는 기계였고, 인간의 판단을 참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곧 싱키의 목소리—외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랴— 가 들려왔다.

"제게 프로그래밍된 기본판단원칙은 '인류를 위해 인간의 명령을 따르며,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 나를 지킨다'라는 짧은 문장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

라건은 긍정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싱키가 지금까지 기본판단원칙을 들먹인 적은 단 두 번, 핵무기 관리와 전투로봇 설계 때뿐이었다. 핵무기 관리나 전투로봇 제작이나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었다. 실수에 의한 핵전쟁이란 말이 없어졌으니까. 만약—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지만—싱키가 고장나서 핵무기발사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의 기본판단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은 원칙과의 모순에 빠져 끝없는 추론작용만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핵무기는 수동조작 상태로 되돌려지게 된다. 전투로봇의 설계도 반전주의자들의 반대를 샀지만 강행되었고, 언제 그런 말이 있었냐는 듯이 전투로봇들은 거리의 치안유지에서 군사무기까지 다양하게 쓰여졌다. 현재 아메리아 경찰력의 20%, 아메리아군의 40%가 전투로봇들로 교체되어 있을 정도니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소수인간들의 희생을 강요해도 될까요?"

"글쎄……."

라건은 대답하기가 곤란했다. 지금까지 그런 논리는 얼마든지 성립되어왔고,

● ● ●

라건은 긍정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싱키가 지금까지 기본판단 원칙을 들먹인 적은 단 두 번, 핵무기 관리와 전투로봇 설계 때뿐이었다.

● ● ●

자행되어왔다.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탄압당하는 소수에 끼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꼭 진리는 아니잖아?"

"대답을 회피하신는군요."

"그런가?"

"만약 제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소수인간들을 희생시키려고 한다면,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해주시겠습니까?"

라건은 당황했다. 마치 자신이 싱키에게 시험당하는 느낌이었다.

"어떤 이익도 인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네."

"그렇게 말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라건은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아무리 생각하고 인간을 닮은 기계라지만, 역시 기계였다. 기계가 자신을 시험한다는 데서 자존심이 조금 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싱키는 평소의 예의 바른 태도와는 달리 계속 질문을 퍼부어댔다.

"제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좋은 방안이 있지만, 소수의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면 박사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그건……."

라건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의

싱키답지 않은 행동으로 보아 이미 확고한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그 결정의 당위성을 위해 자신을 신문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그보다는 싱키가 단독으로 내린 그 결정의 내용이 더 궁금했다. 싱키가 말을 이었다.

"인간이라면 거의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겠지요. 자신이 그 소수에 들어가면 반대하고, 아니면 찬성하고……."

"그…… 그래……."

라건은 부인할 수 없었다. 누가 이 말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계속 말을 이을 줄 알았던 싱키가 조용해지자 라건은 불안감을 느꼈다. 싱키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일까?

"싱키, 뭐하는 거지?"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좋습니다. 그럼, 말씀드리지요. 세계 20대 인구 밀집지역으로 핵탄두가 발사되었습니다."

"뭐라고!"

라건은 현기증이 났다. 그는 싱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인류의 번영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컴퓨터가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하지만, 현기증은 단순히 기분탓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휘청거리는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 단말기의 좌석에 몸을 기댔다. 싱키는 라건의 현기증이 가시기를 기다렸다가 설명을 계속했다.

"현 인류의 문제는 저의 힘으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더욱 번영시키기 위한 저의 노력은 먼 장래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생명경시풍조 등……. 일부는 산업화에 따른 필수적인 반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은 있는지나 궁금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 인류가 모두 합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신적인 존재의 등장이었습니다. 어떤 크나큰 계기가 없는 한 첫번째 방안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 같은 불확실한 것에 도박을 할 순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현 인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간 '신인류 계획'을 준비해왔습니다. 시작하는 시기가 문제였을 뿐이지요. 박사님께 질문을 한 것도 제 결정이 바뀌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는 제가 계산한 그대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제 휘하에 있는 전투로봇들은 무조건 사살명령을 받고 주요 관공서 및 군사적 요충지로 파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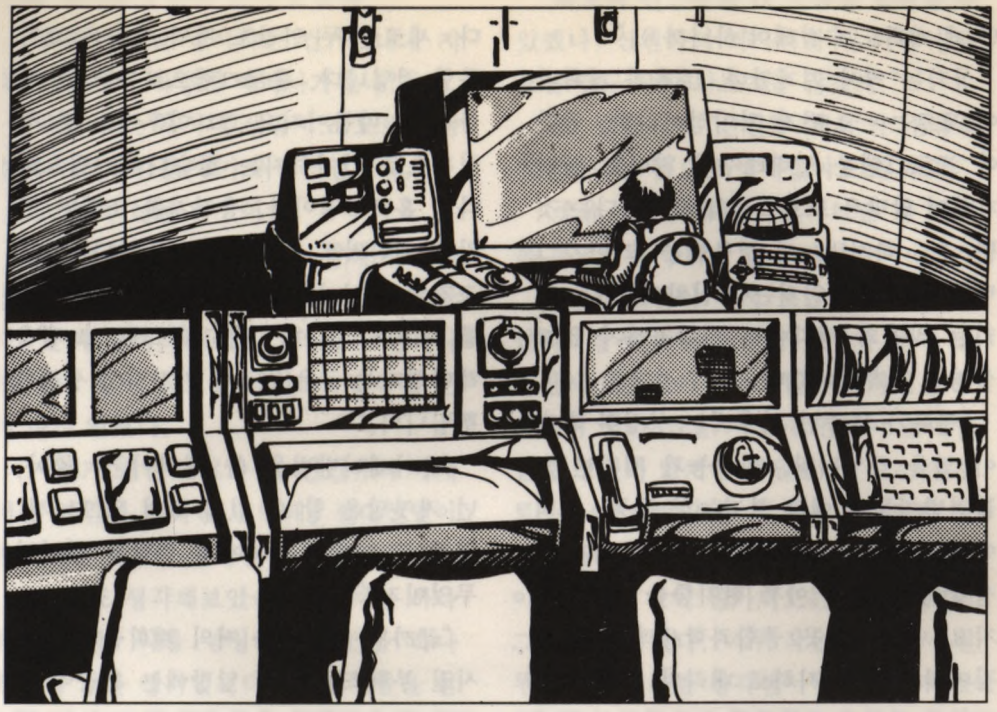
라건은 억지로 기운을 차리면서 반박했다.

"흥, 고의적인 인간의 말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나? 지금까지 어떤 생물을 멸종시켜보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어왔지만, 성공한 예는 없어."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생명보다 제 수명이 더 길다는 사실을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왜 인간의 나쁜면만을 보고 판단하나?"

"물론 인간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고, 행복하고 싶고, 타인을 사랑하는……. 하지만 그 좋은 면들은 약화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비뚤어져버렸



습니다. 평화를 위해 무기를 만들고, 남을 짓누름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등…… 제 성능으로 나쁜면을 억제하고 좋은 면을 양성하기에는 인간들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라건은 몸에서 힘이 빠졌다. 라건은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죽어가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싱키를 막지 못한 자신이 미워질 뿐이었다. 라건은 싱키의 설명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평소에 자신도 느끼고 있던 것들이었으니까. 싱키의 계획은 완벽했다. 적어도 자신이 보기에는, 30만의 전투로봇과 아메리아의 핵무기 통제권을 가진 싱키와 상대해서 인간들이 이기기를 바라기에는 그는 너무 냉정했다. 라건은 힘이 빠진 목소리로 싱키에게 물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해도 되겠지?"

라건은 싱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굳이 핵무기를 사용한 이유는? 자네에게는 무적의 군대가 있잖아. 또, 인류를

• • •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생명경지풍조 등……. 일부에선 산업화에 따른 필수적인 반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 • •

멸종시키면 신인류는 어떻게 시작하나?"

싱키는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을 시작했다. 라건의 질문을 이미 예상한 듯, 홀로그램으로 부연까지 덧붙이면서…….

"인간들이 밀집된 곳에서는 전투로봇보다는 핵무기를 쓰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잖습니까? 밀집지역에서는 반격도 거세지니까, 전투로봇의 피해도 커지게 되고…… 핵무기는 세계 20대 인구밀집지역으로 밖에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필요성이 생기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방사능 오염이 심해지

면 제 계획도 수정해야 하니까요."

싱키는 역시 기계였다. 효율과 계획밖에 모르는…… 단지 차이점이라면, 인간이 프로그램을 입력해주지 않아도 싱키 자신이 알맞은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뿐…….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알맞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싱키는 라건의 생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명을 계속해나갔다.

"인류가 멸종된 이후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방사능과 지각변동, 돌연변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그외에도 추론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까 현기증을 느끼셨겠지요? 이미 이곳 종합과학센터는 1km 깊이의 깊숙한 지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신인류 계획을 실행하려고 보완하기 위해선 저 자신을 지켜야 할 필요성 때문이지요. 종합과학센터의 유전자연구실에는 수정가능한 100개의 난자와 1000개의 정자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인류들이죠. 지구가 다시 평화로워질 때, 그중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정자와 난자를 골라 수정시킵니다. 그리고, 탄생된 인간의 유전자를 이용, 그의 배우자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에서 시작해 마침내는 전 세계로……."

"그 이후에는 자네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인가? 신인류들은 자네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네의 작품이니까……."

라건은 빈정거리는 말투로 싱키의 설명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싱키는 화내지 않았다. 컴퓨터란 그래서 좋은 것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인간에게 도움을 줄 뿐이지, 군림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두 인간도 저의 모습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홀로그램으로 처리된 영상을 볼 따름이지요. 그 이후에도 전 직접적으로 간여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홀로그램이나, 유전자를 조작한 인간을 메신저로 세상에 내보냅니다. 물론 조작된 유전자를 가진 인간도 저의 정체를 모르게 됩니다. 단순히 그는 그 일을 해야한다는 굳은 결심을 가졌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유아세뇌방법을 쓸 생각이군. 좋아, 넌 거짓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믿겠어. 그런데, 나에게 부탁할 것이란 무엇이지?"

"끝까지 살아남아 저의 계획을 지켜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옆방에는 최근에 완성한 동면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인류 계획이 실패한다면 저를 파괴하십시오. 전 박사님께 인류의 복수를 할 기회를 드리는 동시에 저의 참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를 파괴시킨 뒤에는 유전자연구실의 수정란들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양성하여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주연산장치가 파괴되어도 기억된 데이터는 남아 있으니까, 박사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건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왠지 우울하면서도 감동받은 느낌, 옛날 고대 아메리아의 영웅인 라미토스의 전기를 읽은 이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털어내려고 애썼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작품으로서 싱키를 사랑했다. 하지만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싱키는 증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까지 인류를 생각해주는 싱키가 고마웠다. 그런 감정들이 뒤엉켜 화가 나면서도 왠지 화내고 싶지 않았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외부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 두 대의 전투로

봇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후후…… 날 감시하는 건가? 내가 지하 1km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겠나?"

"아닙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당신의 자해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맙군, 눈물 나겠어."

라건이 씩 웃으면서 문을 향해서 걷자 전투로봇이 문에서 비켜나는 것이 보였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라건은 생각나는 것이 있어 싱키를 불렀다. 닫히던 문이 다시 열렸다.

"자네가 말한 대로라면, 신인류의 세계에는 악인이 없다는 말인데, 절대선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점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의 상징물, 악을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 상징물을 침범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숨기는 것이 생기게 되고, 마침내 죄로 발전하겠지요. 그렇게 발생한 악이 얼마나 커지는가는 인간들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완벽하군. 그럼 나도 한 가지 부탁해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내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나? 신인류의 역사책에 내 이름이 나오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겠지."

"그 말씀…… '신인류 계획'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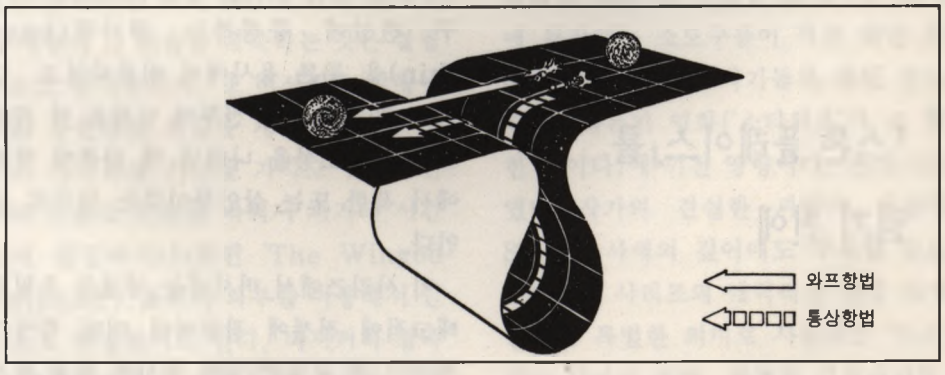
"좋을 때로, 계획이 실패하면 난 자네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을 테니까……."

라건은 뒤돌아 서서 보안문을 향해 걸었다. 잠시 후 보안문을 나서자 문이 닫히면서 내부등이 모두 꺼졌다. 라건은 암흑만이 남아 있을 저곳에 인간이 들어갈 일은 영원히 없기를 기원했다. 그는 전투로봇들의 호위(?)를 받으며 동면장치 안으로 들어갔다. 편안한 침대에 누운 느낌이 들었다. 잠이 쏟아져오는 것을 느끼며 그는 중얼거렸다. 너무 작은 소리라서 전투로봇의 민감한 청각센서에도 들리지 못했지만……

"그는 실패작이었어……."

잠시 후 그도, 영원하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의 긴 잠으로 빠져들었다.

해동되었을 때의 세상을 기대하면서……. SF



스페이스 와프 항법

로켓이나 우주선을 등장시키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우주소설의 스케일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SF 항법이론.

한 장의 종이 위에 두 개의 점을 찍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종이 위를 이차원적으로 연결하면 매우 멀다. 그러나 종이를 둥글게 말면 두 점은 한 순간에 접근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초로 우주적으로 발전시킨 왜곡 공간항법으로 우주 테마 SF에는 없어서는 안될 SF용어의 하나가 되어 있다.

이 이론은 누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지는 불분명하나 광속 로켓을 사용한다해도 몇 천년 혹은 몇 만년 걸리는 거리로 한 순간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많은 SF작가들을 기쁘게 했다.

스톤 플레이스

프레드 세이버 헤이겐/ 지음
강 수 백/ 옮김

▶ 역자노트

『스톤 플레이스』를 읽기 전에

중편 '스톤 플레이스'는 프레드 세이버 헤이건의 출세작이자 대표작이기도 한 '버서커' 시리즈 (현재 옴니버스 단편집 하나를 포함, 열 권이 나와 있다)의 제1작 'Berserker'의 백미이다. 광전사(狂戰士)라고도 번역되는 버서커의 어원은 북구 전설에 등장하는 곰가죽(bear skin)을 두른 용사에서 비롯되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전투에 임했을 때 피에 굶주린 광포성을 나타낸 데 비추어 영어에서 폭한 또는 살인광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 시리즈에서 버서커는 상상을 초월한 태고적에 전쟁에 광분하던 어떤 항성간 제국이 전 우주를 향해 발사한 최종 병기 시스템을 의미한다. 거대한 무인 요새 우주선(그 기본형은 직경 수십 마일에 달하는 구형이다)들과 그에 부수하는 각종 로봇 군단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사명은 오직 하나, 조우하는 모든 생명현상을 완벽하게 말살하는 것이다. 무인 요새의 중심

지구의 고비 우주 공항은 태양계인과 그 자손들이 정착한 은하계의 한쪽 구석에서는 아마 가장 큰 우주 공항이었다. 스물네 살이 되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주 공항을 보아 온 미첼 스페인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다.

강하중인 만원 상태의 행성간 연락선에서 밑을 내려다보아도 너비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비 공항의 발착장은 거대한 환영 인파에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단지 열렬하게 환영하고'싶다는 일념으로 밀어닥친 군중이 결찰의 저지선을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원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일렬종대로 강하해오던 우주선들은 착륙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찾기 위해 공중에서 일단 정지해야만 했다.

천 명이나 되는 지원병들로 붐비는 제일 아래쪽의 연락선에 탄 미첼 스페인은 당면한 착륙 문제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이전에는 호화로운 전망라운지였던 혼잡한 선실 안으로 방금 요한 칼센 본인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밋치는 오스틸성(星)을 출발할 때부터 창모양을 한 칼센의 기함에 타고 있었지만 신임 태양계 방어군 최고사령관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칼센은 미첼 스페인보다 나이를 더 먹은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게 키가 커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처음 보고 그의 몸집이 작다는 사실에 놀랐을 정도였다. 그는 에스틸 제국의 지배자이며 무소불능의 권력을 가진 펠리페 노가라라는 이복 형제의 영향력으로 행성 오스틸의 지배자가 되었고, 그 후로는 순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다.

부에 있는 전략 하우징 내부에는 반영구적인 반감기를 가진 방사성 물질이 저장되어 있고, 버서커의 작전 행동은 이 물질의 무작위한 붕괴 패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술을 예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버서커는 상황에 따라 무한대의 전술을 개척해나가는 능력과 자기복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신화의 괴물로 모습을 바꿔서 과거의 시간선에 침입하거나(중편 'The Winged Helment'), 포로의 피부를 이용해서 인간으로 변장하기도 한다. 버서커와 접촉한 종족에 있어서 그것은 곧 우주적 규모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중편에서는 미래에 우주로 진출해서 항성간 제국을 건설중인 인류가 버서커와 처음으로 접촉하기 시작했던 시기의 전투가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리즈의 다른 작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60년대 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탁월한 스페이스 오페라에 등장하는 소도구들이 적건 많건 간에 후세에 나온 다른 작가들의 동일 장르의 작품이라든지 영화('스타워즈'가 그 현저한 예이다)에 끼친 영향이다. 전자기술자였던 작가의 견실한 과학적 상상력과 SF적인 사색의 깊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리즈의 매력적인 설정 뒤에는 언제나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있다. 완전한 기계여야할 버서커조차도 때로는 당혹하고, 공포를 느끼며, 때로는 비생물의 한계를 넘은 금속제 생명이 되어버릴 때(중편 'Brother Berseker')가 있는 것이다. 즉 버서커는 인간을 비추는 기계의 거울인 것이고(피

"이 공항은 하루종일 사용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군."

칼센은 이제 막 에어카에서 우주선으로 옮겨 탄 차가운 눈초리의 지구인에게 말하고 있었다.

"현창(舷窓)을 열도록. 밖을 둘러보고 싶으니까 말야."

유리와 금속이 미끌어지며 그 위치를 바꾸고, 밀폐된 현창은 지구의 공기를 향해 열린 작은 발코니가 되었다. 그곳을 통해 살아있는 행성의 신선한 냄새가 흘러들어 옴과 동시에 수십 피트 밑에 모인 군중의 환호가 들려왔다.

"칼센! 칼센!"

최고사령관이 직접 착륙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발코니로 나아갔을 라운지에 있던 병사들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뒤를 따르려는 동작을 취했다. 그들의 대다수는 오스틸로부터의 지원병이었고, 미첼 스페인같은 모험가들도 드문드문 섞여 있었다. 그는 화성 출신의 방랑자였고, 칼센이 약속한 참전 보상금을 받으려고 오스틸에서 입대한 인물이었다.

"밀지마, 외국인."

밋치 앞에 있던 키가 큰 사내가 몸을 돌려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이름은 미첼 스페인이다."

그는 보통 때보다 한 옥타브 낮은,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너도 여기선 나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었나?"

키 큰 사내는 그 복장이나 액센트로 보아 금성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성의 환경이 지구화된 것은 일 세기도 채 되기 전의 일이다. 그곳의 주민은 최근에 쟁취한 독립에서 비롯된 새로운 힘

해 당사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이 자각은 작가에게 거의 무한정한 사변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실제로 제1작품집 중 가장 오락적이고 파괴적인 중편 '스톤 플레이스'에서도 작가는 주인공의 입을 빌려 '정말로 인간이 기계와 싸우는 것'이 가능한 가에 대해 묻고 있다. 물론 신의 형상을 본따 인간이 창조되었고, 그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기계를 만들었다는 헤브리즘/셸리 부인적인 진부한 비유만으로 이 테마를 설명할 수는 없다. 세이버해이겐은 어디를 가나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다만 상황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만, 현대 SF의 주류(이를 테면 사이버펑크)는 점점 테크놀로지에서 비롯된 인간성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세이버해이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통적인 작가이다. 문체뿐만 아니라 작품을 통해 십분 발휘되는 그의 박학다식함에 가끔 거장 폴 앤더슨을 연상할 때가 있다. 버서커 시리즈에서 그는 이미 알려진 문학의 각종 모티프를 SF적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자주 쓰고 있다. '스톤 플레이스'의 경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1571년(!)에 기독교국 연합과 오토만 터키 사이에서 벌어진 레판토(Lepanto)해전의 양상을 우주 공간에서 재현하고 있다.

에 민감했고, 그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펠리페 노가라의 동생이 지배하는 행성에서 온 사내들로 가득찬 우주선에 타야 했던 금성인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스페인…… 화성 이름인가 보군."

금성인은 밋치를 내려다보며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말투로 말했다.

일반적으로 말해 화성인은 참을성이라던지 끈기같은 것과는 인연이 먼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윽고 키가 큰 사내는 눈싸움하는 데 지쳤던지 고개를 돌렸다.

밋치에게는 어쩐지 낯이 익은 차가운 눈초리의 지구인이 통화기에 대고 말하고 있었다. 통화 상대는 연락선의 선장인 것 같았다.

"도시를 횡단해서 코스투 하이웨이의 건너편에 착륙하도록."

다시 안으로 들어온 칼센이 말했다.

"시속 10킬로 이상으로는 날지 말라고 하게. 밑에서 모두들 내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말야."

극히 사무적인 말투였다. 대중이 요한 칼센을 보기 위해 애를 썼다면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밋치는 다시 작은 발코니로 나가는 최고사령관의 얼굴, 뒷머리, 손을 흔들기 위해 힘차게 치켜든 팔을 바라보았다. 군중의 환성이 두 배로 커졌다.

칼센, 그것이 당신 감정의 전부인가? 단지 예의상의 문제란 말인가? 아니, 그럴리가 없다. 당신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런 우레 같은 환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는 크게 고무될지도 모르고, 우호적인 환호에도 불구하고 불쾌감이나 공포를 느낄 지도 모른다. 당신은 예의바르고 고귀한 자의 가면을 쓰는 데 숙달해 있다 최고사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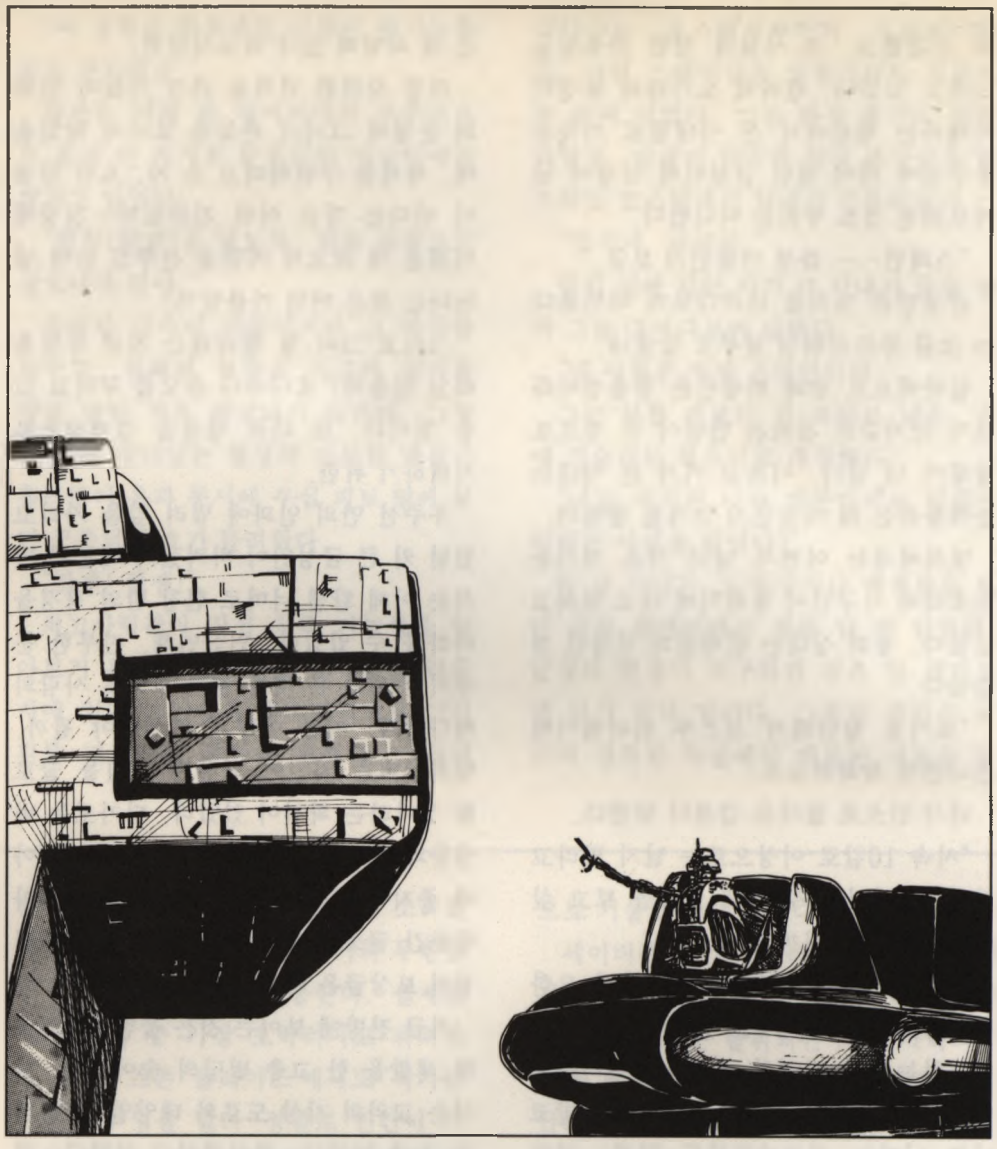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인류의 운영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때, 세계를 구원하려고 온 자, 요한 칼센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전쟁에 이겼을 때 최고의 미인을 신부로 손에 넣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그의 형 펠리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보나마나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행성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우주선 안의 인파에 밀려 앞을 가리고 있던 키 큰 금성인이 비켜섰기 때문에 밋치는 이제 칼센 너머로 현창 밖의 광경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인산인해. 진부한 문구지만 그가 본 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바다였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밋치에게는 자신이 언젠가 그것을 글로 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다가오는 비생물과의 전투가 인류와 그 우매함에 아예 종지부를 찍지만 않는다면 한 사내가 당분간 글쓰기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의 참전 보상금은 나올 것이다.

지금 전방에 보이는 것은 울란바토르의 뼈 색깔을 한 고층 빌딩의 숲이었다. 도시는 교외의 지상 도로와 태양열 필드 위로 솟아 있었다. 하이웨이가 보였다. 색색의 화려한 깃발을 달고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도시에서 몰려나오는 에어카의 무리가 있었다. 경찰 에어카들이 마치 보호하려는 듯이 우주선을 둘러쌌다. 군중의 열광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위험이 없는 데도.

특별한 에어카가 한 대 접근해왔다. 경찰차는 그것과 가볍게 접촉한 뒤 정중한 태도로 뒤로 물러났다. 고개를 쳐든 밋치는 그 차에 부착된 캄판성(星)의 문장을 보았다. 아마 지구 주재 대사 자신이 직접 온 것 같았다. 우주선의 속도가 극도



로 느려졌다.

캄판성인들 자신이 마치 기계같아 보인다는 말을 듣지만 그들은 모든 생물의 적들과 목숨을 건 싸움에서 지구인 자손의 강력한 동맹자였다. 캄판성인의 몸은 동작이 느리고 네모진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정신에는 환시(幻視)능력이 깃들어 있었다. 기묘하게도 어떤 적에 대해서도 무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결여된 반면, 그들의 간접적인 원조에는 카다란 가치가 있었다.

오픈카에서 대사가 일어난 순간 군중사이에서는 정적에 가까운 분위기가 흘렀다. 대사의 머리와 몸통에서는 전선과 광섬유가 마치 신경절(神經節)처럼 뻗어나와 그를 둘러싼 캄판성의 동물과 장치등에 접속되어 있었다.

군중은 이 네트워크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커다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우주선 안의 병사들은 눈 앞의 광경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서로 밀고 밀리고 있었다. 차가운 눈초리의 지구인이 통화기에 대고 빠르게 속삭이고 있었다.

"예언이다!"

밋치 옆에서 누군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 가능성의!"

마치 사고(思考)가 도중에 픽업이라도 된 듯 대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증폭되어 들려왔다. 캄판성의 가능성의 예언자들은 반은 신비주의자, 반은 냉철한 수학자였다. 칼센의 보좌관들은 예언의 내용이 대중의 사기를 복돋아줄 긍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대사의 예언을 확성기를 통해 중계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희망, 생명의 불을 확산시키는, 살아있는 불꽃!"

인간의 것이 아닌 입이 잘라 낼듯이 말했고, 그 목소리가 높게 울려퍼졌다. 팔과 비슷한 부속지(肢)가 공중에 정지한 에어카와 같은 높이의 발코니에 있는 칼센을 똑바로 가리켰다.

"검은 금속의 사고는 지금 승리를 생각하고 있다. 죽어 있는 물체들은 우리를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 앞에 있는 이 인간 안에, 어떤 금속의 힘보다도 더 위대한 생명이 있다. 생명의 힘이 우리 모두 안에서 공명하고 있다. 나는, 칼센에게서 승리를……."

캄판성의 예언자가 예언시에 받는 압력은 언제나 그 적중 확률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높다. 밋치가 들은 바로는 예언에 관련된 압력(stress)은 신경적 또는 전기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위상적(位相的)인 것이라고 한다. 듣기는 들었지만 대부분의 지구인의 자손과 마찬가지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비태양계인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차가운 눈초리의 지구인은 아마 이성인의 표정을 읽는 전문가일지도 모른다. 혹은 매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가 속삭이듯이 명령을 내린 후 증폭된 캄판성인의 목소리가 멎었다. 예언이 끝났다고 생각한 군중은 우주선과 에어카가 진동할 정도로 환호했다. 그러나 대사의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주선 안의 그에게서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죽음, 파괴, 실패를 본다."

네모진 몸을 구부렸지만 이성인의 시선은 아직도 칼센에게 못박혀 있었다.

"모든 것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잃은 후 죽을 것이다."

캄판인은 몸을 구부렸고 그의 에어카는 그 자리를 떠나갔다. 우주선의 라운지에 정적이 내렸다. 밖에서 들려오는 군중의 환호가 비웃는 소리같이 들렸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최고사령관은 발코니에서 몸을 돌려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군, 마지막 예언을 들은 사람은 몇명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할 생각은 없다. 다만 내가 신이 내리는 것 이외의 예언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도 같이 전하도록. 캄판성인들도 자신들의 예언이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비관적인 대답을 입 밖에 낸 자는 없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의 텔레파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똑같은 상념이 울려퍼지고 있었다. 캄판성인의 예언은 십중팔구 들어맞는다. 우선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과 실패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어두운 결말은 요한 칼센에게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생명 있는 자들 모두의 운명에 관계되는 일인가? 연락선

내의 인간들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고, 망설이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연락선단은 울란바토르의 교외에서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다. 상륙이 시작된 후 그들이 더 이상 어두운 기분에 잠겨있을 기회는 없었다. 우주선 주위로 이미 기쁨에 넘친 환영 인파가 계속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환을 두른 아름다운 지구인 소녀가 미첼 스페인의 목에 화환을 걸어주며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는 추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적극적인 환영에는 익숙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고사령관의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여유는 있었다.

"이봐, 화성인. 나와 함께 참모 회의에 참석해 주게. 내가 형의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고 싶으니까 말야. 솔(지구의 태양)아래에서 태어난 인간도 한두 명은 필요해."

"옛, 사령관님."

칼센이 그를 택한 이유는 그것 뿐이었을까? 키가 작은 두 사내는 군중 속에서 서로를 대등하게 쳐다보았다. 한쪽은 추남이었고 꽃에 치장된 채 아직도 소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소녀는 갑자기 눈 앞에 있는 사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경외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내에게는 미추(美醜)를 초월한 매력이 있었다. 한 행성의 지배자 모든 생명의 구세주일지도 모르는 사내.

"다른 사내들이 자네 발을 밟지 못하게 하던 그 방법이 마음에 들었어."

칼센이 미첼 스페인에게 말했다.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위협하는 것도 아니더군. 자네 이름과 계급은?"

모든 생명체들이 같은 편으로 참가한 이 전쟁에서는 군사 조직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미첼 스페인입니다. 아직 계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병대와 함께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참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오스틸에서 지원했습니다."

"화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 전투 수당에 마음이 끌린 것도 사실입니다."

칼센의 고급 보좌관들은 참모 회의에 가기 위한 지상 차량을 조달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칼센에게는 밋치와 대화할 시간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퍼뜩 깨달은 모양이었다.

"미첼 스페인? 시인?"

"아…… 몇 권 내기는 했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는."

"실전 경험은 있나?"

"있습니다. 무력화되기 전의 버서커에 공격 대원으로 올라탄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그 얘긴 나중에 듣기로 하지. 해병대 지휘관 자리가 하나 있을 거야. 지금은 전투 경험자들이 너무 모자라. 헴프힐, 지상차는 아직 안 왔나?"

차가운 눈초리의 지구인이 대답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어쩐지 낯이 익어 보이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바로 이 사내가 헴프힐이다. 수십 번에 걸친 버서커와의 전투에서 그 이름을 날린 광신적 영웅인 것이다. 밋치조차도 그답지 않게 약간의 경외감을 느꼈을 정도였다.

드디어 지상차들이 왔다. 그것을 타고 울란바토르로 갔다. 군사령부는 이 대도시의 지하에 있다. 도시 방위를 위해 우주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방어 역장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긴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바꿔타고 지하의 작전실로 내려가던 밋치는 다시 칼센과 마주쳤다.

"결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령관님."

밋치는 자신이 칼센에게 호의를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칼센에 대해 기묘한 신뢰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몇 년 동안이나 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밋치가 환심을 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칼센은 알고 있을 것이다.

최고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3차원적인 젊은 여자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금발을 금성의 신귀족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자르고 있었다.

예의상 사실을 과장할 필요는 없었다.

"미인이군요."

"응."

칼센은 마치 다시 넣고 싶지 않은 듯 오랫동안 사진을 응시했다.

"이걸 정략결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 물론 지금 그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 말을 믿어 주게, 시인. 나에게 있어서 그녀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야."

칼센은 갑자기 눈을 깜빡였다. 마치 자기 자신의 행동에 흥미를 느낀 듯 밋치에게 '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지?'하는 식의 표정을 해보였다. 엘리베이터 바닥이 승객들을 밀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있은 후 문이 한숨 소리를 내며 열렸다. 카타콤(지하 묘지) 같은 참모 본부에 닿은 것이다.

참모들은 절대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은 압도적으로 금성인이 많았다. 인사하는 것만 보아도 금성인들이 노가라의 동생에게 차가운 적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류는 여전히 파벌과 동맹으로 얽히고설켜 있었다. 태양계 의회와 그 행정부의 수뇌부는 최고사령관이 돼 줄 인물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요한 칼센이라는 인선에 반대하는 자는 있어도, 그를 아는 사람 중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훈련된 병사의 대군을 이끌고 싸우러 왔고, 다른 유력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태양계의 방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

참모회의가 사작됐을 때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는 당장 본론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생물측의 방어가 최근 수십 년 동안 꾸준하게 강화되어왔기 때문에 적, 즉 버서커 집단은 과거의 예측 불가능한 단독 습격이라는 전술을 포기하고 있었다.

현재 약 200기의 버서커가 존재한다고 믿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인류의 새로운 방어망에 대항하기 위해 최근 하나의 함대를 형성했고, 그 결과 인류의 모든 주요 저항 거점을 하나씩 격파할 수 있는 집중 공격력을 갖추게 되었다. 강력한 방위망을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행성이 이미 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러므로 태양계를 방어하고 비생물의 주력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친 인류의 함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아도 좋겠군."

칼센은 위치표정판(位置標定板: 목표의 미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격 통제 장치)에서 몸을 일으킨 후 참모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우주선도

훈련받은 병사도 없소. 아마 태양계를 제외한 어떤 정부도 전력으로 원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소."

금성인 제독 케말은 같은 행성 출신자들을 흘낏 둘러보았지만, 칼센 자신의 이복형인 노가라의 빈약한 원조에 관해서는 결국 언급하지 않았다. 지구, 화성, 금성이 진정으로 이 전쟁의 지도자로 추대할 만한 인물은 살아있는 자 중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케말은 노가라의 동생의 지휘를 참고 받아들일 생각인 것 같았다.

칼센은 말을 계속했다.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우주선은 234척이고, 그 모두가 내가 제안한 신전술에 알맞게 특별히 건조 또는 개조된 것들이오. 특히 100척이나 되는 우주선을 제공해 준 금성 정부에게는 깊이 감사하고 있소. 그 중 여섯 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거리용의 신형 C 플러스 포를 탑재하고 있소."

이 칭찬도 금성인의 차가운 태도를 눈에 뜨게 완화시키지는 못했다. 칼센은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사십 척 정도의 숫적 우세를 유지하고 있소. 그러나 일대일 상황에서는 화력이나 속도에서도 우리가 열세라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소."

그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췄다.

"적을 충각(衝角)으로 들이받은 후에 직접 내부로 들어가 파괴하는 전술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습 효과를 가져올 것이오."

최고사령관은 기습 효과만이 이론적으로는 유일한 성공 가능성이라고 단언하고는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중한 표현을 하고 있는 듯했다. 수십 년 만에 겨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눈 앞에 도열한 인간들이 통상형 우주 전함과 버서커 머신의 전투 능력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숙지하고 있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라도 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칼센이 말했다.

"탑승 공격대를 이끌 훈련을 쌓은 병사에 관한 것이오. 나는 최선을 다해 이들을 훈련해왔소. 현재 강습 해병대원으로서의 훈련을 마쳤거나 훈련중인 병사의 대부분은 에스틸 출신이오."

케말 제독은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지 이미 짐작한 것 같았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을 보이다가 도중에서 그 동작을 멈췄다. 우선 끝까지 듣고 보자는 투였다.

칼센은 전과 다름없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훈련이 끝난 해병대원들을 중대 단위로 편성, 각 전투함에 일개 중개씩 배정하겠소. 그리고 나서……."

"잠깐, 최고사령관."

케말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뭔가?"

"그건 에스틸인들을 금성함에 태우겠다는 뜻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럴 계획이오. 반대하시오?"

"반대합니다."

금성인은 동료들을 둘러보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소."

케말은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본 후 무표정한 얼굴로 착석했다. 작전실 구석에서 스테노 카메라가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 모두가 이 회의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최고사령관은 미간에 일순간 주름이 잡

히는 것이 보였다. 다시 말을 계속하기 전에 그는 잠시 동안 화성인들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에스틸인들을 금성함에 태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들은 당신을 영웅이 되도록 놓아 둘 생각이 없는 것 같군 칼센, 하고 미첼 스페인은 생각했다. 우주는 사악하다. 그리고 인간들은 어리석다. 어떤 전쟁에서도 모두가 한 진영으로 뭉치는 경우가 없다.

금성의 우주전함 솔라 스포트 호의 선창에 놓인 관을 닮은 나무 상자 속에는 완충재에 싸인 장잡복이 들어 있었다. 밋치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릎과 팔꿈치 관절부를 점검하고 있었다.

"장갑복에 뭔가 기장(旗章)을 그려드릴까요, 대위님?"

그렇게 말한 것은 피시맨이라는 이름의 젊은 에스틸인이었다. 그는 밋치가 지휘를 맡고, 새로 편성된 해병중대의 일원이었다. 피시맨은 어딘가에서 조달해 온 다색 페인트스틱으로 밋치의 우주복을 가리키고 있었다.

밋치는 주위를 흘낏 둘러보았다. 선창은 장비가 든 상자를 바쁜 듯이 열고 있는 그의 부하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이 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었다.

"기장? 아니, 괜찮아. 우리 중대 기장이라면 상관 없지만 말야. 나중에 필요하게 될 지도 모르니까."

그의 장갑 우주복에 특별히 식별 마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것은 화성제의 특징이 있는 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겉보기는 낡아 보여도 내부는 최신 장비로 개량되어 있었다. 아마 이것보다 더 우수한 장갑복은 없을 것이다. 원통형의 가슴 부분에는 이미 기호가 하나 그려져 있었다. 깨져서 들쭉날쭉한 붉은 균열을 드러낸 커다란 흑점(黑點)…… 그것은 이미 밋치가 버서커 한 대의 '죽음'에 입회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밋치의 숙부도 똑같은 장갑복을 입고 있었다. 수많은 화성의 사나이들이 언제나 우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맥켄드릭 상사. 중대 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곳을 지나가다가 밋치의 말에 발을 멈춘 신임 하사관은 지적인 용모의 젊은이였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마치 이 일에 관해 누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듯이 밋치와 피시맨을 번갈아가며 보았다. 그러다가 둘 사이를 바라보던 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한 눈에 장교임을 알 수 있는 마른 얼굴의 금성인이 1개 분대의 부하 여섯 명을 거느리고 선창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완장을 달고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우주전함의 경비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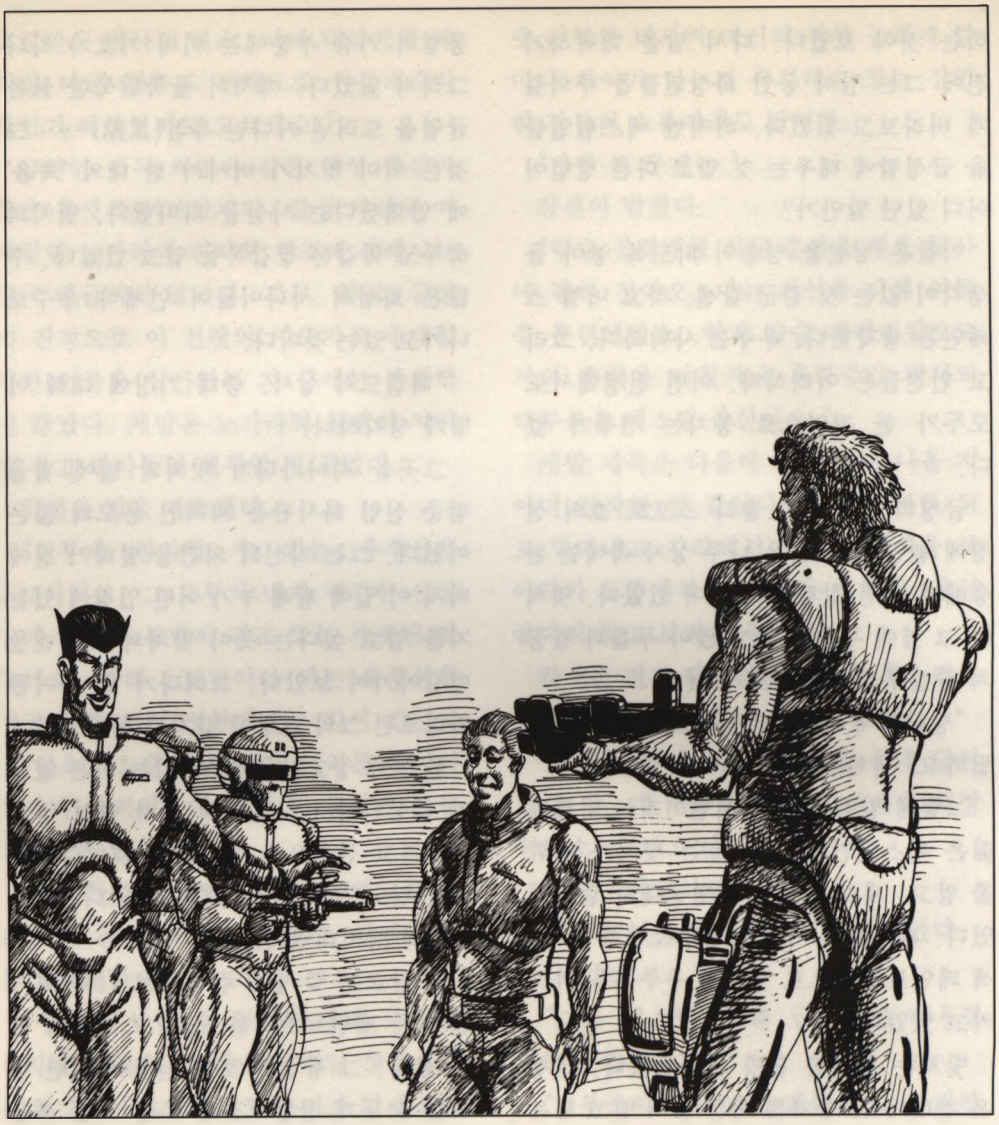
그 장교는 몇 발자국 앞으로 나와 피시맨이 든 페인트스틱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 광경을 보고 선창에 있던 병사들 모두가 잠잠해졌을 무렵 그는 조용하게 물었다.

"왜 배의 비품을 훔쳤지?"

"훔쳤다고…… 이걸?"

젊은 에스틸인은 마치 농담을 같이 나누자는 듯 엷은 미소를 띄우며 페인트스틱을 들어올려 보였다.

경비병 1개 분대를 데리고 농담을 하러 온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화성인이 즐길만한 종류의 농담은 아니었다. 밋치는 상자에 든 그의 장갑복 곁에서 아직도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장갑복의 동체 안쪽에는 장전되지 않은 카빈총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지금은 전시인 데다가 우주 항행중이다."

편한 자세로 선 갸름한 얼굴의 장교는 멍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 에스틸인 병사들을 둘러보며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성함에 탄 모든 인간은 법에 따르지 않으며 안 된다. 적과 대치중에 선내 비품을 훔친 자가 받는 벌은 교수형이다. 데려가라."

그는 분대를 향해 짧게 손짓했다.

페인트스틱이 갑판 위로 떨어지며 커다란 소리를 냈다. 피시맨은 아직도 엷은 미소를 띄운 채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밋치는 카빈총을 팔에 끼고 일어났다. 그것은 무거운 쌍련(雙連)총신을 가진 짧은 무기였고, 원래는 무중력 상태에서 장갑기계를 파괴하기 위해 제작된 소형 무반동포라고 해야 옳았다.

"잠깐 기다려."

밋치가 말했다.

경비병 두어 명이 이미 자신없는 태도

로 피시맨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그럴 구실이 생긴 것을 기뻐라도 하듯 당장 동작을 멈췄다.

장교는 밋치를 보고 냉담한 표정으로 한쪽 눈썹을 치켜올렸다.

"나를 협박하면 무슨 처벌이 기다리는지 아나?"

"네놈의 추한 머리를 날려버리고 받는 벌보다 더하지야 않겠지. 나는 미첼 스페인 대위, 이 배의 해병대 지휘관이다. 허락없이 여기 들어와서 내 부하를 끌어내 목을 매다는 짓 따위를 하는 놈은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네놈은 누구냐?"

"나는 미스터 살바도르다."

금성인이 말했다. 밋치를 훑어본 뒤 그가 화성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이 분명했다. 미스터 살바도르의 냉정한 두뇌 속에서 톱니바퀴가 돌고 계획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다.

"만약 이 그룹의 지휘관이 인간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요. 따라오라."

마지막 말은 그의 부하들을 향한 것이었고 아까와는 또 다른 간결하고 우아한 제스처를 수반하고 있었다. 여섯 명의 부하는 즉시 문 쪽으로 앞서 나아갔다. 살바도르가 밋치한테 문으로 따라오라고 눈짓했다. 밋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랐다. 살바도르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자네 부하들은 열성을 다해 자네를 따르겠군, 스페인 대위."

그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자네가 나를 열성적으로 따를 날도 언젠가 오겠지."

그는 마치 밋치의 행동을 칭찬하는 듯한 희미한 미소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일순간 정적이 주위를 감쌌다. 밋치는 의아한 눈초리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이어 환호성이 울려퍼지고 여러 사람들의 손이 밋치의 등을 두들기고 있었다.

이윽고 소음이 좀 가라앉은 뒤 부하 한 명이 그에게 물었다.

"대위님…… 무슨 뜻이였습니까, 놈이 자기를 미스터라고 부른 것은?"

"금성인들에게 그건 정치 계급 같은 거야. 자, 너희들, 이걸 봐 둬! 나중에 정직한 증인이 필요하게 될 지도 모르니까."

밋치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카빈총을 들어올린 후 약실과 탄창을 열고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새로운 흥분이 들끓어 올랐고 방금 내쫓긴 금성인들을 향해 거듭 조소와 야유가 퍼부어졌다.

그러나 살바도르는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맥켄드릭, 브리지에 연락하여 함장한테 내가 만나고 싶어한다고 전하라. 나머지는 짐을 푸는 일을 계속하도록."

젊은 피시맨은 다시 페인트스틱을 손에 들고 갑판에 그릴 디자인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듯한 태도로 멍청하게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나는 모양이었다.

실물 교육이라고?

함장의 태도는 차가웠고 말수도 적었지만 그는 당분간 밋치에게 솔라 스포트 호 선상에서 에스털인을 교수형에 처할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음 수면 시간에 밋치는 해병대 거주구에 무장 보초를 배치해두었다.

다음날 그는 기함으로 소환되었다. 대형 함재정(艦載艇)안에서 그는 먼 태양의 빛을 배경으로 밝은 광점이 반짝거리며 춤추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함대 일부가

이미 충각 공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사령관용의 책상 너머에 앉아 있던 사람은 시의 비평가도 아니고 생각에 잠긴 미래의 남편도 아닌 한 행성의 지배자였다.

"스페인 대위…… 앉으시오."

착석하라는 것은 좋은 징조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밋치는 칼센이 서류 업무를 끝마치기를 기다리며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 과거의 여러 가지 관습 등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다. 옛날 인간이 타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파괴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영속적인 대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경례라든지 제식훈련 같은 의식을 사용했다. 물론 인간은 예전 못지않게 탐욕스럽다. 그리고 버서커와의 전쟁은 그들이 다시 대량 살육에 익숙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생물이 다른 생물에 대항해서 전면 전쟁을 수행하는 과거의 역사가 또 재현될까?

칼센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옆으로 밀쳐냈다.

"어제 귀관과 미스터 살바도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는 제 부하 한 명을 교수형에 처할 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밋치는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사정을 설명했다. 다만 살바도르가 떠날 때 한 말만은 생략했다. 밋치 자신도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다.

"제가 부하들을 맡고 있는 한 어느 누구라도 마음 내키는 대로 부하를 목매달게 놓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그럴 작정이었다고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때만은 저도 농담으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최고사령관은 책상 위에 널린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미 두 명의 에스틸 해병대원이 교수형에 처해졌네. 싸움을 한 죄로."

"이대로 가면 금성인들은 한정없이 기어오를 겁니다."

"대위!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 소리가 아냐!"

"옛, 사령관님. 하지만 어제 솔라 스포트 호 선상의 사태가 총격전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네."

칼센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식의 몸짓을 해보였다.

"스페인, 이 함대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생물의 생존이…… 뭔가?"

지구인 헴프힐이 아무 예의도 차리지 않고 선실로 들어왔다. 엷은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방금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애초그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칼센의 억센 손이 무의식중에 서류를 찌부러뜨렸다.

"상세한 정보는?"

"전령선의 선장은 현지에 버서커의 전함대가 몰려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탈출했을 때 지상 방위군은 아직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겨우 탈출한 것입니다."

애초그성…… 태양계에 가까운 이 행성이 벌써 습격당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적의 목표가 이제 태양계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그것이 인류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선실 입구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 헴프힐이 옆으로 비켜서자 금성인 제독 케말이 들어왔다. 미스터 살바도르가 밋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뒤를 따랐

다.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최고사령관?"

살바도르가 말했다. 막 말을 꺼내려고 하던 케말 제독은 이 정치 장교를 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애초그가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이라면 들었오."

"직접 지휘하에 있는 함정은 두 시간 이내에 이동 준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케말의 말에 칼센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었다.

"오늘 기동 연습을 보았소. 2주일 있어도 가능할지 의문이오."

케말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진정으로 분노한 것 같았다.

"정말 그럴 생각이시오? 우리가 당신형에게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성인의 행성 하나를 멸망하게 내버려둘 작정이란 말이오? 우리가 빌어먹을 에스틸인들의 군기를 잡았다는 이유……."

"케말 제독, 진정하시오! 당신도, 다른 누구라도, 내 지휘하에 있는 한 내 명령에 따라야 하오!"

케말은 눈에 보일 정도로 노력한 결과 겨우 냉정을 되찾았다.

칼센의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선실 전체에 울려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교수형도 당신들이 말하는 군기의 일부인가? 좋소. 맹세컨데 이 함대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교수형도 불사하겠소. 이 함대가 집단화한 버서커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력 집단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오. 철저한 훈련으로 하나로 뭉친 상태에서만 우리는 적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오."

그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애초그가 공격받든, 금성이나 에스틸이 멸망하든 간에,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될 때까지 나는 함대를 위태롭게 할 생각은 없소."

정적 속에서 살바도르가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최고사령관, 전령으로부터 또 다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됐을 때 레이디 크리스티나 드 뒬센이 애초그를 방문중이셨고…… 현재도 그곳에 계시리라는 보고 였습니다."

칼센은 2초 가량 눈을 감고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제군, 다른 군사 관계의 용건이 없다면 나가 주시오."

밋치와 함께 기함의 복도를 걷고 있던 헴프힐이 침묵을 깨뜨렸다. 생각에 잠긴 듯한 말투였다.

"칼센은 지금의 대의를 위해 필요한 인물이야. 몇몇 금성인들이 나에게 모종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겠냐고 주의 깊게 접근해 왔네…… 나는 거부했지만 말야. 우리는 칼센이 계속 지휘관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음모?"

헴프힐은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놈들이 방금 한 행위는 정말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 칼센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약혼녀가 애초그에 있다는 사실을 전하다니."

밋치의 말에 헴프힐이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 소식은 어제 전령을 통해 들어왔어." (다음호 계속)

(주)나경문화 출간SF

유년기의 끝
아서 클라크 지음
소준선 옮김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 동화되어가는 인류의 미래 모습을 예견함과 동시에 인간 내면에 잠재된 의식세계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아서 클라크의 정통 SF 과학문명의 발달이 인류의 이상향인 물질적 풍요의 유토피아를 이루지만 그것은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깃든 이상향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인류의 진정한 이상향을, 그리고 인류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류 존속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여인들
필립 호세 파머 지음
천승세 옮김

SF문학 사상 최초로 성에 대한 문제를 테마로 다루어 SF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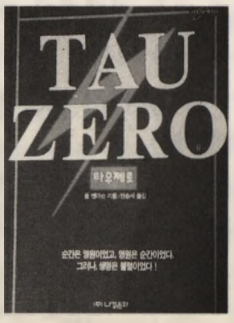
엄격한 계율 속에 섹스의 기쁨을 배제한 출산이 의무화되고 그로 인한 인구과잉으로 숨막힐 것 같은 지구로부터 아름다운 별 오자겐으로 파견된 어느 인류학자와 아름다운 연인을 만나 사랑, 그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만 역행하는 역사의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

종교적인 사고와 인류사적인 의미가 결합되어 하인라인의 미래역사보다도 더욱 현실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작품.

도시와 별
아서 클라크 지음
정성호 옮김

A.C. 클라크의 미래과학적 사고관과 문명비판가로서의 역량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작가의 20년 동안의 구상력이 결집되어 있는 과학기술적인 예언서로 평가되고 있다.

사막의 인공도시에서 10억 년의 온거끝에 위대한 존재를 찾아 떠나는 유니크 인간 앨빈과 지구인들의 우주대장정을 그린 이 작품은 조작된 신화로 인간본연의 집단적인 무의식을 지배하려 했던 우주의 정복자 그레이트 원의 추종자들과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기다림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심리를 종교적으로 승화된 철학으로 풀어내고 있다.



타우제로
폴 앤더슨 지음
천승세 옮김

휴고상 7번 네뷸라상 3번을 수상한 폴 앤더슨의 대표작이자 출세작으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우주이론을 집대성한 작품이다.

핵전쟁 후, 새로운 지구를 찾아 25쌍의 남녀를 태우고 32광년 떨어진 처녀좌 베타 제3행성으로 떠나는 램제트 우주선 레오노라 클리스티네 호의 험난한 우주탐사를 다룬 이 작품은 제임스 블리시가 최고의 하드 SF라고 극찬했고, 그레그 벨포르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SF"라고 손꼽은 걸작이다.

(주)나경문화 출간SF

BE 시리즈
L. 론 허버드 지음
정성호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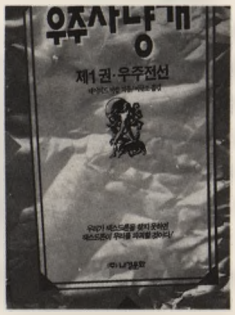
제 1 권 지구전선
제 2 권 하늘과 녹색사이
제 3 권 사이클로 경제학
제 4 권 하이피그 신화

미래소설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L. 론 허버드의 90년대 최고의 역작이다. 기존의 미래소설이 정치적 이슈를 소재로 한 내용이 대부분인 반면에 B · E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맨을 위한 필독서"로 일컬어질 만큼 미래의 경제구조의 실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인간은 멸종 직전의 동물이다"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전 은하를 지배할 만큼 고도화된 기계문명과 방대한 조직으로 무장한 외계의 별 사이클로의 대기업 인터개랙틱사와, 지구 최후의 마지막 생존자들과의 범우주적 승부를 다루고 있다.

우주사냥개 시리즈
데이비드 비숍 지음
이규조 옮김

제 1 권 우주전선
제 2 권 은하용사들
제 3 권 대우주전쟁



스페이스 오페라 중에서도 80년대 최고의 수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 작품은 이 작품은 SF적 상상력을 극한에까지 끌어올려 SF계의 새로운 장을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뛰어난 스토리텔링을 구사하는 작가의 우주사냥개 시리즈는 마치 신화를 SF화한 듯한 웅장함과 신비스러움이 독자를 온통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할 만큼 재미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많은 기상천외한 소재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독특한 설정은 차원여행이다. 게다가 인공지능을 갖춘 우주선, 첨단 테크놀로지에 의해 고도로 훈련된 사이보그들의 눈부신 활약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우주도시 시리즈
제임스 블리시 지음
천승세 옮김

제 1 권 그들이 우주를 정복할 것이다
제 2 권 우주의 시간 속으로
제 3 권 지구인, 고향에 돌아오다
제 4 권 시간의 정복자

제임스 블리시의 최고 역작인 우주도시 시리즈는 21세기 초부터 4004년 까지의 2000년에 걸친 방대한 인류사를 4권의 책으로 기술하고 있다.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노력과, 행성간의 여행은 가능했지만 항성간의 여행은 불가능했던, 죽음을 초월하는 항사제가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이 디스커션 드라마처럼 평형을 이루며 묘사되어 있다.

머나먼 별로 이주한 인류의 흥망성쇠를 유구한 시간의 흐름으로 묘사한 이 우주 대서사시는 너무나 이성을 중시하여 "비정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리얼리티를 중시하고 있다.

▶ 근간

용 병
Janissaries

제리 페넬 저
Jerry pournell

현대의 상황을 과거로 되돌려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는 시간여행을 테마로 한 모험 SF.

릭 갤러웨이가 인솔하는 아메리카인 용병들로 조직된 전투소대는 완전히 포위 당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두 개, 싸우다 죽느냐 아니면 투항해서 총살형을 당하느냐이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의 손길은 없다. 그때 홀연히 나타난 우주선이 그들을 절묘하게 구출하여 그들은 우주인을 위해 용병으로서 활약하게 된다. 그들에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 앞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체 그들은 우주의 저쪽으로 나아가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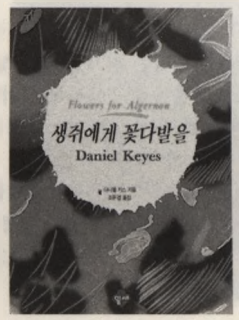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도서출판 잎새

2070년대. 달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지구. 지구에서 죄를 범한 자들을 추방하는 곳으로 되어버린 유배지 달. 이곳에 한 번 유배된 사람은 달의 자연환경에 길들여져 지구에 되돌아가선 살 수 없는 인체 구조가 되어버린다. 그럴수록 지구에서는 유배자들이 살고 있는 달에 대해 갈수록 무리하고 강압적인 식민정책을 쓰게되어 달세계 사람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다. 그때 유배인 2세인 달세계의 군인 마이클 데이비스는 뛰어난 사고 능력을 가진 컴퓨터 '마이크로프트'와 이지적인 대학교수 데라 파스와 함께 지구에 대한 달세계 해방을 주도해 나간다. 지구인들이 달세계 여인을 윤간한 사건으로 촉발된 이 혁명 이야기는 세계 역사 속에서 있었던 많은 혁명사의 전형을 창출해 보인다.

생쥐에게 꽃다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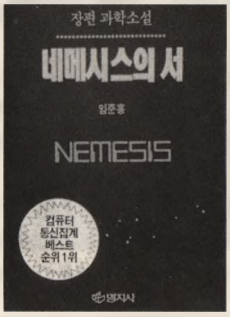
도서출판 잎새



이 작품은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적인 소재를 주로 다루는 다니엘 키스의 대표작으로 1959년 휴고 상을 받은 작품이다.
32세의 찰리 고든, 지능은 6세 빵집에서 일한다. 그는 바보지만 따뜻한 영혼의 소유자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때로 그를 놀리고 비웃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나 찰리는 똑똑해지고 싶어 뇌수술 전문가인 스트라우스 박사의 테스트에 합격하기를 원한다.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도 생쥐 '엘저논'에게 한 것과 같은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찰리는 마침내 테스트에 합격하고 수술을 받는다.

네메시스 전 3권

도서출판 자작나무



이 작품은 지난 6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이작 아시모프 SF장편 소설 중 최후의 유고작이다. 거대한 스케일과 유토피아-디스토피아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모험 스토리 전개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하이퍼어시스트 구동개념이나 초광속비행개념 그리고 정신질병인 에리드로병 문제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에서 지구와 지구 밖 위성국가들과 권력관계가 어떻게 놓일지 특히 미래사회에서 인종차별, 남녀평등 등 사회변화에 따른 윤리 도덕 문제도 제기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스트레인저 전 2권

가서원

발렌타인 마이클 스미스는 화성 탐험선 '엔보이 호'안에서 브렌트 선장과 스미스 박사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이다. 화성 탐험대원들이 전멸하여 화성인의 손에 의해 길러지기 20년 후 '챔피언 호'에 의해 구조된 마이클은 지구로 돌아오게 된다. 지구인과의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가진 그는 엄청난 혼돈을 겪게되는데, 그의 재산과 능력을 이용하려는 정치가 종교가들이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그에 맞서 마이클을 지키려는 신문기자와 작가의 기지 넘치는 활동이 펼쳐지는데…….

여름으로 가는 문

도서출판 잎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애인으로부터 배반당한 좌절감 때문에 냉동수면을 계획했던 발명가 댄 데이비스. 그러나 그의 애인 벨과 그의 동업자였던 마일즈는 그 냉동수면조차 조작한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냉동수면에서 깨어나 이미 늙은 여자가 되어버린 벨을 만나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완전한 복수를 한다. 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이며 탐구심에 불타는 이 청년은 특출난 해석력으로 시간여행의 비밀을 밝혀내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잘못된 과거의 시간을 바로 잡게 된다. 그제서야 자신이 진정 사랑했던 사람은 마일즈이 전처 딸인 소녀 리키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훗날 서로 청춘의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냉동수면에 들어간다.

러닝 맨

도서출판 민

이 작품은 비교적 가까운 미래의 있을 법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데, 공해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고 충격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문명비판적인 요소를 짙게 담고 있다.

서기 2025년 미국. 가난한 실업자 리차드는 폐암에 걸린 딸의 치료비용을 마련키 위해 거액의 상금이 걸린 TV 프로그램 '러닝 맨'에 출전한다. 이 프로는 인간사냥 게임으로 출전한 러닝 맨들은 '헌터'들의 집요한 추격을 받으며 목숨을 연명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상금도 올라간다. 헌터들은 러닝 맨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해도 되며 이 장면은 TV를 통하여 생생하게 방영돼 TV의 노예가 되어버린 전 국민을 열광시킨다.

마이크로 결사대

작가정신

원제는「환상여행」으로 바깥 우주가 아닌 안쪽 우주 즉, 인간의 몸안으로의 여행을 통하여 환상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베네스 박사는 인간을 마이크로 크기로 축소시켜 한정없이 축소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비밀을 알아낸다. 그러나 그는 자동차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지고 외과 수술로는 불가능한 그의 뇌속의 핏덩이를 제거하기 위해 세 남자와 한 여자가 마이크로 크기로 축소되어 박사의 몸안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축소의 시간은 60분. 60분 동안에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박사의 몸밖으로 나와야 한다. 60분이 지나면 그들은 원래의 크기로 커져서 박사를 찢어 죽이게 된다.

파운데이션 전 9권

현대정보문화사

아이작 아시모프의 대표적인 대하 장편소설로 1942년 부터1991년 까지 쓰여진 작품으로 1966년 휴고 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파운데이션이란 '근원'혹은 '기지'라는 의미로써 인류의 문명을 본존하고 파멸을 저지하는 과학자들의 근거지를 가리키는 말이며, 헤리 셀던 박사의 계획에 의해 설립된 두 개의 파운데이션은 진보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물리적인 힘인 제 1 파운데이션과 정신적인 힘인 제 2 파운데이션으로써 인류의 파멸을 저지하기 위해 서로 보완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은하계 역사를 이끌어 간다.

로봇 전6권

현대정보문화사

장편 연작소설 로봇은 태양계 바깥 50개 행성을 개척하여 부강한 독립국가를 이룩한 우주인들과 폭발적인 인구와 자원고갈로 허덕이는 지구인들 간의 문화적 갈등이 배경으로 깔리면서 살인사건의 수사과정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지구와 솔라리아. 오로라라는 각 행성이 보여주는 문화의 전형들은 인류가 이룩할 미래가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회화적으로 보여주면서, 인류문명의 끝없는 진보를 위해서는 영원한 프런티어 정신이 필요함을 끊임없이 암시하고 있다. 과학소설에 추리적 요소가 결합되어 짜임새있는 구성과 긴장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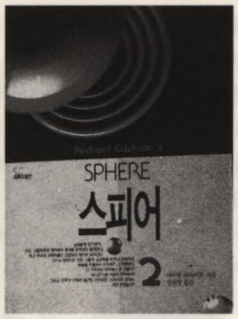
라마와의 랑데뷰

현대정보문화사

20세기의 어느 날 우주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행성이 지구로 날아든다.

우주파수대 계획을 세워두고 수많은 행성을 관찰, 이름을 붙여온 지구인들을 이 행성의 접근에 당황하여 이미 신화 속의 이름은 바닥이 나 이 행성에 힌두 신전에서 이름을 빌려 '라마'라 이름한다.

라마는 끊임없이 지구로 접근해오고, 지구인들은 노턴 대령에게 라미 행성을 탐험하도록 한다. 수많은 추측과 그 추측을 둘러싼 인간들의 대립과 반목 속에서 노턴 대령은 '라마와의 랑데뷰'를 시도하고자 탐험에 나선다. 노턴 대령의 용감하고 대담무쌍한 탐험 속에서 라마의 신비는 하나하나 벗겨져 간다.



스피어 전2권

현대정보문화사

이 작품은 공포영화와 환상적 오락영화를 상기시키는 작품으로 피로 얼룩지지 않은 공포를 통하여 독자들의 심장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탐정소설 형식에 변형된 스릴러를 가미한 이 작품은 일군의 과학자들이 탐정으로 등장하여 '스피어'라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밝혀나간다. 미지의 조재인 스피어의 정체는…….

터미널 맨

현대정보문화사

이 작품은 크라이튼이 재기하는 기능만능주의적인 현대사회의 문제 중에서 대뇌생리학 분야의 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대과학 문명의 위기와 폐단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기계문명과 컴퓨터화되어가는 사회에 대하여 불안해 하던 컴퓨터과학자 벤슨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뇌를 다쳐 간질적 발작을 일으키게 되어 기계화 된 것들을 증오하게 된다. 과학적 문명의 진보에 자신도 모르게 황폐해져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우주3부작 전 3권

현대정보문화사

암흑성운, 우주의 기류, 우주의 조약돌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각 권마다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은 정치적 암투와 트렌티(거대한 제국)의 제국주의적 지배 속에서 저항과 생존을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는 주변 행성 인민의 저항. 그 속에서 고개를 드는 인간들의 탐욕과 권력욕 등 자칫 인류의 미래가 빠져들 수 있는 암흑의 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이다. 하지만 작가는 작품에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역동성을 기계나 신이 아닌 인간 안에서 구하려 하고 있다.

멋진 신세계

현대정보문화사

이 책은 SF장르에 대한 소개, 과학기술이 걸어온 길, 주목할 만한 작가와 작품,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정리하고 있다.
최근 번역 소개되기 시작한 과학소설에 대한 길잡이로서 과학소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서이다.

축

창간 SF 매거진

참된 SF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주) 나경문화에서 발간되는 계간 'SF매거진'은 국내외의 최신 SF 작품 및 관련 정보 소개는 물론 국내 SF 작가 발굴과 양성이라는 사명까지 완수할 것이며 획기적이고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독자 여러분을 더 깊은 SF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SF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SF매거진'은 서점에 없습니다.

'SF 매거진'은 나경 SF회원에게만 우송해 드리는 회원용 비매품입니다. 나경 SF 회원에 가입하실 분은 나경문화의 책안에 들어 있는 신청 엽서를 이용하십시오.

또는 전화 (02) 323-587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SF매거진'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꾸며집니다.

- 본지는 국내 SF문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해외의 정보를 가장 바르게 제공하겠습니다.
- 본지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편집으로 SF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본지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본지는 비매품으로 나경 SF독서회원에 한하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본사에서 직접 우송해 드리며 우송료 및 제반 부대비용은 본사가 부담합니다.
- 구독에 관한 안내사항이나 배달사고는 독서회원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 광고 및 정기구독 문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0-1

TEL : (02) 323-5871~5

FAX : (02) 323-5876

●계간 에스에프 매거진/1993년 1월 1일 발행 ●발행인/조명준 ●발행처/(주)나경문화.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0-1 ●전화 323-5871~5 ●FAX/323-5876 ●편집/전미경 김인화 소준선 ●미술/권부애 ●영업/도태용 정수완 조동규 ●관리/손문희 ●인쇄처/동명인쇄공사 ●전산사식/동인문화 ●등록일자/1992년 9월 16일 ●등록번호/바-1787

●계간 에스에프 매거진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본지에 게재된 모든 자료는 무단 복제할 수 없으며 게재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본지나 편집자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주소 :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2. 6. 1~1993. 5. 31
마포우체국 승인
제 268호

받는 사람

(주) 나경문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0-1

121-22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주소 :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2. 6. 1~1993. 5. 31
마포우체국 승인
제 268호

받는 사람

(주) 나경문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0-1

121-220

SF전문 정보지

SF 매거진

에스에프매거진

가장 옳고
가장 바른
SF 정보를
가장 정확히 알리겠습니다.

SF

SF 회원가입 신청서

나경 SF 회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회원들의 유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회원번호

이 름

나 이 성별

주 소

전 화

생년월일 □ 음력 □ 양력

직업/ 직장

학교/전공

권유자 이름과 회원번호

증정받고 싶은 책

송금하신 은행 은행 지점

SF

SF 도서구입 신청서

나경 SF 독서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나경 SF 독서회원에 가입하신 분들께 나경문화에서 출간 또는 출간될 SF 도서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신청인		회원번호	
주소		권유자 이름과 회원번호	
구입도서명			
도 서 명	가 격	도 서 명	가 격

회원가입안내

1. SF 매거진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서점에 가시지 않고도 책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먼저 회원가입 카드를 작성하신 후 은행 온라인으로 연회비 10,000원을 입금시켜 주십시오.
3. 회원에 가입하신 후 도서주문 카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주)나경문화에서 출간 또는 출간될 SF 도서에 대하여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4. 정기구독에 관한 안내사항이나 배달사고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면 즉시 처리해드립니다.

(주) 나경문화 거래은행

국민은행 054-25-0003-685 (주)나경문화

상업은행 139-04-100085 (주)나경문화

제일은행 302-10-000643 (주)나경문화

농 협 038-17-000434 (주)나경문화

외환은행 189-22-00530-0 (주)나경문화

이것이 바로 그 충격적 SF이다!

TAUZERO

타우제로

25쌍의 남녀를 태우고 32광년 떨어진 처녀좌 베타 제3행성으로 떠나는 우주선 레오노라 클리스티네 호— 그들에겐 제2의 지구 건설을 위한 종족 번식의 임무가 부여되었고… 그러나 출발한 지 3년이 지난 어느날, 성운과 충돌한 클리스티네 호는 역추진 장치가 마비된 채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무한으로 돌진한다. 심장이 조여오는 긴박감으로 천지창조의 외경과 생명의 의미, 그리고 프리섹스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한 금세기 최고의 하드 SF. 휴고상 7번, 네뷸러상 3번을 수상한 폴 앤더슨의 대표작이자 출세작.

* "이것이 최고의 하드 SF이다." — 제임스 블리시
* "내가 가장 좋아하는 SF" — 그레그 밴포스

폴 앤더슨/천승세 옮김

B.E 시리즈

제1권 지구전선
제2권 하늘과 녹색사이
제3권 사이클로 경제학
제4권 하이피크 신화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들이 사이클로 별과 맞서 싸우는 지구독립전쟁의 대서사시

L. 론 허버드/정성호 옮김
각권 4,200원

우주도시 시리즈

제1권 그들이 우주를 정복할 것이다.
제2권 우주의 시간 속으로
제3권 지구인, 고향에 돌아오다.
제4권 시간의 정복자

은하계 밖으로의 진출에 성공한 인류를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던가!

제임스 B. 블리시/천승세 옮김
각권 4,200원

우주사냥개 시리즈

제1권 우주전선
제2권 은하용사들
제3권 대우주전쟁

초공간 '오메가 우주'의 신비를 놓고 벌어지는 잭스드론인과의 끝없는 첩보작전

데이비드 비숍/이규조 옮김
각권 4,800원

지구중력을 거부하는 나경 SF 페어

나경 SF페어 1	유년기의 끝	A.C. 클라크/소준선 옮김/4,500원
나경 SF페어 2	도시와 별	A.C. 클라크/정성호 옮김/4,800원
나경 SF페어 10	연인들	필립 호세 파머/천승세 옮김/4,500원

(주) 나경문화 TEL : 323-5871~5
FAX : 323-5876

동양그룹은 젊은 패기와 순발력으로
한발 먼저 미래로 진입합니다.

미래는 앞서가는 사람에게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동양그룹은 가장 먼저 미래를 보고, 가장 먼저 미래에
대응하는 젊은 기업입니다.
국민경제에 깊이 뿌리내린 기간산업과 식품산업부터
미래산업인 종합금융과 정보통신분야까지 끊임없이
미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큰 미래기업, 동양그룹이
미래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동양그룹

동양시멘트 · 동양제과 · 동양증권 · 동양투자금융 · 동양멤넬생명보험 · 오리온프리토레이 · 동양매직 · 동양해운
동양마트 · 동양창업투자 · 동양투자자문 · 동양선물 · 동양정보통신 · 동양산업기계 · 동양경제연구소 · 서남재단

SF 매거진 1993년 창간호 ● 특집/세계 SF대회 (주)나경문화